



1

1991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1. 1호

(루게 519)



◆◆◆◆◆◆◆◆◆◆ 차 례 ◆◆◆◆◆◆◆◆◆◆

큰 절	4
새 해	5
어버이수령 김일성 동지께 드림	6
빛나라 그 이름 김정일	6
금꿀의 놀라운 전변	7
새해의 첫꿈	8
김정숙어머님의 영웅메달	9
조국이여, 더 높이 나래쳐오르자	10
함께 있는 마음	13
혁명의 기발 더 세차게 휘날리자	14
나의 위치, 나의 과제	14
알찬 열매를 바라기전에	15
90년대 새로운 성격의 탐구를 위하여	15
농촌테제완성의 길에서 대를 이어 충성하는 참인간의 형상을!	16
숨은 영웅들의 신념과 의지를!	17
희곡창작에서 풍년의 열매를!	17
광범한 독자대중과 한마음이 되고저	18
3년에	19
기적소리	19
조 국	20
네가 다 말해준다	21
위대한 어버이의 품,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노래	21

배무이공들의 모습.....	27
고 백	27
90년대 인간성격창조문제에 대한 소감	37
레성강반의 봄	42
락원의 주물공	43
나는 본다	44
혈맥은 가를수 없다	45
출장지에서	63
순천의 딸에게	72
삶의 뿌리	72
격동의 나날에	74
하루를 십년처럼 일하고싶구나.....	76
내가 찾아가야 할 주소.....	77
통일거리가 일떠선다.....	80

큰 절

전병구

큰절을 드립니다
설날의 축원을 안고
아버이수령님께
삼가 큰절을 드립니다

사람으로 해가 뜨고 달이 지던
지나온 모든 나날의
간절한 소원을 다 안고 내리는듯
설날도 축원의 꽃송이를 피워올리는 이 아침

경건히 머리숙인 이 마음은
어찌하여 이리도 깊어지고
두불은 자꾸만 젖어 흐릅니까

너무도 벅차게 흘러온
90년대의 첫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푸시며
이 강산을 저리도 밝게 가꾸셨습니까

56년의 준엄한 그 시절처럼
엄혹한 혁명의 난국을
백전로장의 걸음으로 헤치시며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신 수령님

함박눈 내리던 강선의 구내길에
뜨거운 마음들을 세워주시며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으로 불러주시던 그 음성
오늘도 우리의 가슴에 울려옵니다

우리의 생명선인
사회주의기치를 해치려는
원썩들의 간악한 공세를 짓부시고
우리 식의 사회주의보루인 내 조국을
누리에 더욱 펼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구름너머 멀리
해외의 동포들도 참된 삶의 품
그이품에 안기며 큰절을 드리고

위대한 조국
한없는 민족의 공지에 넘쳐
백두에서 하나인 조선을 웨치며
남으로 남으로 발걸음을 이어가던
범민족대표들도
눈물을 머금고 올리던 큰절

평양하늘가에 올려퍼지던
《통일축구》경기의 환호성
거기에 목소리를 합치던 남측대표도
마음속으로 올리던 큰절

아 위대한 수령님
높으신 권위를 지니고계시기에
이 땅에 민족의 낮은 살아 숨쉬고
조선은 누리에 찬란히 빛발치거니

온 세상 사람들
그토록 찬사를 아끼지 않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새해를 맞는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긍지여

큰절을 드립니다
오직 그 품만이
우리 민족 하나의 겨레가 안겨살
조국임을 절감한 마음들이
오직 그 품에
영원한 행복의 세계가 있음을
진리로 깨달은 마음들이
삼가 큰절을 드립니다
설인사를 드립니다

새 해

차영도

이날이 오면
밝아오는 첫 노을과 함께
마음은 의례히
더욱 더 뜨거이
더욱더 간절히
달려가는 품이 있어라

그러면
어느덧 마음속엔
우리 수령님과 지도자동지
인민의 마음 다 헤아려서인지
건강하신 결음으로
환히 웃으시며 마주오시고

하여 그것이
새해 설날의
기쁨의 전부이고
행복의 전부인
이 나라의 새해

하기야 옛적부터
새해는
만사람이 다
제나름에 즐기는 명절이었다만

아니여라
내 나라 내 조국에서는
이날이 오면
오로지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만수축원으로
인민의 마음 한없이 젖어오르고
인민의 소원 더욱 간절해지고

이 나라 집집마다에선
귀여운 어린것들이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정중히 드리는 큰절의 세배로부터
설명절이 시작되더라

그 어느 소박한 명절상두리에서도
이날엔
어버이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위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만년장수를 위해

한마음 잔을 들더라
사람들 이날엔
가장 깨끗한 마음속에
가장 고운 꽃을 꼴라
만수대언덕으로 오르더라

아이들마저
청고운 목소리를 온 한해 다듬어
설맞이모임에
어버이수령님을 모시더라

방선의 초병들은
눈덮인 설령우에서
멀리 평양하늘을 우리르며
솟아오르는 태양빛에 물들어
경건히 거수경례를 붙이고

철의 도시 용해공들은
꺼질줄 모르는 쇠물노을을
새해의 맹세처럼, 결의처럼 피워올려
평양의 하늘가로 마음실어 보내더라

기쁨이 커갈수록
행복이 꽃필수록
더더욱 깊어지고 깊어지는 소원이
한마음같이 수천만의 마음에서
꽃망울같이 터지는 새해

아, 새해
내 나라의 새해는
어버이수령님과 우리의 지도자동지께
소원을 아뢰고저 찾아오는 명절
심장속에 간직한 신념과 의리
받드는 마음이 년륜처럼
더욱 깊이 새겨지는 날

세월이 갈수록
그 세월속에 통일의 려명이 밝아올수록
더더욱 간절해지는 인민의 소원

어버이수령님 !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림

시라즈 초우드리

대양건너 모든 인민들
자유를 누리는 모든 인민들
소리높이 노래하네
《자유로운 인민은 언제나 강하나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김일성, 그이는 우리의 심장속에 계시네》

주체는
우리의 사상의 원리
우리의 리론의 원리
우리를 곧바로 이끄는 배
태양의 빛발
우리 앞길 밝히는 등대
미래에 대한 우리의 희망이여라

주체사상을 신봉하는것은
인류의 념원

그 사상 받들어
피압박인민들 일어나
자유와 권리 위해 싸우리라
제국주의자들을 때려엎고
사회주의 새 제도 세우리라

그렇다
우리 하나로 굳게 뭉쳐
반드시 승리자가 되리라
우리에게 어버이사랑 안겨주시고
우리를 용감하고 굳세게 키워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 만세 !

(필자는 방글라데슈라지오방송국 기자임)

빛나라 그 이름 김정일

깨이제마 작크

전파타고 울려오는
그 이름 들을 때면
내 마음 기쁨에 설레여
존귀하신 그 이름 불러보노라

방송과 텔레비존
신문과 책들에서
노래되어 시되어 울리는 그 이름
빛나라 그 이름 **김정일**

지칠줄 모르는 정력과 숭고한 품모 지니시여
위대한 수령님 찬양하시는 그이
인민은 노래부르고
세계가 우러르는 그이

그이께서 이르시는곳마다 불멸의 업적 새겨가
시니
그이 가시는 길에 산천도 반기여라

친애하는 그이 **김정일**
인민적지도자의 영원한 귀감
인민의 지도자로, 스승으로, 벗으로 되시고
평화와 통일의 수호자로 계시여라
위대한 수령님의 위업을 이어가시여라

내 위대한 그이 업적 노래불러 찬양하노라
인민은 그 이름 영원히 아로새기리니
그이의 위대한 사상리론 불멸하리라
빛나라 그 이름
김정일 만세 !

(필자는 르완다사람임)

금골의 놀라운 전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라의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나라를 공업강국으로 만들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검덕광산을 나라의 현대적인 대유색광물생산기지로 꾸릴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주시였다.

그런데 검덕광산은 대답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지 못하고 당면한 생산과제에만 매달려 소극적으로 일하다나니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의도대로 광산을 현대적인 대유색광물생산기지로 꾸리지 못하였을뿐아니라 광물생산에서도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키지 못하고있었다.

검덕광산이 이렇게 큰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니 사회주의건설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마침내는 아버지수령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였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헤아리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몸소 이 어려운 문제를 맡아 푸실것을 결심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창건 30돐전으로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기 위한 총공격전으로 전당과 전체인민을 불러일으키시는 한편 경제발전에서 걸린 고리들을 풀며 사회주의대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돌파구를 바로 유색광업, 검덕광산을 추켜세우는데서 찾으시고 전당, 전국이 검덕을 지원하도록 혁명적조치를 취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및 정무원 간부들의 협의회를 마련하시고 전당과 전국이 검덕을 지원할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우리는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전국이 광업을 지원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투쟁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검덕광산에 력량을 집중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수령님께서 검덕에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계신다는것을 검덕로동계급에게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다시한번 대전투를 힘있게 벌리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원대한 작전적구상을 받들고 당보를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신문, 방송들이 검덕을 지원할데 대한 선진공세를 들이냈고 700여

명의 예술인들로 무어진 지원대가 검덕에 도착하였으며 룡성과 차련관의 로동계급들이, 강선과 황철의 로동계급들이 충성의 지원물자를 가지고 달려왔다. 그들만이 아니였다. 전국보건일군들의 의료봉사대와 수도권의봉사부문 일군들의 인민봉사대, 청년돌격대와 직맹돌격대들이 앞을 다투어 달려왔다.

온 금골땅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높은 뜻을 심장으로 받아안은 광부들과 지원자들의 불타는 충성심으로 불도가니처럼 끓어번졌다.

1975년 7월 1일, 새로운 혁명적앙양의 불길을 검덕에 지펴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목소 산세 험한 검덕땅을 찾으시였다.

자나깨나 마음속깊이 흠모하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맞이한 검덕의 로동계급들은 환희와 감격에 휩싸였으며 온 금골땅이 열광적인 환호성으로 차고넘쳤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군중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고나서 먼길을 오신 피로도 푸실사이 없이 광부들의 일터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한시바빠 덜어드리시려는 뜨거운 충성심과 검덕광부들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안으시고 광부들이 일하는 현장부터 찾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

위대한 수령님께서 밟으신 현지지도의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 제2선광장에 이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선광설비들의 가동정형을 알아보시고 기업관리에서 설비를 제때에 점검보수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설비보수를 제때에 하여 설비를 만가동시켜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운광능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운광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벨트콘베아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크고작은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일군들의 가슴은 끝없이 설레였다.

검덕광산의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 그것은 단순히 운광문제를 풀기 위한 방도만이 아니였다.

아버지수령님께서 바라시고 의도하시는데로 검

덕을 대유색광물생산기지로 꾸릴 거대한 설계도였고 주체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울 또하나의 웅대한 구상이었다.

가파로운 비탈길도 마광기의 요란한 동음도, 역한 시약내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선광장의 구석구석을 돌아보시면서 광산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 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광부들이 일하는 막장에 들어가보라고 하시며 4.5갱으로 향하시였다.

순간 그이를 몸가까이 모시고 다니던 일군들은 저르기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다른곳이라면 몰라도 석수가 쏟아지고 구배가 심한데다가 불량개소까지 있어 대보수를 예견하고있는 갱막장에만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실수없었기때문이었다.

일군들은 그이의 앞을 황급히 막아서며 말씀드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위험합니다. 갱막장에만은 못들어갑니다.》

그러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자애에 넘치는 부드러운 어조로 갱안에 들어가지 않을바에야 우리가 무엇때문에 여기에 오겠는가고 하시며 스스럼없이 인차에 오르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위험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러르는 일군들은 북받쳐오르는 걱정에는시울을 적시였다.

인차는 곧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침묵밑으로는 석수가 흐르고 인차우에서는 가끔

시퍼런 섬광이 번뜩이였다

10리, 20리... 어두운 갱속을 달리기 시작하여 근 1시간, 마침내 인차는 막장에 이르렀다.

《그 존귀하신 몸으로 여기가 어디라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막장에서 잔뼈가 굵은 한 로광부는 더 말을 잊지 못하고 오랜 세월 암벽을 떠밀던 그 억척같은 어깨를 들먹이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막장이 환하도록 만면에 인자하신 미소를 지으시며 그 광부를 뵈으신 한품에 안으시고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 최전선에 선 동무들이 그리워 찾아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을 받아안은 광부들의 가슴은 다시금 크나큰 감격에 젖어들었다.

그것은 꿈결에도 그림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몸가까이 만나뵈게 된 영광과 기쁨만이 아니였다.

검덕을 사회주의대건설의 돌파구로 내세워주시고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 최전선이라 불러주시는 그 숭고한 뜻이 더욱 가슴뜨겁게 안겨왔던 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몸소 금골의 지심깊은 막장에 찾아오시여 안겨주신 그 사랑, 그 믿음은 검덕땅에 전변의 새 역사를 펼치였다.

금골의 놀라운 전변,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는것을 최대의 의무로 여기시고 자신의 모든것을 고스란히 바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 귀중한 결실이다.

새해의 첫꿈

시모니시 후미오

동녘하늘과 바다
붉게 타오르는데
모든것 향도의 손길따라 빛나는 나라
멀리에서 그러보노라
사람들 굳센 신념 지니고

철벽같이 뭉쳐있어
성스러운 기운 차고넘치나니
민족의 위업 바야흐로 이룩되고있어라
(필자는 일본 돗토리현 사카이미나
토시의회 의원임)

김정숙어머님의 영웅메달

김 석

9월 21일

김정숙어머님께

공화국영웅칭호가 수여된

아 해마다 이날이 오면

가슴속에 못건디게 그리운

자애로운 어머님의 그 모습

어머님은 진정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신

영웅전사의 해발이시고

영웅전사의 귀감이십니다

하늘의 별들도 조으는 백두밀림의 깊은 밤

사령부창가의 불빛을 지켜

어머님은 그 언제나

교대없는 보초병이 되시었고

적탄이 비발치는 격전장에선

한몸이 그대로 성벽이 되시어

장군님의 안녕을 보위한

불사신의 친위전사였습니다

그날의 그 자세로

시련받던 건국의 나날

눈보라치는 모진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해방산초소에 나오신 어머님

위대한 장군님을 잘 모시자면

초소를 철벽으로 지켜야 한다면

보초병의 발밑에

사랑의 불꽃도 깔아주시고

총을 잘 쏘아야

초소를 철벽으로 지킬수 있다시며

항일의 명사수 그 솜씨로

삼일포에서 높이 올려주신 충성의 충성

그날의 그 사랑

전사들의 가슴속 혈맥이 되고

그날의 그 충성

전사들 심장속 박동으로 뿜겨지니

하기에 인민들은 불렀습니다

김정숙어머님은

항일의 녀성영웅이라고

하기에 인민들은 높이 모셨습니다

어머님의 가슴에 영웅의 금별메달을

어머님께 영웅칭호가 수여되던 날

가슴속 못건디게 솟아나는

그리움을 참지 못해

사람들은 소리없는 눈물을 흘리었고

산천초목도 감격에 설레었습니다

아 간절한 그 념원 그 소원

고마운 당의 향도아래

경치좋은 대성산 주작봉마루

어머님의 반신상앞에

영웅의 금별메달이 붉은기폭에 새겨질 때

어머님의 자옥 이어진 초소에도

어머님의 사랑어린 전사들 가슴속에도

수천수만의 가슴속에도 빛나고있습니다

어머님의 금별메달 그 빛발이

기발처럼-

기발처럼-

(1990. 9. 23)

조국이며, 더 높이 내려쳐오르자

남대범

새해가 밝아왔다. 보다 큰 승리와 영광으로 빛날 희망찬 새해 1991년의 첫 아침이 밝아왔다.

제철소구내에서 쏟아지는 쇠물빛에도, 방직공처녀들이 짜내는 무늬고운 비단필에도, 먼바다로 나가는 어로공들의 앞길에 펼쳐진 흰파도에도 새해를 맞으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신년사의 구절 구절이 어려있어 그렇게도 붉고 아름답고 황홀함을 자아내는 이 아침,

조국이며 더 높이 내려쳐오르자.

사람마다 투지와 열정, 신심에 넘쳐 자기 초소에서 일손을 잡는다. 돌격명령을 받은 전사들이 일제히 돌격전에 펼쳐나선듯 우리 인민은 보람찬 1991년도의 첫전투에 들어선다. 조국땅은 온통 불도가 니마냥 끓어넘친다. 길가의 가로수도, 산력의 바위들도 약진의 기상에 불타며 함께 내달리는듯 싶다.

새해의 첫전투를 벌려나가는 이 성스럽고 자랑차고 긍지높은 인민의 모습.

우리 인민은 이해에 또 얼마나 높은 력사의 봉우리에 올라설것인가. 앞을 보면 웅대한 전망계획에 가슴이 부풀어오르고 뒤를 돌아다보면 거창한 창조적위훈에 스스로 힘이 솟는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은 절망과 우울, 비판속에서 이해를 맞이한다. 그들에겐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기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해를 긍지높이 총화하며 추억속에 똑똑히 새겨넣는다. 전진의 길에서 지난해에 그러하였던것처럼 이해에도 완강하고 견결하게 싸워나가기 위해서이며 지난해처럼 승리하기 위해서이다.

력사는 빨리 발전하는데 이렇게 어제날을 돌이켜 보고 그 투쟁기풍과 생활기풍을 본받는다면 그 무슨 전진에 대하여 이야기할수 있겠는가? 혹자는 이런 의문을 가질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혁명투쟁의 생리를 모르는 소리이다. 과거는 언제나 미래를 뒤받침하는 강력한 주춧돌이다.

우리 인민은 60여년전 암야를 밝히는 한점의 불화로 타오른 《ㄷ. ㄷ》의 붉은기치를 오늘도 변함없이 고수해나가고있으며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날에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

가고있다. 투쟁의 길에서 파란과 시련, 우여와 곡절은 있을수 있어도 이미 향한 종착점에 대한 자그마한 편차도 수정도 있을수 없다.

우리 혁명은 나무에 비긴다면 60여성상 대지에 뿌리내린 거목과 같다. 뿌리가 얇은 나무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리고 마침내는 밀뿌리채 파헤쳐 지기마련이지만 깊고 억센 뿌리를 가진 나무는 그 어떤 광풍이 휘몰아쳐와도 끄떡하지 않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이 지심깊이 그 억센 뿌리를 내리게 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여오시였던가!

혁명투쟁의 건지에서 본다면 지난해는 우리 혁명의 뿌리를 더 억세게 자래우고 더 깊이 내리게 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한해였다. 우리는 더욱 굳건해진 토대위에 서서 1991년의 장엄한 진군을 시작한다.

조국해방 45돐과 당창건 45돐이 되는 영광의 해, 1990년대의 진군이 시작된 투쟁의 해인 지난해에 우리는 많은 일을 하였으며 우리 혁명은 멀리 전진하였다. 온 사회는 주체사상으로 더욱 일색화되었으며 민족의 최대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밝은 려명이 흘러들기 시작하였다.

지난해에 우리 당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별 대회와 열성자회의들을 소집하고 대중속에 당의 의도를 깊이 심어주었으며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대중의 혁명적열의가 온 나라에 차넘치도록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련계가 강화되고 생사운명을 같이하려는 사상의지적통일이 더욱 반석같이 다져졌다.

수령, 당, 대중의 불패의 일심단결.

공산주의운동력사는 단결은 곧 힘이며 단결은 곧 승리라고 가르치고있다. 얼마나 많은 공산주의투사들이 이 단결을 위하여 피를 흘렸던가. 그러나 그들대에는 이룰수 없었던 대오의 완전무결한 통일단결을 우리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은 이 땅에 이룩하여놓았다.

우리의 통일단결은 온 대오가 하나의 사상으로 무장된것으로 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단결

이다. 이 일심단결은 또한 매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의 높은 풍격을 갖춘 토대우에서 이루어진것으로 하여 로동계급이 바라던 통일단결에서 절정을 이룬다.

우리 인민은 모두가 다 혁명가중의 혁명가이고 투사중의 투사이다. 그 어떤 절해고도에 홀로 남는 다 하더라도 당과 수령을 위하여 마지막 끝까지 심장이 고동칠수 있게 준비된 사람들이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제2차 북남고위급회담 취재를 위하여 온 남측기자들이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참관했을 때의 일이다. 꼬마재간둥이인 네살난 어린이가 참대를 그리는 모습을 보고있던 남조선기자들은 너는 참대만 그릴줄 아는가, 참대 말고 다른 짐승들도 그릴수 있는가고 물었다. 말도 겨우 번지는 그 어린이는 다른 그림도 그릴수 있다고 대답했다. 남조선기자들은 그림 고양이와 쥐새끼를 한번 그려보라고 하였다. 이것은 물론 호기심에서 무심결에 던진 말이었다. 어린이는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면서 옆에서 보고있는 남조선기자들에게 고양이는 나고 쥐새끼는 로태우라고 설명하면서 고양이가 쥐새끼를 잡아먹는것을 그리려고 하였다. 그러자 남조선기자들은 바빠맞아 고양이는 그리지 말고 쥐새끼만 그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어린이는 이미 그림을 끝내가고있었다. 하는수없이 남조선기자들은 고양이가 쥐새끼를 입에 덥석 문 그림을 《기념품》으로 받아들고 떠나갔다.

네살난 어린이나 여든살난 로인이나 계급적립장이 확고하고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을 안은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 이 일심단결에 감히 맞서볼자는 맞서보라!

우리는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더욱 공고화함으로써 지난해의 간고한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면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로동계급의 당의 통일단결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단결입니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이 공고하고 위력한것은 바로 전당이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굳게 뭉친데 있습니다.》

지난해에 들어서면서 제국주의자들과 그 사환군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은 절정을 이루었고 여기에 발맞추어 미제와 그 주구들은 새해벽두부터 《팀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벌려 다시 정세를 전쟁

접경으로 몰아갔는가 하면 안으로부터 우리 공화국을 허물어보려고 반동적인 사상문화적공세를 집요하게 벌렸다. 이러한 정세속에서 혁명적인 폭풍을 일으켜 반혁명적인 일체 광풍을 휩쓸어버리기 위하여 우리 당은 전체 인민을 새로운 《90년대속도》창조운동으로 불러일으켰다.

전당, 전국, 전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7차전원회의결정 관철을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섰고 최대한으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된바람이 온 나라에 휘몰아쳤다. 그리하여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를 놀래우려고하던 전쟁위협도, 우리 내부에 불어넣으려고 하던 날라리풍도 아예 맥을 추지 못하고말았다. 오히려 우리의 혁명적인 공세앞에서 제놈들의 내부가 허물어지는 과정을 더욱 촉진하게 되었다.

지난해는 불리한 자연과의 투쟁이 매우 치렬하게 벌어진 한해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난해는 어느 하루도 비가 내리지 않은 날이 없었던것 같다. 7~8월에 오군하던 장마가 5월에 들이닥쳐 9월달까지 계속되었으며 전야에는 이른봄부터 내리는 비로 하여 씨불임을 할수 없는 엄혹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조성된 난관을 예리하게 통찰하시고 장마가 시작되던 첫시기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으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군인들과 청년학생들을 불러일으키시였다. 하늘이 이기느냐, 창조적인 삶을 꽃피우기 위해 일떠선 인민대중이 이기느냐 하는 판가리싸움이 이른봄부터 온 나라의 전야에서 벌어졌다.

난관과 애로는 제철에 씨를 뿌리고 김을 매야 하는 농장별에만 있지 않았다. 탄광과 광산, 철도와 립산마을 그 어디서나 때없이 퍼붓는 비로 하여 생산정상화에 큰 지장을 받고있었다. 그중에서도 서해 천리물길공사장과 평양-희천사이고속도로건설장, 특히나 수도의 5만세대 살림집건설장엔 그야말로 난관이 겹겹을 앞을 막아나섰다.

이 난관을 맞받아나가던 군인건설자들과 지원자들, 진흙산, 진흙언덕이 그대로 움직여나가는듯하던 수도의 5만세대 살림집건설장, 자동차바퀴인지 원형으로 된 흙더미인지 가려볼수 없었던 료전기체들, 그우에 계속 내리고내리던 장마비.

그러나 군인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은 굴복하지 않았으니 불같이 뜨거운 그들의 심장이 뿔어올리던 충성의 열도와 내리는 찬비가 부딪쳐 작열하며 열

마나 장쾌한 건설의 낮과 밤을 보내었던가!

그러기에 이 광경을 본 외국손님들은 조선사람의 힘은 참으로 위대하다, 이 통일거리 건설장만 보아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대중의 힘을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똑똑히 깨닫게 되었다고 감탄하는것 이였다.

실로 지난해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존경과 신뢰의 정이 가장 높이 불타오른 한해였으며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가 철석같이 가슴속에 더욱 깊이 뿌리내린 한해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와 그를 받들어나가는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충성심.

여기에 혁명의 붉은기치를 세월이 흐를수록 더 붉게 물들이는 혈조도, 혁명의 길에서 부닥치는 온갖 난관을 과감하게 뚫고나가는 희생정신도, 혁명을 남보다 더 빨리 전진시키는 원동력도 다 포함되어 있나니 당의 령도와 인민대중의 충성심을 가진 우리 혁명의 전도는 그 얼마나 휘황찬란한것인가!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변함없이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심으로써 이 불타는 충성심을 시위하였고 조국해방 45돐과 당창건 45돐을 경축하는 드넓은 광장에서 이 충성심은 영원불멸하다는것을 다시금 온 세상에 보여주었다. 이 불타는 충성심에 받들려 새해의 전투에 들어서는 조국이며, 더 높이 나래쳐오르자!

지금 생각해보면 지난해에는 어느 하루도 굶은 날씨가 없었고 비가 내린 일도 없었던듯이 생각되기도 한다. 지난해 전야마다에 가득히 실렸던 풍년 가을과 공장, 기업소마다에서 련이어 울리던 년간 계획완수의 환호성, 이 기쁨이 너무 커서 우리들 자신이 우선 그 수행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난관에 대해서 잊어버렸는지도 모른다.

특히나 지난해에 우리 인민모두가 일일천추로 고대하던 조국통일을 위한 그 길에서 얼마나 큰 승리가 이룩되었는가.

1989년 여름, 《전대협》대표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고 북남의 축구선수들이 오고 가고, 범민족통일음악회 대표들이 오고 북남고위급회담 대표들이 오고갔다.

분계선장벽을 틀어쥐고 어떻게 하나 《두개조

선》을 만들어보려고 미쳐날뛰던 원쑤들의 발악적인 책동은 소리없이 무너져내리기 시작하였다. 두동강난 민족의 혈맥은 다시 이어지고 피가 통하기 시작하였다. 민족의 얼도 다시 소생하기 시작하였다.

모란봉기슭의 풍치 아름다운 풍라도에 자리잡은 5월1일경기장에서 높이 울리던 환호성, 그 환호성이 다시 한강변의 잠실경기장에서 울려 퍼질 때 과연 이 땅의 푸른 하늘가에 나래친것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가를래야 도저히 가를수 없는 민족의 녀이 다시 소생하였음을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 아니었던가. 분렬세력이 제아무리 발악을 해도 통일의 날은 하루하루 다가온다는 력사의 엄숙한 선포가 아니었던가!

우리는 승리자의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지난해를 돌이켜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새해의 전망목표를 내다본다.

이해엔 또 어떤 경이적인 사건들과 충격적인 사변들이 우리를 맞이할것이며 이해의 진군로정에는 또 어떤 시련들이 가로놓일것인가? 그것을 미리 예측할수는 없다. 그러나 한가지만은 명백히 내다볼수 있으며 자신있게 예언할수 있다. 그것은 지난해보다 올해에는 더 큰 승리를 거두게 되리라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계시고 일심단결된 우리 인민의 높은 충성심이 있는 한 우리는 모든 면에서 반드시 세상사람들을 놀라울 승리를 이룩하게 되리라는것이다.

승리-이것은 그 어떤 일을 시작할 때나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확고히 자리잡은 신념이다. 우리는 승리하는데 습관된 인민이며 오직 승리와만 친숙해졌다. 승리-이것은 우리 인민의 대명사의 하나이다. 우리는 패배와 담보란 모르며 그것을 원쑤처럼 미워한다.

새해의 려명은 밝아왔다.

주체조국의 장엄한 력사우에 또하나의 빛나는 장을 새기게 될 영광의 1991년! 이해를 빛내여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더 큰 기쁨을 드리려고 인민들은 큰걸음을 내딛는다. 기적과 혁신, 창조와 위훈의 미래는 약속되었다. 조국이며, 더 높이 나래쳐오르자.

함께 있는 마음

림 공 식

사려깊은
어머니의 다심한 그 눈길로
이른아침
일터로 향한 나의 걸음걸음을 지켜주고
깊은 한밤에도
조용히 나의 숨결 지켜주며
생활의 매 순간에 함께 있는 사랑

때로는 흘러간 어린 시절
내 잔잔한 시내가를 건너도
징검돌을 헛디딜세라 손잡아주던
그 인자한 모습으로 마음속에 찾아오고

집 떠나 먼곳에 가있어도
꿈결에까지 찾아와 보살펴주는
어머니 미소처럼 따뜻이 깃드는 사랑

가까이 있어도
멀리에 있어도
안겨지는 그 사랑에 효성을 다하며
언제나 함께 있는
어머니당과 우리의 삶이여

해놓은 일이 많아서만
품에 안아주던가
내 바친 적은 땀방울에 진정이 어릴 때
그리도 기뻐 영예를 안겨주며
위훈의 언덕으로 이끌어주는 사랑이여

그래서였더라
내 뜻하지 않은 잘못으로

머나먼 외진 초소에서
피로운 가슴 부둥켜안고
독한 마라초를 태우고있을제

아 고통스럽던 그 나날
자책으로 무겁던 이 마음의 창문을 열어제끼며
준절히 깨우쳐주던 그 목소리
-일어서라, 어서 일어서라
종아리가 아니라
넋에 심장에 회초리를 안기던 사랑이여

날아준 그것만으로는
참된 어머니일수 없듯이
세월의 저 끝까지
장한 부름속에 내세우고 싶어하는 그 사랑
크나큰 그 품에서
투사로 영웅으로
인민은 자라나지 않았던가

아 한번 품어 안으면
오늘도 래일도
영원한 사랑을 베푸는 당이여
이 땅 수천수만의 심장속에
생의 전부로 함께 있는 당

폭풍도 가를수 없으라
당과 함께 하는 우리의 운명
지구가 열백번 갈라진대도
영원히 영원히 함께 있으리
우리 당과
우리 당과

혁명의 기발 더 세차게 휘날리자

20세기 마지막년대의 두번째 해가 시작된다.

이 시각 우리는 흘러간 지난해를 돌이켜보게 된다.

혁명의 폭풍우를 헤쳐가는 우리의 해와 년대들을 두고 말할 때 범상히 지나칠수 있는 때란 없었지만도 지난해는 각별히 기억속에 새겨질 한해였다.

카툰에서 닳을 올린 주체혁명로선의 기발, 그 기치를 추켜들고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소리 높이 웨치며 달려온 한해, 사회주의혁명에 대한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를 온 세상에 과시하며 보무당당히 달려온 90년대의 첫해였다.

특히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45돐 경축대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기치를 굳건히 고수하고 빛내여가려는 우리 당의 필승의 신념을 뚜렷이 실증하고 세계만방에, 혁명적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를 주었다.

시대와 력사 앞에 자주의 길, 사회주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갈 영광스러운 사명을 지닌 우리 인민의 위업을 실현해나가는데서 문학이 놀아야 할 역할이 자못 크다.

우리는 새해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 당의 문예 리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소설문학에 그 어떤 이색적인 사상조류나 불건전한 요소도 발붙이지 못하게 하며 하나하나의 작품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철저히 이바지되게 할것이다.

나는 소설문학의 전초선에 서있는 한 일군으로서 새해에 혁명적인 장중편소설창작에 더한층 박차를 가해나갈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혁명전통주체작품들인 장편소설 《온성지구》, 중편소설 《영생의 권리》, 《불멸의 자취》의 창작을 부쩍 다그쳐 두편의 중편소설은 올해에 출판발행하게 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반영한 작품들인 장편소설 《북부철길》, 《환희》, 《씨앗》, 중편소설 《시대의 념원》, 《빛나는 길》창작을 다그치게 함으로써 독자들앞에 내놓을 결심이다.

이렇게 하여 주체혁명위업완성의 보람찬 진군길에 나선 우리 인민의 사상정서생활에 더 큰 활력을 주어 그들의 손에 쥐어진 혁명의 붉은 기발이 더욱 세차게 휘날리게 하겠다.

실장 김익철

나의 위치, 나의 과제

벽찬 생활이 너무도 많은것을 약속해주는 새해, 희망과 포부도 크고 소원과 맹세도 류다른 90년대의 두번째 해!

이해에 나는 무엇을 할것인가? 그 어떤 생활의 랑만과 아름다운 정서로 시문학의 화원에 선명한 색갈과 짙은 향기를 보낼것인가?

우리 당의 사상과 의지, 시대의 지향과 숨결이 맥맥히 살아뛰는 풍부한 서정의 꽃으로 시인의 존재를 주장하지 못한다면 내가 선 대오의 한 위치는 사실상 빈것이나 같을것이다.

시대와 생활-이것을 떠나서는 시인의 존재를 생각할수 없다. 시인의 심장은 그속에 고동쳐야 한다. 거기에 시인의 생명이 있다.

우리 당이 세워준 시인의 위치와 영예를 빛내기 위해 오직 시대와 생활을 안고 흥분하고 사색하고 모대기라, 생활을 틀어쥔 시인만이 창조해낼수 있는 풍만한 열매로 한해를 가득채우라!

이것이 나의 과제다. 이해에 새롭게 다지는 나의 결의이기도 하다.

생활속으로! 시대정신이 내려치는 들끓는 현실속으로!

독자들이여, 우리 거기서 만나자. 거기서 그대들은 우리 시인들의 우렁찬 목소리를 들을것이다!

시인 변홍영

알찬 열매를 바라기전에...

만약 뼈심을 들여 일하지 않고 좋은 결실만을 바라는 농민이 있다면 그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사람 일 것이다. 그러나 이른봄 살얼음 밑에서 땅을 갈고 씨앗을 고르며 온 여름 땀흘려 곡식을 가꾸어나가는 농민에게는 의례히 흐뭇한 결실이 차례지기 마련이다.

우리 작가들의 창작도 이와 다를바 없지 않겠는가? 나는 이 평범한 인간생활의 철리를 요즘 장편소설의 초고를 쓰면서 더욱 사무치게 느끼게 된다.

스스로 택한 혁명의 진펄길, 이것은 내가 쓰고있는 소설의 종자다. 현대적인 대형산소분리기를 개발하던 락원의 로동계급앞에는 남이 걸어간 험하고 평탄한 길과 생소하고 힘든 두 길이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 어렵고 힘든 진펄길을 택하였다. 그것이 우리 혁명이 바라는 길이었고 준엄한 전화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 전후복구건설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심장의 멍세를 올린 10명 당원들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리를 지키는 길이였기때문이었다.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바뀌었다. 10명 당원들은 늙

고 이제는 우리결을 떠나가고있다. 그들이 섰던 초소에는 그들의 아들딸들이 서있다. 우리 당력사에 《락원의 정신》으로 아로새겨진 10명 당원들의 고결한 혁명정신은 후대들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 있는것이다.

믿음과 충성으로 엮어지는 락원의 이야기, 들을수록 고결하고 새겨볼수록 숭엄해지는 락원로동계급의 높은 정신세계를 손색없이 작품에 담아야 할 창작은 나에게 참으로 힘에 부친다. 그래서 붓을 들지 못하고 모대건 것이 얼마였던지... 하지만 그만큼 보람있는 일이 아닌가!

알찬 열매를 바라기전에 부지런한 농민의 일본새대로 성실하고 근면하게 《작업》 하겠다. 오직 그것만이 나의 심장을 불태우고 환상의 나래를 펼쳐주게 될것이다. 그것만이...

이것이 새해를 맞는 나의 소원이자 또 결의이기도 하다.

소설가 림병순

90년대 새로운 성격의 탐구를 위하여

세월은 류수갈다고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참뜻을 깨닫게 되는듯합니다.

희망과 랑만에 넘치던 청춘시절에는 세월아, 갈테면 가라고 제멋에 겨워 큰소리를 치다가도 귀밑머리에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해저물기전에 강건너에 가닿아야 할 배사공처럼 마음이 급해지는것이 어쩔수 없는 인생인가 봅니다.

하물며 써놓은 글보다 써야 할 글이 더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은 더욱 절감되는 일이라고 해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한밤이 다하도록 붓을 달리다가도 사색이 무너지고 손이 더딘것만 같아 자신의 둔재를 원망하곤 합니다.

하기는 사람은 걸은 늙어가도 속은 영원한 청춘에 산다고 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이 때없이 가슴속에 움썽음치는 창작적열정을 느낄 때면 그것이 어디에 원천하는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운명개척에 이바지할 숭고한 사

명을 지닌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존재가치와 관련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즐겨 《인생과 문학》, 다시 말하여 인간의 운명개척에서의 문학의 사명과 역할에 관한 문제를 자기 창작의 영원한 종자라고 자부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진할줄 모르는 창작적열정의 보다 근원적인 원천은 한가슴에 받아안기에는 너무도 벅찬 시대와 위대한 현실, 그것을 창조해나가는 인간들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는 우리 인민이 커다란 포부와 굳은 신념을 가지고 투쟁하여야 할 희망의 년대이며 투쟁의 년대입니다.

인류의 전진운동이 암초에 부딪쳐 소용돌이치고 있는 때 지구의 동서남북이 제아무리 소란스러워도 끄떡함이 없이 일찌기 《E. C》의 그 시절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뜻을 올리신 주체의 향로를 따라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는 내 나라, 내 인민!

외세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분단의 비극사를 영원히 끝장내고 기어이 조국통일의 대문을 활짝 열고 야말 력사적인 1990년대!

오로지 위대한 당, 위대한 수령을 모신 인민만이 누릴수 있는 이 크나큰 민족의 공지와 존엄을 안고 희망에 넘쳐 신심도 높이 역세게 전진하는 사람들, 90년대 인간성격의 새로운 사상미학적특성을 탐구해나가는데, 그렇게 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통일을 성취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거세찬 투쟁에 힘찬 발걸음을 합쳐나가는데 새해 1991년을 맞으며 제가 다짐

하게 되는 창작의 결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미려한 저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수령, 자기 당, 자기 조국, 자기 인민에 대한 다함없는 사랑과 공지를 가지고 작가들과 합심하고 시대와 함께 발맞추어 살며 창작할 때 뜻은 이루어지리라 믿어마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풍만하고 알찬 창작의 열매로 우리 당에 기쁨을 드리고 우리 인민의 사랑을 받는 녀류평론가가 될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평론가 최언경

농촌테제완성의 길에서 대를 이어 충성하는 참인간의 형상을!

한해를 보내고 새해 1991년을 맞이합니다.

지난해-1990년은 격동적인 사변들과 빛나는 승리로 엮어진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고마운 당의 품속에서 작가로 자라나 어느덧 중년기를 넘어서는 저에게 있어서 지나간 해는 행복한 나날인 동시에 참된 교훈을 주는 나날들로 추억될것입니다.

새해를 맞는 이 시각 우리모두에게는 이미 해놓은 일에 만족할것이 아니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두고 끝없이 사색케 하고있습니다.

뜻깊은 이해에 저는 사회주의농촌테제 완성의 길에서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해가고있는 참된 인간의 전형창조에 바쳐진 장편소설을 창작하려고 합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촌혁명가》라고 높이 불러주신 옥도리의 립근상로력영웅,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을 받들고 옥도마을을 《무릉도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숨이 지는 순간까지 노력한 참다운 혁명가였습니다. 지금 그는 우리곁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생전에 못다한 일은 오늘 그의 아들에 의하여 빛나게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받들어

충성과 효성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립근상과 아버지의 대를 꿋꿋이 이어나가고있는 아들 립기환, 그들의 삶과 투쟁은 대를 이어 계속되는 혁명의 길에서 수령의 전사는 자기의 수령을 어떻게

모시고 받들고 따라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생동한 모범으로 됩니다.

혁명가였던 아버지의 대를 이어나가는 일이 보람은 있지만 험치 않듯이 대를 이어 충성과 효성을 다해가는 길만이 영생하는 삶, 값높은 삶을 누리는 참다운 길이라는것을 형상적으로 천명하는 일 역시 영예로운것이지만 결코 험치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신심에 넘쳐 새 소설 창작에 정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창작의 성공여부는 전적으로 저의 정열과 탐구적노력에 달려있습니다.

저는 작가는 언제나 현시대가 제기하는 초미의 문제에 대답을 주어야 한다는 책임적인 임무를 자각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재능과 정력을 다 바쳐 창작함으로써 당의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소설가 김동렬

숨은 영웅들의 신념과 의지를!

뜻깊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그믐날밤! 이런 밤이면 누구나 가는 해에 제가 한 일을 더듬어보며 오는 해에 할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그렇다, 생각깊은 그믐날밤이다.

깊어가는 이밤, 조용히 서재에 앉아 사색하노라니 가는 해가 조용히 나에게 묻는다.

《시인아, 너는 이 한해동안에 어떤 목소리로 벽찬 이 시대에 이바지했는가?》라고.

나는 별로 할 대답이 없다. 한해를 돌이켜보건대 조국통일의 열망속에 격동적인 사변들로 가득찼던 한해앞에 이렇다할 걸음을 남기지 못한 자책감으로 지나온 한해를 돌이켜본다는것은 얼마나 피로운것인가.

드디어 시계가 한해의 마지막 열두점을 알리자 이번에는 또 새해의 첫 시작이 나에게 조용히 묻는다.

《시인아, 너는 이해에 어떤 목소리를 시대의 격류에 보태겠는가?》라고.

순간 나의 대답을 대신하는듯 나의 생각속에서 한 영예군인 숨은 영웅이 아침이슬이 내린 푸른 숲속 오솔길로 묵묵히 걸어가고있다.

그렇다. 지난해 현지체험의 길에서 만났던 사람들중의 한사람이 바로 영예군인 숨은 공로자이다.

아버이수령님과 당의 배려로 로력영웅이 된 그가 색바랜 산림보호원의 완장을 팔에 끼고 지금 고향땅에서 푸른 숲을 가꾸고있다.

또 나의 생각속엔 어느 간석지분건설사업소 초급당비서가 걸어가고있다. 어느 언제건설장에서 만났던 로타입공의 목소리는 왜 이렇게 생생히 가슴에 울려오는가.

그렇다. 이들처럼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가 완전히 체질화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숨은 영웅들이 아닌가, 얼마나 아름답고 미더운 사람들인가. 숨은 영웅, 이들이 바로 새해 나의 서정적 주인공들이다. 이들의 가슴속에 넘쳐나는 숭고한 사상감정을 깊이 파고들어 구가하자. 깊은 철학성을 담보하는 특색있는 양상으로 풍만한 정서가 안받침된 서정시로도 노래하고 련시로도 노래하리라.

하여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중앙통신사 5국 2세포당원들에게 보내신 회답서한을 심장에 새기고 락원의 10명 당원들의 그 자세로 영광스러운 당을 받드는 충성의 가수로 되리라.

바로 이것이 새해의 물음앞에 하고싶은 나의 대답이며 동시에 새해 나의 창작결의이기도 하다.

시인 **한기운**

희곡창작에서 풍년의 열매를!

7천만겨레의 마음과 마음속에 통일의 노래가 격조높이 울려퍼졌던 1990년대 첫해를 뜻깊게 보내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한 그 기쁨을 무슨 말로 다 형언할수 있겠는가!

설날아침 우리가 받아안은 위대한 수령님의 새해신년사는 다시한번 비약할 우리 조국의 설계도로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용맹을 가슴가득 안겨주었다.

지금 나는 뜻깊은 새해신년사를 받아안은 극작가의 한사람으로서 오늘과 같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가슴 들먹이고있으며 아울러 은혜로운 조국을 목청껏 노래하고픈 창작적열정이

북받쳐올라 가슴 설레임을 금할수 없다.

작가는 작품으로 우리 당을 받들어가는 문필전사이다.

나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가르치심을 항상 명심하고 언제 어디서나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워나감으로써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펼쳐나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고무추동하는 희곡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겠다.

우선 농촌에 파견된 로동계급들이 우리 당의 수리화방침의 보다 높은 완성을 위해 계속혁명의 사상으로 살며 일할것을 호소한 중막극 《행복의 무지개》를 더욱 주옥같이 다듬어 무대우에서 훌륭한

연극작품으로 완성하겠다.

또한 올해에 나는 당정책을 기동적으로 반영한 전투적인 단막희곡창작에 힘을 집중하여 수령님의 신년사관철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할 것이다. 전투적이며 기동적인 형식의 단편물을 창작하는것은 기적과 혁신으로 들끓는 우리 현실의 요구이며 우리 당이 바라고있는 형식이다.

나는 바로 시대와 인민이 요구하는 단막희곡의

풍만한 결실을 위하여 현실체험을 보다 실속있게 하며 작가적자질을 높이기 위한 학습을 성실하게 진행함으로써 희곡창작에서도 풍년의 열매를 안아 오는데 나의 적은 힘이나마 바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하여 내가 쓴 한편한편의 작품들이 주체 문학예술의 화원을 아름답게 장식하는데 한떨기꽃으로 피어나도록 하겠다.

희곡작가 신영근

광범한 독자대중과 한마음이 되고자

지난해에도 그러했지만 최근 몇해동안 나는 평론가의 미학관문제를 놓고 심각히 따져보게 되었다.

만약 어느 한 평론에서 높이 평가된 작품인데 대중속에서는 재미없어 못읽겠다는 여론이 돌고 평론가가 못쓰겠다고 지적한 소설인데 그 작품을 매우 감명깊게 읽고있다는 독자편지들이 런던아 날아온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앞으로 만약 이런 식의 평론이 자주 나타난다면 그자체가 벌써 우리 평론가들의 미학관이 어느새 인민대중의 미학과 달라져간다는 전조로 되지 않겠는가.

진리는 물론 다수의 편에만 있는것이 아니고 다수가결로 결정되는것도 아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평론가와 인민대중사이에는 소수와 다수의 관계보다 개인대 사회, 주관대 객관의 관계가 지배하며 그 어떤 평론가의 재능도 인민대중의 총명과 지혜를 통가할수 없다.

한 심판관이다.

하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있는 미학관은 과연 우리 시대 인민들의 미학과 완전히 일치되어있다고 장담할수 있겠는가. 과연 내가 좋게 보는 작품이 대중에게 좋게 보이고 내가 나쁘게 보는 작품이 대중에게도 나쁘게 보일것인가. 문학작품을 보고 평가하는 평론가의 자막대기는 자기식의 독특한것이면서도 어디까지나 당적이고 원칙적인것이여야 하고 인민대중의 요구에 부합되는 정확하고 공정한것이여야 할것이다. 하다면 과연 나에게 번덕스러운 개인취미와 편견, 도식적인 사고방식에 의해 편차가 생긴 자막대기로 남의 작품을 함부로 론단하는 일은 없었던가.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나는 류달리 이 문제를 안고 더욱 생각이 깊어진다.

지금은 90년대의 두번째 해이다. 대중의 미감은 벌써 지난 70년대나 80년대와는 물론 90년대의 첫째인 지난해와도 다르다. 시간의 흐름,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그처럼 민감하고 섬세하게 달라져가는 인민대중의 미학적기호를 제때에 파악하고 그에 자신을 적응시켜나간다는것이 험한 일은 아닐것이다.

현실과의 끊임없는 교류, 이것이 없이는 어느 순간에 자기와 대중사이에서 문학작품을 보는 감각과 기호가 달라져나갈지 모른다. 창작실에 틀고앉아 1년동안만 독자대중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나는 벌써 대중과 1년간이라는 커다란 미감상차이가 생겨나 시대에 뒤떨어진 상야탑의 포로가 되고만다.

더우기 새해에도 수령형상문학건설과 관련한 영예롭고 무거운 창작과제를 수행하여야 할 나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것으로 되고있다.

그래서 나는 새해에 현실속으로, 독자들속으로, 작가들속으로 들어갈것을 결심하였다.

평론가에게는 현실체험이 마치 작가들만큼은 절박한것으로 되지 않는듯이 생각하고 서재속에 파묻혀살던 내가 새해에는 들끓는 현실속으로 대담하게 뛰어들어가 지난해보다 한단계 달라질 대중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 목소리의 대변자로, 철저한 옹호자로 되려고 한다.

새해를 맞은 우리 평론가들의 창작열의는 비상히 앙양되어있으며 포부와 결의 또한 드높다.

지금까지 평론의 선도성을 높일데 대하여 한두번만 강조되어온것이 아니지만 10년간이라는 한년대의 첫어귀에 들어서서 이 90년대에 새로 제기되는 사회적문제는 어떤것이고 새로 출현하는 인간들의 성격은 어떤것이겠는가, 90년대 독자대중의 미학

적요구는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하는 문제가 절박하게 해명될것을 요구하는 오늘이야말로 평론가들이 선도적역할을 한번 본때있게 수행해야할 때로 되는 것이다. 시대와 현실의 요구를 자각하고있는 우리 평론가들은 이번해에 90년대의 새로운 인간문제와 새로운 인간성격을 탐구하기 위한 문학운동을 본격적으로 선도하고 이끌어 나갈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안팎의 정세는 그 어느때보다도 문학에 대한 당의 령도적권위를 확고히 보장하고 문학의 주체성과 사회주의적기초를 비상히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평론가들은 새해에 사회주의문학건설에 쌓아올

린 우리 당의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자본주의, 수정주의 등 이색적인 사상조류와 자연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인 창작경향과의 더욱 날카로운 투쟁을 벌림으로써 우리 문학을 명실공히 주체가 된 우리 식의 사회주의문학으로 힘있게 발전시켜나가고자 한다.

저는 중앙통신사 5국 2세포당원들에게 보내주시는 지도자동지의 회답서한을 심장으로 받들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충직한 평론가로 더 잘 준비하겠다.

4.15문학창작단 평론가 윤상현

3 년에

김석주

3년에

겨우 30리를 걸었다
낮에도 걸었다
밤에도 걸었다
폭우가 쏟아져도
눈바람 사나와도
걸었다 걸었다

하루에 한발자국
때로는 반발자국
몇달을 걸어온 그 길이
순간에 가뭇없이 사라져버리면
다시 그 길을 걸었다

내 상상할수 없으려
등에는 크나큰 땅덩이를 지고
가슴으로 광란하는 바다를 밀어내며
3년세월에
30리길

하루에 천리 만리를 걸었다 해도
내 놀랍지 않다
날바다우를 걸어온
청년건설자들의
그 한걸음한걸음을 생각할 때...

집채같은 장석에 덮인 방과제여
눈길이 모자라는 간석지 새 땅이여
조국앞에 그들은
그 무게를 가늠할수 없는
얼마나 거대한 재부를 지고왔는가

간난신고
힘과 의지
재부...
그 어떤 척도로 다 잴수 있으랴
3년세월 그들이 걸어온 그 30리를

기적소리

안병모

사품치며 끓던 쇠물
예나 다름없이 쏟아져내리건만
쇠물도랑 넓히며 서둘러 따라서며
출선을 앞당긴 용해공들

흐뭇한 미소 지으며

하나 둘 선풍기앞에 다가서는데
붕-
방열복 풀어헤친 가슴 흔들며
부드럽게 울려오는 밤렬차의 기적소리

조국땅 어디론가

채 식지 않은 강판을 무겁게 싣고
철의 기지 떠난다고
작별인사 남기는가
오 후더워오는 용해공들의 마음이어

어서 떠나거라 밤열차여
너의 차판마다에 무겁게 실리운
한통구리 한통구리의 강판에
얼마나 뜨거운 정성 담은것이라

보고 돌아서시면
다시 또 보고싶은것이 우리들이라고
때없이 용해장을 찾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오시여 베푸신 사랑
어이 다 헤아리랴
동무들이 녹이는 쇠물의 톤수로
나라의 경제건설전망을 열어간다고
그래서 여기가 나라의 생명선이라고
거듭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이어

그 사랑 더웁혀준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 쇠물을 녹이고
그 믿음에 목메여
사택마을 아낙네들 안아들인 쇠불이가
쏟아지는 쇠물의 톤수를 보태고
붉은넥타이 어린것들 북과 징 두드리며
강판의 흐름 떠밀어주나니

철의 산악 높이높이 쌓으리라
다지고 또 다진 맹세
이밤 끝없는 흐름이 되어
땅을 구르며 떠나는 열차
열차의 기적소리에 뜨거이 어렸는가

봉-
눈뿌리 아득한 구내를 흔들며
용해공 우리 마음 흔들며
부드럽게 울리는 정다운 기적소리
철의 기지의 충성의 메아리여

조 국

조성관

태어나 태를 묻은곳이래서
젖을 물려 키워주고 첫걸음마 떼어준곳이래서
내 사랑하던가, 조국을

넘치는 이 해빛, 파아란 저 하늘을
내 눈에 처음으로 담아준곳이래서
내 사랑하던가 조국을

손가락 굽혀가며 썸세기를 배워주고
내 겨레의 말 내 겨레의 넋을 이 가슴에 심어준곳
이래서
내 사랑하던가 조국을

식힐바 바이없던 단 가슴
순결한 첫사랑 맺어준곳이래서
내 사랑하던가 조국을

잘나도 못나도 내 어머니 제일이듯
망국노의 설움만을 안겨줄 때도
내 너를 부르며 피를 끓였나니

아 우리 수령님 찾아주시고
우리 당이 빛내여주시는
나의 조국 사회주의조국이어

이름 없는 이내 한몸이 바치는
적은 땀방울도 밀 거름되어
인간의 희망이 꽃피는 주체의 조국이어

어찌 말하랴 조국을 사랑한다고
맞이하는 날에 날마다 너의 나날이
조국에 기쁨과 보탬을 주지 못한다면

어찌 쉽게 말하랴 조국을 사랑한다고
이 땅에 복받은 너의 한생이
조국의 빛발에 한가닥 빛발 더하여주지 못한다면

이 한몸 없어도 조국은 있지만
조국 없이는 이 한몸도 없는것
살아도 죽어도 조국에 보탬되기를

네가 다 말해준다

주광남

공장 종업원들을 순서대로 세운다면
나이로도 기능으로도 로동년한으로도
마지막자리에 제가 서야 한다고
살며시 웃으며 머리 숙이는
단발머리 선반공처녀

말하누나
당비서가 첫마디에 하던 그 말
지배인도 첫마디에 하던 그 말

채탄기를 더 많이 만들 파업도 주시고
새 공장을 세울 파업도 말기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
-이 동무들은 내가 잘 아는 동무들이요
꼭 해낼것 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고

까만 눈동자 반짝이며
말하누나 처녀는
어버이수령님앞에
아직 한번 나서본적 없어도
잘 아신다 하신 그 사람들속에

바로 자기도 속해있다고

그렇다, 처녀야
나이가 무슨 상관이라
기능이 무슨 상관이라
어버이수령님 불러주신 그 믿음의 자리엔
지배인과 나란히 당원들과 나란히
단발머리 너도 함께 세워주셨거니

오늘도 부속가공 끝으로 넘쳤다는
네 이름 새긴 속보의 저 큼직한 글발이
말해주누나
보답의 위치에 나란히 발맞춰가는
너의 그 속깊은 마음을
너의 그 장한 모습을

다 안겨주누나
단발머리 네 한모습이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 받들고
한사람같이 들끓는
온 공장의 벽찬 숨결을!
온 공장의 장엄한 진군을!

평론

위대한 어버이의 품,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노래

리동수

시인 남시우의 시작품들을 펼쳐보느라면 바다멀리 이국에서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족적존엄과 공민적공지를 격조높이 노래하며 한생을 당과 조국을 위해 묵묵히 바쳐오는 시인의 성실한 모습과 정열에 불타는 목소리와 숨결소리가 방금 들려오는것만 같다.

재일조선공민자녀들의 미래를 말아 한생을 교단

에 맡긴채 애국의 뜨거운 숨결을 가슴마다 지퍼주며 한손엔 분필을, 다른 한손엔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열정의 노래로 독자들을 이끌어온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그의 수많은 시가작품을 통하여 인상 깊게 기억하고있다.

특히 그의 시집 《조국에 드리는 송가》에는 해외에서 향토와 고국을 목메게 부르며 나라를 빼앗

긴 설음, 고향을 두고온 가슴아픈 사연을 누구보다 뜨겁게 새겨온 해외조선공민들의 눈물겨운 체험이 절절하게 노래되고있으며 존엄높은 공화국의 아들이 된 공민적 긍지와 자부심, 조국현실에 대한 열렬한 긍정의 기백이 격조높이 노래되고있다.

그의 시집을 통하여 독자들은 조국에 대한 표상을 지식이나 개념으로가 아니라 산 체험으로 받아안게 되며 사람들의 심장과 그리고 그들의 운명과 잇닿아있는 크나큰 품, 그 품을 떠나서 인생의 보람도, 삶의 가치도 무의미한 그렇듯 절대의 높이에 솟아있는 가장 숭엄하고 벽찬 감정을 강렬한 충동으로 새겨안게 된다.

남시우의 시집 《조국에 드리는 송가》는 총련의 기치아래 오랜 기간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며 해외동포들의 자주적리념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시로써 한생을 바쳐오는 시인의 근엄한 모습이 다양한 시편들을 통하여 인상깊게 안겨오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재일조선공민들은 자기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중첩되는 난관을 이겨내면서 줄기찬 투쟁을 벌려왔습니다.》

시집은 《경도의 노래》, 《자랑의 노래》, 《동해의 노래》, 《대학의 노래》, 《결의의 노래》, 《남녘이여!》 등 모두 6개권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거기에 실린 모든 시편들은 해외에서 사랑하는 조국땅을 그리며 한생을 바쳐오는 나날에 심장으로 체득한 진리를 깊은 체험세계를 통하여 다양한 생활화폭들로 엮어놓은 노래들이다.

그의 시들을 보느라하면 시대생활에 대한 시인의 심장의 열도와 사명감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며 조국에 대한 공민적의무와 높은 책임감에 대하여 자각하게 된다. 그리하여 조국을 잃고 어둠속에 헤매이던 지난날과 어머니조국의 품에서 민족의 존엄을 떨치며 긍지높이 살아가는 오늘의 행복상에 대하여 다시한번 되새겨보지 않을수 없다.

시인 남시우의 시집에서 강렬하게 받아안게 되는 충격은 뜨거운 열정으로 확증되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흠모의 감정이다.

조국은 그의 운명의 전부이며 삶과 희망의 목표였다. 조국은 곧 어머니당의 부드러운 품이였고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품이였다.

시인은 시 《조국의 품에서 부르는 첫 노래》에서 오매에도 그리던 조국 공화국의 따뜻한 품에 안긴 감격과 기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뜨겁게 뜨겁게 설레이는
저 조국의 장엄한 음향은 바로
아버이수령님의 높이신 뜻 아니냐!
사람도 산천도 모습을 달리하며
휘황하게 수놓은 저 밝은 웃음은 바로
그이의 따사로운 사랑의 빛발이 아니냐!

아, 배전에 울리는 조국의 고동이어!
그립던 사람들의 얼굴이어!
솟아나는 산발이어 높은 굴뚝이어!

조국의 산천, 조국에서 들려오는 음향, 거기 사는 사람들의 밝은 웃음, 모든것이 그립던 조국땅에서 시인은 감격에 휩싸여 견잡을수 없는 마음으로 아버지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의 빛발을 받아안는다.

순간 시인은 이 크나큰 행복을 혼자만 받아안는 것을 죄스럽게 생각하면서 아직 조국땅을 한번도 밟아보지 못한 동포형제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슴불태운다.

시인은 조국을 방문한 기회에 온 나라와 온 세계의 진보적량심들이 모여오는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감회를 금할수 없어 시 《혁명의 요람》을 썼다.

은혜로운 광명이 깃뻗힌 이 땅을 비쳐주고 얼어붙은 조선의 심장에 뜨거운 불을 안겨준것은 나라 위한 큰뜻을 품으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고향집 작은 사립문을 나서신 때부터였다.

은혜로운 광명의 서광은 이국에 떠도는 동포들의 운명에도 비쳐왔거니 진정 수령님 계시여 재일조선공민들은 이국땅 한복판에 람홍색 오색기발을 높이 휘날리며 빼앗겼던 말과 글을 다시 찾고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며 보람찬 삶을 누리게 된것이다.

시인은 해외동포들의 감동적인 체험을 대신하여 이렇게 노래하고있다.

아, 북반쳐오르는 이 영광이여!
수령님을 모신 자랑
조선에 태어난
한없는 행복이여!

무궁한 세계를 누벼
혁명의 진리 가르쳐가며
투쟁의 신념 불러일으키는
만경대 만경대!

우리의 행복, 우리 누리는 모든 영광이 만경대 수령님의 탄생과 잇닿아있고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영예와 슬기도 그 품에서만 꽃필수 있는 혁명의 요람, 시인은 바로 채일조선공민들의 이 절절한 체험을 온몸으로 느꼈던것이다.

시 《영원한 불빛》, 《넘치는 사랑》, 《그분이 바로 우리 수령님이시라네》를 비롯하여 《조국에 드리는 송가》 등 시편들은 조국과 운명적으로 이어진 뜨거운 체험 다시말하여 어머니조국에 대한, 자애로운 당과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필생의 의지를 가장 전형적인 계기와 정황속에서 감명깊게 펼쳐 보여주고있다.

시 《조국에 드리는 송가》는 창공에 나뭇기는 기치, 휘날리는 공화국기발을 우러르며 주체! 자주! 자립! 자위! 의 큰 걸음으로 세기에 찬연한 역사를 아로새겨나가는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시인의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집대성하고있다.

시인 남시우는 생활에 대한 정서-심리적충동을 주로 시대생활의 한복판에서 본질적계기를 잡아 정론적이며 호소적인 열정으로 승화시켜 토로하는 특성을 보여주고있다. 따라서 그의 시는 감성적인 충격이나 체험의 격동적인 계기가 언제나 세태인정적 관계를 뛰어넘어 공민적관계에서 주어지며 어떤 생활적이며 사건적인 동기에서가 아니라 보편적인 사회적체험에 대한 시적충동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태반으로 되고있다.

시 《조국에 드리는 송가》도 바로 그렇게 창작된 작품의 하나이다.

시대생활을 폭이 있게 체험하고 정론적인 분석과 호소적인 격정으로 시적정서를 고조시키고 일반화해나가는 창작적개성은 이 작품에서 실현되고있는 보편적인 작법인 동시에 물론 그의 모든 시창작에 관통되고있는 공통의 특성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격조높이 토로한 시 《공화국의 공민》에서 시인은 은혜로운 조국의 품의 귀중함과 조국을 위해 한몸을 바치려는 공민적의무와 자각, 투철한 결의에 대하여 노래하고있다.

아아
이 한몸 바쳐 다 하기에는
너무나도 크나큰 은혜론 조국이어

나아가리로다
어떤 풍파
닥쳐온다 하여도!

나아가리로다
조국이어
그대 부름에 더 미더웁게!
원썬와의 투쟁에
더 무자비하게!

조국이란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크나큰것이였으며 작은 한몸을 바쳐 의무를 다하기에는 너무나 숭엄하고 은혜론 품이였다. 조국은 한생을 바쳐서도 아니 대를 이어가며 사랑을 다 한다 해도 그 은정의 깊이를 가늠할수 없는 무한대한것이였다.

조국에 대한 시인의 생각은 바로 이러하였다. 그는 자신의 뼈저린 지난날의 체험과 죽어서라도 고국의 땅에 묻히겠다던 이역동포들의 눈물겨운 호소를 사무치게 체현하고있었기에 시인의 사명과 의무를 다해 그들의 소원을 합쳐 열렬한 조국애의 감정을 노래에 담아 펼쳤던것이다.

시인에게 있어서 조국애는 다름아닌 당과 수령에 대한 립장과 관점에서부터 흘러나오고있다.

그의 모든 시편들은 한결같이 그 어떤 계기, 그 어떤 주제, 그 어떤 생활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가슴깊이 소중하게 간직된 숭고한 조국애에서 출발되고있었으며 향토와 고국에 대한 견딜수 없는 사랑, 그것 없이는 모든 생활, 모든 운명이 무의미한 그렇듯 아름답고 숭엄한 감정으로 일관되고있었다.

이 숭고한 조국애는 곧 조국을 찾아주시고 빛내여주신분, 해외에서 어둠속에 헤매이던 채일조선공민들에게 민족적존엄을 되찾아주시고 참된 삶과 양양한 미래를 안겨주신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과 뚫어넘치는 흠모와 감사의 정과 잇닿아있었다.

하기에 모든 시편들을 포함하여 그의 시가들은 혁명적수령관을 핵으로 삼고 수령, 당, 조국, 겨레 그리고 공민적존엄을 격조높이 구가하면서 시대의 주도적감정을 정면에서 자유분방하게 펼쳐나갔던것이다.

그의 시는 미사려구나 채색된 어휘로 꾸며지거나 분칠되지 않았으며 언제나 심장에서 사뭇쳐오르는 열정의 피방울로 구슬처럼 뚫어져 심장의 목소리 그대로 울려나왔다.

정치적표현을 직선적으로 써서 시를 개념화하여도 안되지만 형상성을 높인다고 하면서 반대로 정치적표현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된다.

정치적표현, 직선적인 표현을 란발해서는 안되지

만 생활이 가리키고 체험에 바탕되어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표현이라면 그것으로써 진실을 호소하는 열정의 노래로 독자들에게 안겨질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시대의 주도적감정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노래한 시인의 시편들은 정치적호소성을 띠고 세차게 분출되면서 시인적개성을 독자들에게 뚜렷하게 안겨주고있다.

그의 시집을 통하여 새롭게 감촉되는 특징적인 점은 또한 시대정신과 시대생활에 대한 느낌이 예민하다는것이다.

시인의 심장은 언제나 시대와 함께 끓어번져야 하며 시인은 언제나 시대의 첨단에서 당의 정책적 요구, 시대와 사회의 요구를 정확히 실현해나가야 한다.

시대의 요구를 제때에 정확히 구현하며 시대정신을 민감하게 반영하는것은 시의 본성적사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된다. 우리의 시가 만사람의 가슴을 격동시키며 투쟁으로 부르는 호소적이며 동원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온것은 시대의 기치로서의 그의 선구자적인 사명과 관련되고있다.

시인은 총련일군이며 오랜 교육자로서 언제나 재일공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민족교육, 통일조국의 미래를 위한 투쟁의 한복판에 서있었으며 시와 노래를 필생의 무기로 삼고 시대와 더불어 시인의 사명을 다하여왔다.

귀국실현을 위한 투쟁, 조국에로의 자유로운 태왕을 위한 투쟁, 조선말과 글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 학원의 자유와 민주화를 위한 투쟁, 일제의 살인폭행반대투쟁과 남조선과 일본과의 회담 반대투쟁, 통일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반제자주화를 위한 대중투쟁 등 자유,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의 첨단우에 언제나 자기의 시가작품을 들고 나왔다.

시 《동해의 노래》에서는 귀국실현을 위한 거족적인 투쟁의 결과 실현된 첫 귀국선이 동해의 물결을 헤가르며 조국을 향해 떠나는 순간의 감격을 노래하고있다.

물결우에 실린 지난날의 가지가지 눈물겨운 추억을 더듬으며 오늘의 귀국에로의 장엄한 행진이 시작된 누를길 없는 격동을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있다.

동해여, 우리의 바다여
너와 함께 반평생 기다리던 이날
승리의 북소리 울리며
지금 우리의 귀국 첫배가 뜬다

저기 아롱다롱 수평선우엔
희망의 꽃보라로 수를 놓으며
벌써 너는 길을 쪽 가르며
가슴을 헤치며 달려오누나!

동해여
천만년 무궁할 동해의 물결
너의 깊은 한가슴속에
노래하라 동해여
조국을 찾아가는 아들의 마음을
붉게붉게 타는 아들의 뜻을!

이 순간을 위하여 기울여온 노력과 투쟁이 마침내 결실을 가져와 오늘은 첫. 귀국선이 동해의 물결을 차고 조국으로 조국으로 기세차게 달려간다.

공화국공민의 공지와 영예를 만천하에 떨치며 온 세상을 향해 소리높이 웨치는 시인의 호소야말로 70만 겨레의 누를길 없는 환희와 걱정을 소리높이 구가하는 시대의 힘찬 선언으로 된다.

시 《잘 가라 조국의 품에서 다시 만나자》, 《떠나면서 다짐하면서》를 비롯한 여러 시편들은 지난날 울며 넘었던 바다를 웃으며 넘으며 멀지 않아 모두다 어머니조국의 품에 안기게 될 그 시각을 눈앞에 그려보는 동포형제들의 극적인 체험을 일반화하고있다.

그의 시집에는 시인과 함께 한길을 걸으며 시대의 메아리로 높이 울려퍼진 시가들이 힘있게 울려나오고있다.

시 《대오여 앞으로》, 《그것을 잊지 않을 때》, 《찾아내자 우리가 빼앗긴 모든것을》, 《분노의 시》, 《해가 가고 날이 갈수록》, 《남녘땅 시인이여!》 등 시편들은 시대생활을 박력있게 조명해주면서 강렬한 호소적기백으로 시대정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있다.

시 《대오여 앞으로》에서는 반미반파괴투쟁에 파감히 일떠선 남녘형제들을 생각하며 민족적권리와 자유, 조국통일의 역사적시각을 앞당기기 위하여 폭풍을 헤치며 달려나아가는 재일조선공민들의 불굴의 의지를 노래하고있다.

가자!
삼천리를 한품에 안으신
위대하신 수령님의 파사로운 해살이
온 남녘땅을 비치거니
수령님의 품안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원쑤다
 절절한 가슴에 타번지는 분노
 미제를 남녘에서 몰아내기 위해
 폭풍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자!

보라! 대오여
 위대하신 수령님 진두에서 부르시고
 구름을 가르며 하늘을 흔들며

아 우리의 머리우에
 공화국기발이 휘날리고있다

시인은 미제와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의 걱정을 안고 놈들의 간악한 본성을 예리하게 단죄하고있으며 미일제국주의자들을 일격에 소탕하기 위한 전인민적항거정신을 보여주고있다.

매국적인 남조선과 일본과의 조약을 휘두르며 미제상전의 하수인으로서의 괴뢰의 추악상을 만천하에 고발한 시 《그것을 잊지 않을 때》도 원쑤들의 책동을 예리하게 간파하고 거기에 투쟁의 예봉을 돌리도록 인민들을 각성시키려는 목적에서 씌여진 것이다. 시에서도 호소한바와 같이 시인은 우리가 조국땅이 아닌 원쑤놈들이 살판치는 이국땅에서 놈들과 언제나 판가리싸움속에 살고있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순간의 해이도 허용치말고 긴장하게 싸워나갈것을 호소하고있다.

시인은 파쑸의 광풍이 휘몰아치고 테로가 살판치는 살벌한 남녘땅에서 정의의 위해 싸우다 쓰러진 남편의 시체를 불안고 분노에 떠는 안해의 호곡을 대신하여 자유와 민주를 교살한 철천지 원쑤 미제와 괴뢰역적들을 규탄하며 상전앞에 침을 흘리며 비렬한 구걸에 매달리는 괴뢰악당들의 추악성을 만천하에 고발하며 분노의 시를 터치였다.

억수로 치솟는 본격의 글발
 백배 천배의 철추로 되어
 형제여, 치솟는 그대의 분노와 함께
 내 노래 추상같은 가락으로
 죽치리라! 역적의 무리
 안기리라! 원쑤에게 마지막심판을!

그의 시는 원쑤들앞에서 언제나 추상같이 예리하였으며 놈들의 머리우에 내려지는 철추와 같이 무자비하였다. 그것은 놈들의 죄악적본질을 파고 들어가 전형적인 계기를 잡아 단죄일반화하고있을뿐아니라 정치적으로 날카롭고 예리한 표현들을 필요한

경우에 직선적으로 대담하게 쓰고있는것과 관련되고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그의 창작에서 특이하게 감축되는 정론적인 기백과 호소적인 격조는 특히 계급적원쑤들과의 투쟁을 선언한 주제분야의 시편들에서 더욱 뚜렷이 부각되고있다.

시인은 언제나 현실문제 시각마다 벌어지는 시대의 첨단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려왔으며 그속에서 사회적으로 의의있는 문제들을 시적소재로 선택일반화하는데 관습되어왔다. 이로부터 그의 시들은 언제나 시대에 대하여 민감하였으며 시대정신을 구현하는데서 선구적이었다.

시인은 언제나 시대와 력사 앞에 무거운 책임을 지고 력사의 첨단에 서있어야 하며 시대와 함께 심장을 불태우며 시대와 인민의 목소리를 대변해나서야 한다.

시대의 복판에 대담하게 뛰어들어가 시대의 선봉과 음향과 색채를 예리하게 감각하고 그것을 온몸과 피부로 체현함이 없이 시대의 변두리에서 맴돌거나 시대를 관망하는 관객적인 자세에 서게 될 때 시인은 벌써 시인으로서의 사명을 마친 시대의 락오자로 되고말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시인 남시우는 시대의 의지와 량심과 지성의 대변자로, 시대정신의 적극적인 체현자로서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시창작을 관통시켜나갔다.

그의 시집에서 새롭게 느껴지는 특이한 점은 또 한 후대교육의 전초에 선 서정적주인공-새형의 교육자의 전형을 인상깊게 형상하고있다는것이다.

해외에서 후대교육사업에 한생을 바쳐온 시인에게 있어서 새 세대들에 대한 관심은 각별하였는바 그것은 한갓 직업적인 관계에서 오는 의무감에서만 아니라 후대교육사업을 참으로 영예로운 혁명임무로 간주하고있었기때문이다.

시 《넘치는 자랑》, 《보람》, 《학적부》, 《투쟁속에서》 등은 시인-교육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 높은 책임감, 혁명가로서의 숭고한 자각과 영예를 간직한 시인의 자세를 엿보게 한다.

그이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교육의 새 시대에
 직업이 아니라 혁명가라는
 높은 영예를 가슴에 간직하고

이 땅의 교원들은
 수령님께 바치는 충성심으로
 계속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있어라

아
주체교육의 해발 받아안은 영예
가슴속에 넘치는 이 자랑이여

내 비록
조국이 아닌 이국에 있어도
나는 영예로운
수령님의 교육전사!

(시 《넘치는 자랑》)

주체교육의 영예로운 담당자 교원혁명가로서의
높은 자각은 주체시대에 교원된 한없는 긍지와 자
부심을 가슴깊이 새겨주는 원천으로 되었으며 후대
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키워내려는 각오와 결심을
복돋아주는 바탕으로 되었다.

후대교육사업은 나라의 장래를 위한 만년대계의
사업이다. 따라서 후대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키우는 교육사업은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며
높은 책임감을 요구하는 사업이다.

더우기 해외에서 민족교육을 교수하고 민족정신
을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업은 내외원썹들의
온갖 방해책동이 계속되는속에서 진행되어온만큼
더욱 간고성을 동반하였다.

다시는 빼앗길수 없는 권리, 한번 찾은 학원의 자
유를 다시는 빼앗길수 없기에 시인은 조국의 고지
마냥 끝까지 대오가 성벽이 되어 민주학원의 권리와
존엄을 지켜 싸워나갈것을 맹세다지고있다.

시 《꽃은 계속 피어야 한다》에서 서정적주인공
은 해외에서 찾은 민족교육의 혜택아래 난생처음
제 이름을 찾았고 대학의 보람찬 학창에서 청춘의
희망과 랑만을 꽃피워왔다. 그길에서 또한 교육자
의 영예를 지냈기에 그에게서 단 한순간이나마 《우리
보배》를 빼앗아낸다는것은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였다.

그러기에 조국의 고지를 지킨 용사들처럼 교육초
소를 끝까지 치켜 싸우려는 불타는 결의속에 꽃을
계속 피워나갈것을 다짐하고있다.

특히 《대학의 노래》편에 실린 시 《그대 여기
로 오시거든》, 《생활에 대하여》, 《생각하노라
오늘도》를 비롯한 여러 시편들은 조국에서 멀리

떨어진 이역땅 창공높이 람홍색공화국기를 띄워놓
고 조국의 숨결을 호흡하며 배움의 노래를 엮어나
가는 걱정이 넘치는 보람차고도 희망찬 생활의 이
모저모에 대하여 펼치고있다.

시인은 교육자의 영예와 끝없는 행복에 넘쳐 어
머니조국의 믿음에 보답할 결의에 충만되고있다.

생각하노라 어깨우에 지워지는
드높은 영예!
용용 가슴에 솟구치는
기쁨과 행복!

튼튼하여라 이제는
나의 어깨도 바위같이
믿음직하게 서있노라
승리를 안겨주는 그대 부름앞에

바라노니 조국이여
나에게 더 큰 겹을 달라
어머니 그대 사랑에 보답할
어머니 그대 믿음에 보답할

시집 《조국에 드리는 송가》는 어머니조국에 바
치는 시인의 뜨거운 심장과 창작적사색과 열정의
세계를 엿보게 할뿐아니라 성실한 체험과 노력과
창작적개성을 감각하게 하는 친근한 길동무로도 되
고있다.

그의 시는 생활을 폭이 있게 안고 보편적인 정서
적체험에 육박하여 꾸밈없이 전개해나가는 특성이
있는 반면에 구체적인 세부적체험을 파고들어 생동
한 생활을 통하여 정서적고조으로 서정을 승화시키
는 측면이 약하기때문에 일반적인 느낌으로 정착되
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정론적이며 호소적인 견인
력과 함께 때로 사상이 로출되어 생동한 감을 주는
공간도 없지 않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런 점은 시인이 창작에서 참고해야 할 측면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게 된다.

시인 남시우의 시작품들은 찬란히 꽃피어나고있는
주체적인 시가문학의 화원을 더욱 빛나게 장식하는
데 기여하고있다.

배무이공들의 모습

허린정

어쩌면 그리도 꼭갈을가
용접면 눌러쓴 그 모습
세찬 불꽃 날리는 그 모습
수십이여도 한사람같은 배무이용접공들

하나같아라
경쟁도표의 붉은 선이
키다툼하며 뻗어오르듯
승벽을 내며
다그치는 그 일숨씨들도

아 이 배무이장 또다시 찾아주신
아버 이수령님
여기에 자동흐름선을 놓자고
대형집배들을 더 많이 만들자고
휘황한 새 구상 펼쳐주실 때

그 누가 달랐으랴
순간에 거인된듯싶은 가슴에
펄펄 끓어오르는 열정
넓은 바다 가득 덮어나가는
산악같은 배들의 우렁찬 고동소리
벌써 들으며 툭툭 뛰던 심장들

다름없어라
축포처럼 터져오르는 용접의 불꽃속에
진수의 그날을 그려보는 마음
이 부두에 끝없이 뿌려질

꽃보라속에 서보는 그 환희도
눈에 보이는 모든것 용접면으로 가리우고
오직 한점 용접불 지켜볼 때면
보호안경은 마치
꿈세계를 비쳐보는 신비의 빛인듯

아 황홀한 그 불빛속에
자동흐름선 타고 련이어 진수되는 짐배들
지켜보시며 환히 웃으시는
아버 이수령님 영상
그려보는 그 마음도 하나같아

불야성을 펼쳤어라
열사람 스무사람 모두 하나같이
승벽으로 뿔어올리는 용접불
휘넓은 배무이장엔 그 빛갈조차 하나같은
붉은 불꽃보라 푸른 불빛...

그 불빛속에
용접공들 모습은 선히 보이지 않아도
하나의 큰 모습
산악과 키겨루며 대형집배는 솟구쳐오르거니

오, 그것이어라
아버 이수령님 기뻐하실 모습
위대한 구상을 받들어
한뜻으로 뭉쳐일어서는
배무이공들의 자랑스런 모습이어!

단편소설

고 백

안선옥

1

온밤을 쉬지 않고 숨가빠 달려온 렬차는
새날이 밝아올무렵에야 서역에 이르렀다. 희붉히
열리는 새벽빛속에 역사의 나지막한 은빛지붕이
5월의 짙은 록음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며 눈앞에
바투 다가왔다. 센 물살처럼 차창으로 밀려드는
싱그런 대기로 욕심껏 심호흡을 하고 난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종잡을수 없는 환희스런
감정이 가슴 그들먹이 차올랐다.

이곳은 태를 묻은 고장이어서만 내 가슴에 깊
숙이 자리잡은것이 아니다. 이 정든 땅에는
아직도 정정한 나의 어머니가 계시고 사랑하는
처녀 순화가 살고있었다. 게다가 다년간
고심끝에 해빛을 보게 된 X 향료안을 이곳
식료공장에서 생산에 도입하게 되었으니 이번
걸음은 그야말로 《금의환향》이라고 할수 있었다.
나는 들뜨고 설레는 마음이 등을 떠미는대로
서둘러 home 내리었다. 출발전보를 쳤으니 년로한 어

머니는 몰라라 순화만은 꼭 마중을 나왔을것이다.

그러나 출구에서 나를 맞아준 사람은 뜻밖에도 이곳 식료공장 기사장 렘필성이었다.

《진수!》

《아니, 형님!》

이러나저러나 나는 무척 반가왔다. 렘필성은 어머니컨으로 먼 친척별이 되는 사람으로 나는 어릴 적부터 그를 형님이라고 불러왔다. 그는 남편도 형제도 없이 외롭게 지내는 나의 어머니를 각근히 돌봐주고있는 고마운 사람이었다. 내가 표받는곳을 미처 빠져나갈새도 없이 렘필성은 긴 팔을 뻗쳐 트렁크와 가방을 그러안듯이 받았다.

《조심하세요. 향료병들이 들어어요!》

《어련하지 않으리.》

결결...사뭇 즐거운 웃음을 등위로 흘리며 성큼성큼 걸어가는 그를 따라 나오니 역사마당 한켠에 흑갈색 승용차가 서 있었다. 차결에는 명절날처럼 하얗게 옷을 바래서 입은 녀인이 보였다. 어머니였다. 나는 어머니를 향해 반달음쳤다.

《어머니!》

《왔구나!》

위낙 과묵한 어머니는 오래간만에 외아들을 만나는 기쁨을 요란스런 말로 표현하지 않았다. 그저 인자한 미소로 얼굴의 주름살을 약간 움직여놓았을뿐이었다.

발동을 건 차가 부릉대며 몸뚱이를 떨었다. 나는 행여나하여 역구내를 눈길로 쏘었다. 그러나 종시 순화는 보이지 않았다.

차는 거리에 나섰다.

3년전 떠날 때보다 퍼그나 아지가 무성해진 살구나무들이 길좌우로 암전하게 렬을 지은 거리, 전에는 볼수 없었던 탑식주택들이 제법 도시맛을 풍긴다. 그다음은 목욕탕, 리발소, 종합수리, 체육관... 그런데 순화는 왜 나오지 않았을까? 나는 의자등받이에 몸을 실으며 의혹을 풀어보려고 애썼다. 아마도 어머니때문일것이다.

순화에 대해서는 어머니도 안다. 그렇지만 머느리로 맞기를 그닥 달가와하지 않는다. 나도 홀어머니의 외아들인데다가 순화 역시 홀어머니 외딸이었다. 그것을 우선 마음싸하지 않는다. 너무 외롭다는 것이다.

작년가를 어머니는 편지로 웬 처녀의 사진을 보내왔다. 눈이 부실만큼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다섯남매중 셋째인데다가 맘씨 착하고 일손 또한 여무진 처녀라고 했다. 더구나 셋째딸은 선을 보지 않고도 맞는다는 말이 있다고까지 하면서...

나는 달다 쓰다 일언반구도 없이 사진을 도로 보내는것으로써 대답을 대신했다. 그 이후 어머니는

다시 그러루한 사진은 물론 순화이야기도 입밖에 내지 않았다. 이런 상태를 지속시킬수는 없었다. 내 나이도 이제 서른을 벗어나고있었고 순화역시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순화에게 정식 사랑을 고백하고 약혼식정도는 치르어야 한다. 나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결심이었다.

순화는 이곳 식료공장 향료직장 생산지도원이다. 그는 려서나 화보에 자주 띄우곤하는 미인들처럼 계란형의 얼굴도 아니였고 검은 눈과 날씬한 몸매의 처녀는 더욱 아니었다. 그저 수수한,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그런 평범한 형의 처녀였다. 그에게 남다른것이 있다면 산촌의 향기처럼 깨끗하고 순진한 마음과 과학에 대한 옳은 리해였다. 바로 이것이 그를 《나의 순화》로 되게 하여주었다.

우리는 이고장에서 함께 나서자왔다. 철부지시절은 추억 한점 남기지 않고 빠르게 가버렸다. 나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으로 떠났고 두해 후배인 순화는 이 식료공장에 놀러앉았다.

우리는 언제 한번 아기자기한 편지거래조차 없었다. 약간의 교류가 있었다면 나의 고향이 이곳이고 어머니가 살고있다는것으로 하여 내가 방학때면 계절조처럼 돌아오는데서 이어질수 있었다. 그럴때면 순화는 도시의 소식을 날라오는 나를 반갑게 만나러 찾아오는 많은 동창생들중의 한사람이었고 그러한 순화에게 나는 그저 대학공부를 떠난 상급생 《진수동무》였을 따름이다. 내가 그에게 베푼것이 있다면 몇권의 식료공학책들뿐이었다. 그는 공장대학수업을 받고있었던것이다. 얼마나 학업에 심취되었던지 그는 건설자들의 합숙식당에서 일하던 어머니가 먼 간석지건설장으로 조동되면서 외딸을 때놓기 싫어하는것도 마다하고 남았다.

그런데 운명은 참으로 기이한것이다.

뜻밖의 일이 우리 두사람을 한나무의 두가지처럼 만들어버렸다.

세월이 흘러 대학을 졸업한 나는 전공분야인 새향료연구를 위해 이 식료공장에 몇년 실험 불박혀 있게 되었다. 그때 공장의 조치로 나의 연구사업을 위해 조수가 임명되었다. 그가 다름아닌 순화였다.

연구사와 조수-관계는 평범하고 단순했다. 나는 그에게 지시하고 보고받는 매우 실무적인 상급이었다. 그때 나는 그가 봄바람도 주춤한다는 꽃나이처녀라는것을 전혀 리해 못했다. 그는 아글타글 애쓰며 나를 도왔다. 그것 역시 나에겐 응당한것이였다.

그러나 성공의 문은 꼭 닫긴채 좁처럼 열쇠를 내놓지 않았다.

실패, 또 실패... 말 그대로 간고한 전투였다. 이 어려운 날들에 순화는 언제나 말없는 그림자처럼 내곁에 있었고 내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해주고 내

가 피로와하면 함께 피로와해주곤했다. 몇그람의 시약때문에, 몇권의 참고서적을 위해 그가 걸은 밤길도 어지간했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수고를 조수로서의 응당한 본분과 도리모만 여겼을뿐 그 어떤 녀성이나 이 지루하고 긴 날들에 순화처럼 행동해 줄수 없다는것을 알고고도 안했다.

실로 나의 온 넋을 깡그리 사로잡은것은 실험관, 시약, 복잡한 수치들이 란필로 씌여진 종이장들뿐이었다. 남들이 웃음보를 터뜨리며 떼지어 들놀이를 갈 때도 실험실에서 하루해를 지웠고 밤이면 밤대로 연구사업에 골몰했었다.

그러나 거듭되는 실패뿐, 나는 지쳐나기 시작했다. 거기에 자존심을 자극하는 소식들이 연방 날아들었다.

대학동창들중 누구누구는 벌써 학위를 받았고 또 누구는 본격적인 실험단계에서 굉장한 소문을 내고있었다. 과학잡지에는 동창들의 이름이 경쟁이라도 하듯 뻗어나가 실렸다. 이들은 모두 대학기간 실력에서는 도토리키대보기였고 어떤 측면에서는 내가 훨씬 앞서기까지 했었다.

내가 이렇게 승산없는 놀음으로 몽개는 사이 세월은 가고 동무들은 따라잡을수 없게 까마득히 앞서나가는것이 아닌가, 내가 과연 이렇게도 둔하고 무식한 존재였던가.

조급증은 과학도의 초보적인 성품인 인내성과 완강성을 뺏어갔고 그대신 초조와 동요를 가져다주었다. 나는 자신의 무능함을 개탄함에 앞서 그 실패를 인정하기가, 더우기 그것을 순화에게 실로하기가 부끄러웠다. 절벽강산이 앞을 막아선듯 암담하기만 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겼다.

어느날 한낮을 내내 찌물कु던 날씨는 저녁녘에 접어들면서 갑작스레 석양을 지워버리고 소나기를 쏟아냈다. 비옷을 입은 나는 이젠 퇴근을 하자고 순화에게 말했다. 여느때같으면 곧 따라섰을 그가 웬일인지 머뭇머뭇했다.

나는 그가 우산이 없어 그러는가싶어 편수책상밑에서 접이우산을 꺼내주었다. 그래도 그는 까딱 움직이지 않고 서있기만 했다. 나는 의아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순화는 그 눈길을 전혀 느끼지 못한 사람처럼 침착하게 그리고 또박또박 말을 이었다.

《진수동무.》

연딩이처럼 무거운 음성... 웬일인가.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주제넘다 나무라실지 모르겠어요, 제 한마디 이야기해도 좋을가요?》

그제야 나는 이 처녀와 언제 한번 아기자기한 이야기조차 나뉘본적이 없었다는것을 느꼈다. 아니, 그의 존재조차 의식해본적이 과연 있었던가. 그도

인간인 이상 휴일도 필요할게고 개인적용무도 왜 없기만 할텐가, 나는 모질기만 했던 자신이 어색해 지어 탄전을 썼다.

《뭘, 새삼스레...》

나는 그의 어떤 요구도 들어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처음으로 남아담게 너그러운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순화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소리가 흘러나왔다.

《제 생각엔 동무가 이젠 연구소로 올라가야 할것 같아요.》

《?!...》

나는 놀랐다. 그러니 이젠 이 녀자마저 나를 믿지 않는것인가?! 하기가 성공못한 연구사가 공장에 무슨 필요가 있으랴... 하면서도 무시당한 자존심은 불쾌감으로 온몸을 불태우는것 같았다.

순화는 별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전 많이 생각해보았어요. 진수동문 여기서 아까운 시간을 잃기보다 올라가서 연구를 더 심화시키는것이 옳아요. 아무래두 그쪽엔 조건도 그래 유능한분들의 도움을 받아도 그래... 그편이 훨씬 빠를것 같아요. 어떻게든 동무를 도우려고 했건만 전 힘이 모자라는군요.》

(아니, 그럼?)

나는 뒤통수를 한방망이 얻어맞은듯하여 뻗은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다음순간 한줄에도 차지 않을 나의 웅졸한 마음에 대한 책망과 나를 위해 지극히 마음쓰는 그 가룩한 심정을 엿바꿔 느꼈을 때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솟구쳤다. 뒤편 피로운 상념이 갈마들었다. 나는 숙인 머리를 들지 못한채 죽은듯이 앉아있기만 했다.

(이렇게 떠나면 공장과 동무들 앞에서 어떻게 면목을 세울것인가. 그들이 나를 두고 뭐라겠는가? 너절한 녀석! 크게 할것처럼 활개치며 대학으로 떠나더니 종당엔 헛공부질 했어.)

나의 생각을 뒤쫓아오기라도 한듯 순화는 잠시동안을 두었다가 말을 이었다.

《혹시 동무가 떠나면 사람들이 여러말을 할수 있어요. 그러나 남들이 뭐라든 그건 중요한것이 아니예요. 자기에 대해서야 자신보다 더 잘 아는 다른 사람이 있을수 없는게 아니예요. 뒤편은 저에게 다 말기시고 어서 떠나세요. 빨리 떠나야 빨리 돌아올수 있어요.》

(?!...)

나는 말문이 막혔다. 아니 마음이 말하고있었다. 과연 이 자그마한 녀성이 순화가 옳단말인가?

아, 그 눈물어린 눈동자, 물기에 번들거리는 얼굴, 불에 이마에 빨갳게 타오르는 홍조...

누가 말의 유일한 전달수단은 입이라는 인체구조

뿐이라고 하였는가. 이글거리는 모닥불을 담은듯한 그의 눈은 이 순간 너무도 많은 말들을 빚처럼 뿜어내는 심장의 등불이었다. 나는 그 맑은 눈물길 끝모를 심연과도 같은 곳에서 타는 불길을 뿜어올리는 눈동자와, 떨리는 입술과 목소리에서 그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있으며 진심으로 성공을 기원하고있는가를 순간에 알아맞출수 있었다.

나는 금시에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고 사춘기의 소년처럼 귀부리가 화끈했다. 자신의 실패로 인한 불행을 절감해야 할 이 순간 나는 끝없는 행복을 느꼈다.

과학의 요새는 탄탄대로가 아니다. 인류가 불을 발견한 그때부터 과학의 승리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력사에 기록조차 남기지 못하고 값비싼 혈전을 소문없이 치렀다. 그속에는 끝내 침묵을 지키는 과학의 비밀을 저주하며 이름 한자 물려주지 못하고 흐트러진 백발로 실험대를 덮은채 숨진 사람도 있었고 과학의 진리를 부정하는 잡것들앞에서 떳떳한 죽음으로 그 진리를 증명한 학자도 있었다. 무심히 떨어지는 한알의 사과에서 위대한 법칙을 발견한 학자가 어찌 후손만대 그 이름이 전해지길 소원했겠으며 돈과 명예도 스스로 저버리고 숭고한 한생을 아낌없이 바친 과학자부부가 후날의 영생만을 바랬다면 그처럼 헌신할수 있었겠는가.

(이런 녀성과라면)

나는 마음속으로 힘껏 웨쳤다. 이처럼 성실한 녀성과라면 성공의 길에 불붙는 강이 가로놓여있아 해도 두렵지 않을것이다!

그제서야 나는 이 키자그마하고 얼굴 자그마한 처녀를 저도 모르게 몹시 사랑해왔으며 이제는 그것을 내 심장의 한줄기 피줄처럼 도저히 떼버릴수 없으며 그것없이 나의 생활과 연구사업 등 모든 것이 허무하고 무색한것이라고까지 느껴졌다.

(순화! 고맙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다정하고 가장 열렬한 목청으로 이 말을 하고싶었던만 어찌선지 말이 나가지 않았다.

다음날 순화와 나는 역두에서 헤어졌다. 이 모든 것을 잘 리해 못할 어머니에게만은 연구소에 잠깐 다녀온다고 했었다. 그러한 《잠간》이 3년세월을 넘어섰다. 나는 침착하게 문헌작업으로부터 모든것을 다시 시작했다. 성과가 좋았다. 부족점을 빨리 퇴치했다. 그래서 학위론문을 썼고 최종공정으로 생산도입증을 받으려 이번엔 공장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다.

그날 점심에 나는 필성기사장의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잘 차린 식사를 대접받고 오후 세시쯤해서 공장으로 나갔다. 낮익은 얼굴들이 나의 성공을 제 일처럼 기뻐들하며 축하를 아끼지 않았다. 공장지배인을 비롯한 간부들과도 인사를 나누고 기술과에도 들렀다. 모두들 전장에서 돌아온 개신장군이나 맞듯이 진심으로 나를 환대했다. 기술과의 설계원 처녀들이 꽃다발까지 안겨주는통에 나는 그만 환영에 치워 진땀을 뺄 지경이었다. 성공이란 이다지도 환희롭고 감미로운것인가, 나의 가슴은 마냥 설렘었다.

남은것은 《생산도입증》뿐, 벌써 필성기사장의 책상우에는 지배인의 수표를 기다리는 그 운명적인 종이쪽이 놓여있었다. 모든것은 이바퀴물리듯 착착 바라는대로 엮어졌다.

그러나 한편 아쉬운것도 없지 않았으니 바로 이 장소에 순화가 없었던것이다. 린접군에서 열리는 자체원료기지조성경험토론회에 참가했던것이다. 기사장은 오늘날도 시외전화를 런던아 세번씩이나 했다고 한다. 무척 그가 기다려졌다. 기뻐 어쩔바를 모를 그의 얼굴이 좀처럼 눈섭끝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저녁녘에는 옛 친구들의 성화에 못이겨 공장합숙으로 갔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화의 호실창문을 바라보았다. 불이 켜있을리 만무였다.

집으로 오니 어머니는 아래목에 홀로 앉아 트렁크속에 놀리었던 나의 옷가지들을 손질하고있었다. 불빛에 어머니의 얼굴은 낮보다 훨씬 늙어보였다.

어느 한때 어머니는 이곳에서 첫손가락에 꼽히는 미인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가는 세월은 어머니의 그 아름답던 모습을 희미하게 남겨놓은채 흘러가버렸다. 나는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과 반나마 색이 하얗게 바래져버린 머리칼을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이름못할 런던의 정이 확 북받쳐올랐다.

어머니는 트렁크를 한옆으로 밀며 나에게 자리를 퇴웠다. 그리고는 곁에 가까이 다가와 앉는 나를 점도록 바라보았다. 잔주름이 눈가장자리로 몽키머물기같은것이 서서히 고여올랐다.

《원 애두, 무얼 그리 뚫어지게 보느냐?》

아들의 눈을 마주보는것조차 두려운듯 어머니는 정지문쪽으로 시선을 돌리었다.

《내가 저 마당 토방돌도 내리지 못해 넘어지던 때가 엇그제 같더니 이제 턱수염까지 꺼칠하구, 헛허... 내가 아마 오늘을 보자구 이렇게...》

종내 말귀를 여물구지 못한 어머니는 눈귀를 짙

어냈다.

《그래, 다 잘됐는지?》

《예.》

《그간 고생이 많았겠구나.》

《다 어머니랑 뒤에서 잘 받쳐준 덕이지요 뭐...》

나는 어쭙게 웃으며 기름까지 바르고 잘 빗어넘긴 머리를 공연히 헛손질했다.

《어머니가 그간 혼자 힘드셨겠어요.》

《힘들기야 뭐, 사방에서 도와줘서 아무일 없다.》

《어머니, 이젠 제가 어머니를 곁에서 꼭 붙들고 놓아주지 않겠어요. 어머니 내곁에서 떨어지지 못해요.》

《그게 참말이면사 오죽 좋겠니? 빨리 매련도 봐야 할텐데...》

어머니는 《매련》이라는 말이 불쑥 튀어나오자 당황한듯 말귀를 흐리며 탄전을 썼다.

《참, 내 정신보지, 어서 저녁들려, 네가 좋아하는 룩두지집도 구웠다.》

《공장합숙에서 먹었어요.》

바빠 허리를 일으키던 어머니의 의문찬 눈길에 내 얼굴에서 굳어졌다. 어머니는 다시 자리에 물려앉았다. 공장합숙 소리가 나오니 합숙생인 순화를 생각한 모양인가. 나는 괜히 어색해지며 몸이 줄어들었다. 어머니의 눈길을 받기가 송구했다. 나는 어쭙게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언제라도 열려지지 않을듯싶게 딱 다물린 입술, 고집스레보이는 술많은 눈썹, 이제는 생의 폐허처럼 주름만 남은 얼굴, ...들은지 썩 오래되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사랑하던 때의 이야기가 불현듯 떠오른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가 있는 직후였다.

공무직장 선반공 강옥섬은 인물맵시가 고운데다 일솜씨 또한 여간아니어서 그의 이름은 직장을 벗어나 공장구내 속보판에 자주 나붙었다. 그런데 어느 월생산총화모임에서 처녀의 《혁신》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얼마전에 공장에 온 제대군인청년이였다. 비판의 내용인즉 당면한 가공수자에만 눈이 어두워 소재를 낭비하는가 하면 기계밑으로 흘려빠지는 기름도 얼마든지 재생해 쓸수 있지만 전혀 낫을 돌리지 않는다는것이였다. 그러면서 그는 당이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으로 부르는 이때 동무는 량심이 있는가고 물었다.

칭찬에만 습관되였던 처녀는 처음 어리둥절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당이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으로 부르는 이때 동무는 량심이 있는가고 물었다. 그러나 자신에게 변명할 아무런 말도 없다는것을 깨달

고는 그만 치마자락에 눈물을 쏟고야 말았다. 그후 한동안 처녀는 그 제대군인총각을 만나면 일부러 찬바람을 일कु며 쳐다보지조차 않았다. 먼발치에서 총각의 그림자만 보아도 가던길을 돌파서든가 골목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러던 어느날 아침 작업복을 갈아입고 기대를 잡으려던 처녀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은빛이 나게 닦아 작업대에 올려놓은 콩다리소재들과 기대밑에 달아놓은 기름재생장치가 처녀를 아연케 했다.

처녀는 우연한 기회에 그 제대군인총각이 그 일을 한것이며 자기가 퇴근한후면 먼지진 기름구멍들도 말짱스레 청소해준다는것을 알았다. 그러기를 하루도 이틀도 아니였다. 처녀의 이름이 다시 공장속보판에서 떠날줄 모르게 되였다. 처녀는 차차 그 총각에게 고마운 생각을 품게 되였다. 어느날 응어리진 마음도 어지간히 풀려 총각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라도 차리려고 찾아갔던 처녀는 한마디 말도 비쳐보지 못하고 굳어지고 말았다. 기계를 보살펴주며 일을 도와줄 때는 것처럼 뜨겁게 불타던 총각의 눈이 시키면 눈썹밑에서 얼음처럼 차갑게 번쩍였다. 총각은 아예 처녀의 존재조차 무시했다.

많은 총각들이 약간한 호의를 던져도 황송해 어쩔줄 모르던것만을 보아온 처녀, 박수와 꽃다발에 익숙되여온 처녀의 자존심은 여지없이 짓밟혔다. 만약 그때 그 총각의 눈빛이 다른 사람들의것과 같았더라도 처녀의 생각은 달리되었을지도 모른다. 처녀의 상처입은 자존심은 알지 못할 반발심과 함께 총각에 대한 필요이상의 관심으로 번져갔다.

얼마후 처녀는 당원이 되였고 당생활속에서 진실로 동지의 공로에 티 한점 묻기도 바라지 않는 성실한 사람들이란 어떠한가를 절감하게 되였다. 처녀의 고고한 심장을 파헤치며 차츰 봄풀처럼 머리드는 야릇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제대군인

총각의 모습은 어느새 처녀의 가슴에 넘치게 자리를 잡았다. 그가 무관심하면 할수록 처녀의 가슴은 더욱 세차게 뛴뛰였고 그가 자기에게서 멀어질수록 처녀의 심장은 더욱 그에게 바투 다가가며 고동쳤다...

어머니가 물었다.

《만나봤니?》

나는 얼굴에 《아니요》 했다. 얼굴이 확 달았다. 어머니는 내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은채 무엇인가 주저하는듯하더니 주위에 듣는 사람이 없는데도 목소리를 죽여 물었다.

《너 정말 순화아니면 장가들지 않을 생각이냐?》

무심중 어머니의 얼굴을 힐끗 훑쳐보았다. 여전히 순화를 탐탁스레 여기지 않는 표정이 속마음의 거울같은 얼굴에 대문자처럼 박혀져있었다. 어머니의 뜻을 거역키도 어렵지만 순화를 단념할수도 없

었다. 나는 대답을 피했다.

나의 할구무언이 소귀에 경읽기인줄 안 어머니는 더는 말이 없다.

그날밤 나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어머니를 설복시킬 궁양이 좀처럼 트이지 않았다. 어떻게든 돌려세워야 한다. 나는 몇번이고 속다짐했다.

복잡한 상념으로 뒤척이다 겨우 풋잠에 들었던 나는 어머니가 흔들여깨우는바람에 번쩍 눈을 떴다.

《나가봐라. 순화가 왔다.》

(순화라니?)

그가 이밤중에 그 먼길을 어떻게?...

나는 부랴부랴 옷을 걸치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휘영청 달이 밝은 밤이었다. 순화는 쏟아지는 달빛을 맞으며 트랙에 그린듯 서있었다.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순화의 자그마한 얼굴을 국부조명하듯 비쳤다.

《순화!》

너무도 뜻밖에, 너무도 기쁨김에 나는 순화가 서있는곳까지 결코 가깝지 않은 거리를 샤프단추까지 채우면서 달려가다싶이 했다.

《아니 차도 없겠는데 어떻게?》

이밤에 몇십리길을 데어왔을 그의 수고가 진정으로 고마웠다.

어머니의 보이지 않는 눈길만 등위로 느끼지 않았더라도 나는 순화의 손목정도는 덤석 잡아주고픈 심정이였다.

《수고하셨어요.》

순화도 기쁨을 숨기지 못하는듯했다.

달빛아래 고즈넉히 잠자던 모든것들이 금시에 활기를 띠고 기지개를 켜는것만 같았다. 가볍고 훈훈한 바람이 불어지나며 순화의 머리칼을 날리고 마당가의 나무잎사귀들을 살랑살랑 춤추게 했다. 모든것이 우리 두사람만을 위해 한껏 펼쳐대는것 같았다.

《밤에 찾아온 사람을 들어오래지.》

어머니가 정지문을 연채 인사치레를 했다.

나는 이때라고 여기며 진심으로 《들어가기요.》했다.

《아니, 아니, 일없어요.》

나는 잠든 어린애의 가슴처럼 바빠 오르내리는 그의 붕긋한 앞가슴과 이마에 송골송골 맺혀도는 땀방울을 달빛에 헤아렸다.

《그럼 우리 좀 걸을까?》

나는 제먼저 앞서다말고 순화의 말에 흠칫 놀라 걸음을 멈추었다.

《아니, 아니예요. 저... 진수동무...》

《왜? 어머니때문에? ...일없소. 어서 가세요.》

《아, 아니, 저 좀...》

《웬일이요?》

나는 그제야 그의 불안에 떠는 모습을 가려볼수 있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글썄...》

《무슨 일인데?》

《저 향료가... 이상해요...》

《뭘-이-요?》

나는 와뜰 놀랐다. 남아있던 잠찌끼들이 순간에 달아났다. 순화의 목소리는 떨렸다.

《용서하세요... 한밤중에... 방금 도착해서 집을 찾아올수도 없구... 그래서 성공이 너무 기쁨김에 그만 제가...》

《그래서 어쨌다는거요?》

피괴한 밤중이여서 그의 낮은 목소리는 확성기를 매단듯했다.

《저... 기사장동지방에서... 가지고 내려오신 향료를 보았어요. 그런데... 어떤 병에서는 전에 우리가 실패한 그런 냄새가 나길래... 여기 가져왔어요.》

나는 순화가 조심스레 내미는 병을 받아 불빛에 비쳤다. 나만 알게 표식을 한 제조날자가 안겨왔다. 벼락이라도 맞은듯 혼뜨김이 났던 나는 그만 꺾꺾 웃어버리지 않을수 없었다.

《하참, 놀랐었군, 난 또 무슨 큰 일인줄 알구...》

나는 채 웃지 못한 나머지 웃음을 마저 쏟았다.

《너자들의 심장이란 과연 듣던바대로 토끼심장한가지요. 그러니까 미옥한 자라등에도 업힐수밖에... 하하...》

나는 맞지도 않는 룡담까지 해가며 사내다운 호기와 위세를 보이느라 애썼다.

《?!》

순화는 내가 태연해질수록 더욱 어리둥절하여 작은 눈을 깜빡이며 나를 바라보았다.

《놀라지 마오. 이 향료는 이미 만든지 여러달 되는것ियो. 이번에 내려올 때 공연히 가져와 본거요.》

《네-에?》

순화는 더욱 놀라와했다.

《왜 그러오?》

나는 그의 천진한 눈동자가 달빛에 유난스레 울롱해지는것을 보고 오히려 귀여운 나머지 코잔등이라도 뺨겨주고싶은것을 참았다. 거기에는 놀랄것이란 아무것도 없었기때문이다.

《저... 그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향료란 말예요?》

나는 어떻게 순화가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할까 생각하다 그의 지긋은 눈초리를 건디기 어려워 말을 이었다.

《물론 안전성이 담보되면 나쁠게 없지. 물질이 처하고있는 환경에 따라 레하면 열이라든가 보관기 일이라든가... 어쨌든 그러루한 환경에 저애를 받지 않는 향료라면 두말할게 있소? 그러나 어디에 그

런 향료가 있소? 그래서 허용오차라는것두 있는거구…》

《그럼…》

순화는 말끝을 흐리었다. 달빛아래 모든것이 희뿌연게 변해버린 저쪽 어딘가를 바라보는 그의 어깨가 알리게 처졌다. 그는 무엇인가 결심한듯 머리를 들었다.

《이 향료가 우리 공장 범위라면 또 몰라라 그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식료공장들에 도입되었는데 그런 허용오차에 명줄을 걸구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그뎐… 저…》

순화는 말을 갑작랐다. 나는 왈각 화가 치밀어올라 저도 모르게 이마살을 찌프렸다. 그런 소리를 하는 순화에 대한 노여운 생각과 함께 한가닥수치심이 치밀었다.

《전 그래도 동무가…》

순화는 차마 입밖에 내기가 피로운듯 몇번 갑자르다가 뒤말을 이었다.

《난, 무척 동무를 기다렸어요나는 왈각 화가 치밀어올라 저도 모르게 이마살을 찌프렸다. 동무가 돌아올 날을 손꼽으면서 말예요… 그런데 동무가 그런 향료를 가지고 올줄은…몰랐어요. 과학자의 량심이란 자기의 연구사업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자신이 책임지는 립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동문…》

나는 어정쩡하여 그의 말꼬리를 급히 잘라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량심도 없는 과학자라는 말이겠소?》

나는 통명스런 말소리가 부어오른 불밑에서 튕겨나오는대로 거치게 내쏘았다.

순화는 흠칫 몸을 떨며 한걸음 물러섰다.

《진수동무, 다시 론문을 검토해보세요. 다시 써야 해요. 그러는것이 동무자신을 위해서도 좋은일이예요. 개인의 공명이나 허영을 위해서 과학을 해선 안된다는걸 동무자신이 더 잘 알지 않아요? 만약 이 담보없는 안전성때문에 당장은 쓸수 있으나 이 물질이 다른 유도체를 발생시켜 인체에 해를 줄수도 있다는것을 생각해보셨어요? 또 시간이나 외

3

그 답답한 밤이 옹케도 가버린 아침이었다. 일찌기 렬필성기사가장이 찾아왔다. 그는 향료생산공정개조를 위한 협의회를 소집해놓았는데 내가 나타나지 않아 일부러 왔다는것이였다. 그런데 의기가 소침해진것이 눈에 알리였던지 가볍게 나무랐다.

《왜 순화때문인가? 다 들었네. 격정말라구. 아무리면 우에서 타산없이 도장을 눌렀겠나? 순화에게

부적환경에 따라 변화가 심한 향료라면 이런 경우 여기에 드는 생산원가도 맞지 않아요. 그리구…》

갑자기 뒤통수가 썩늘해졌다.

《듣기싫소. 그만하오!》

나는 더 참아내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도대체 뭘 안다구?…》

나의 자존심은 벌써 리성을 짓몽겠다. 감정이 그 리성을 갈기갈기 찢어팡개쳤다. 순화는 한걸음뒤로 물러섰다.

《예? 아니?…》

순화는 불의에 뺨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두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비칠거리더니 핵 돌다서서 어둠속으로 뛰어가버렸다. 그가 남겨놓은 애처로운 흐느낌소리와 무거운 발자국소리가 거대한 메아리가 되어 나의 가슴을 단조기의 함마소리처럼 쿵쿵 두드렸다.

언제 나왔는지 어머니가 울바자너머로 사라져가는 순화의 모습을 불안스레 지켜보고있었다. 이밤따라 발이 성근 머리칼이 달빛에 더욱 하얗다. 그 모습은 나의 육신의 힘을 매모조리 빼앗아가는듯했다. 이날껏 나를 믿고 바라오신 어머니, 갑자기 어머니가 불쌍해지고 눈곱이 시큰해졌다. 말할수 없는 혐오감에 뼈가 저리였다. 나는 털석 소리나게 토방에 물러앉고 말았다.

순화가 야속하고 원망스러웠다.

나자신에 못지 않게 나의 성공을 기다려준 그가 아닌가. 나는 그의 그 판조적인 태도가 섭섭했다. 지난 기간 공장실험실에서 나의 조수로 아글타글 애쓰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서로 떨어져있는 까닭에 나의 연구사업을 도와주지 못함을 그토록 안타까와하며 얼마나 많은 열정적인 편지들을 보내왔던가.

나는 조용히 머리를 저었다.

순화를 믿자. 나의 성공이 곧 오랜세월 목마르게 기다리던 우리 사랑의 결실임을 깨닫게 될것이다. 그러나 다음날 공장에서 다시 만난 순화는 나의 기대를 깡그리 허물어버렸다

.

도 내가 알아들음만치 일렀네.》

《…》

《그게 바로 지식인들의 약점이야. 녀려할건 없어. 아침에 연구소에서 전화가 또 왔더군. 잘 도와주라구… 아무렴 도와줘야 하구말구!》

필성은 담배내가 약간 풍기는 후더운 입김을 끼었으며 내 어깨를 툭 쳤다.

《순화도 장독을 더 축내야 과학도의 고충을 알걸세. 자 빨리 가자구.》

나는 그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공장에 도착한 나는 실험실에서 위생복을 얻어 입고 기사장과 함께 기술협의회가 진행되는 향료직장으로 갔다.

그런데 거기 직장장실앞 복도에서 금방 하늘에서 떨어진듯 순화가 우리 두 사람앞에 나타났다.

《기사장동지!》

렘필성이 얼른 그의 말을 막았다.

《또 그 소리오? 됐소. 그 정도의 약점이야 이해할 수 있는것 아니요? 이해하오 이해를...》

순화의 서글픈 눈에 어둠과도 같은 그들이 비껴지났다. 그도 잠을 설쳤는지 얼굴이 부석부석하고 눈에 피발이 섰다.

기사장은 얼굴을 찌프렸다. 아침면도를 했는데도 꺼먼 턱수염뿌리들이 거꾸로 솟구친듯 얼굴이 온통 검검해졌다. 순화가 그의 앞에 바투 다가섰다.

《기사장동지, 과학의 성과란 문서화한 몇장의 종이우에 표기되는것으로 끝날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설사 종이우에 못웁거지여 웅당 차례질 명예를 잃는다해도 나라에 보탬이 되구 우리 인민들이 좋아한다면야 가슴에 주렁질 훈장에 비기겠습니까? 정말 이러시면 안됩니다.》

《아니, 그걸 동무만 알고있단말요? 동무가 여직우릴 그렇게밖에 몰랐소?》

기사장은 《우리》에 강한 억양을 그루박으며 처음보는 사람을 대하듯 의아한 눈길로 순화를 바라보았다.

《아니, 압니다. 알아도 잘 알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것입니다. 우리 함께 론문을 검토해봅시다. 그것이 지금 우리모두를 위해서 무엇보다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순화의 양보없는 태도에 질식될 지경이었다. 쥐구멍이라도 찾고렸다. 그 예리한 말마디들이 나의 얼굴에 날아와 푹푹 들이박히는듯했다.

절망, 후회... 과연 모든것은 끝장인가?

공든탑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기에 비싼 수고가 아까웠다. 기사장은 어처구니가 없다는듯 헛헛... 허파 빈 소리를 냈다.

《이 코막고 답답해하는 사람아, 이게 어디 나하나만을 위한 일인가? 이 향료가 어떤것인지 뻔히 알면서두... 제발 아는 주정 말라구. 내가 다 책임지지 않으리.》

순화의 눈에 이슬같은것이 함뿍 고여올랐다.

《저희들을 위해 애쓰시는 기사장동지의 그 마음을 모르는바 아닙니다.》

그는 어깨를 들먹였다.

《됐어. 됐어. 진정하라구. 그러면 다시 뭘그래...》

기사장의 목소리는 한결 누그러졌다.

나는 풀리지도 않은 도면두루말이를 펜스레 만치 작거리며 나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지는 이 승부가 빨리 끝나기를 기다렸다. 눈물섞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전... 여직껏 기사장동지랑 그리구... 모두들 깨끗한 심장만을 알았습니다. 허용오차마저 허용하지 않는 그런 동지들을 알고있을뿐입니다...》

이러는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왔다.

《됐소, 순화 됐다니까. 사람들이 보요.》

기사장은 이 식료공장의 한키로그램들이 파자락 만치 크고 넓적한 두손을 순화의 어깨에 올려놓고 한번 꺾 눌러주었다.

《됐소, 됐소. 갑시다. 진수동무!》

그는 열나간 사람처럼 멍청히 서있는 나를 다짜고짜로 잡아끌었다. 갑자기 순화의 새된 목소리가 울렸다

《안돼요!》

벽에 맞은 총알처럼 튕겨난 순화는 우리앞을 막아섰다. 이어 맵잔 말마디들이 돌맹이처럼 날아왔다. 나는 기사장을 따라 걸음을 떼다 말고 뜨거운 불벼락을 들쓴 사람처럼 몸을 웅충그렸다.

《다시 한번 말합시다. 저는 향료직장생산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지금 모두들 당에서 결심한 하면 우리는 한다고 하는 때에 당에서 바라는것만도 미처 다 받들지 못해 속이 타는데 이래서야 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제 한몸의 공명만을 위해 뚱뚱하면 결국 손해볼건 나라구 또 우리자신들이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요. 네? 기사장동지! 진수동무!》

사람들이 벌써 우리 주위에 적지 않게 모였다. 수십쌍의 눈초리들이 나의 온몸을 주사침처럼아프게 찔러댔다. 머리에, 얼굴에, 어깨에, 옷자락에 이글대는 모닥불을 들쓴것만 같았다. 그 모닥불은 옷자락을 다 태우고 살점까지 지저뭉개고있었다. 나는 황황히 뒤걸음치며 마지막으로 나의 정든 동무, 오랜 세월 때없이 심장을 달구어주던 순화를 바라보았다.

(진수동무, 동무까지 내 마음을 몰라주면 난 어쩔 좋아요?...)

말간 눈물이 차랑차랑 고인 눈이 이런 말을 속삭이고있었다. 그런들 어쩐랴.

나는 기사장의 높고 성난 목소리를 등위로 들으며 밖으로 달려나왔다. 얼굴에 굵은 땀발이 발진치

럼 내뒀었다. 팔과 다리가 그 어데서 따다 조립한것처럼 제나름으로 허둥거렸다.

(순화, 동무가 과연?!)

나는 단정히 채워졌던 셔츠의 목단추를 풀었다. 믿을수 없어도 믿어야만 하는 이 엄연한 현실이 숨통을 조였다.

(순화, 우린 그저 아는 사이도 아니지 않소?)

나는 발걸가는대로 공장구내를 빠져나왔다. 정오의 햇빛은 머리우에 따라옴다. 나는 천천히 아카시아숲을 지나 강변으로 나왔다. 사위는 적막뿐, 외로운 몸뚱이는 갈곳이 없다. 넓지 않은 바위우에 쓸모없는 물건짝이 된 내 몸뚱이를 던졌다. 잔잔한 물결우에서 흰옷입은 사나이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형클어진 머리칼, 이그러진 얼굴... 보기조차 흠했다. 그제야 나는 위생복도 벗지 못하고 《도망질》했음을 알았다. 맑은 물밑에 뒤걸음으로 분주스레 쏘다니는 가재들이 보였다. 그것들은 마치 여보게, 자네도 우리처럼 일찌감치 뒤걸음질하는게 상책일세 하고 귀땀해주는듯했다. 나는 피우다 불이 죽은 담배대를 물가에 던지고는 돌판우에 팔베개를 하고 비스듬히 누웠다. 체비들이 머리우에서 낮추 감돌았다. 어느새 햇빛은 구름에 가리워지고 재빛하늘이 무겁게 검은 배를 드러냈다. 나는 피우다 불이 죽은 담배대를 물가에 던지고는 돌판우에 팔베개를 하고 비스듬히 누웠다. 한소나기 퍼부우려나보다. 암울한 생각이 솟덩이를 가슴에 한가득 쌓아올렸다. 물을 차며 달려온 고운 청제비 한마리가 그 누구를 찾듯 강기슭을 살살이 훑으며 어데론가 쏜 화살처럼 빠르게 날아가버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땅에서 등을 떼고 일어났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낯익은 길이 나졌다. 세해전만 해도 우리의 퇴근길우에 진한 향기를 풍겨주던 그 아카시아숲 길이었다. 그때 폐장깊이 다져넣어도 싫지않던 그 취할듯한 향기마저 오늘은 역겨웁다.

갑자기 뒤에서 사박사박 발자국소리가 들렸다. 갈림길이 나졌는데도 그 소리는 끊기지 않았다.

아, 귀에 익고 몸에 배인 그 사박소리...

《진수동무!》

4

또다시 나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끝내 지고말았다. 흥, 여기가 아니면 생산도입을 실현할 공장이 없을가봐 ? 천만에 ... 나는 대학동창생이 기사장으로 일하는 다른 군 식료공장에 갈

가슴속에 큰 널판자가 물러앉으며 쿵 소리를 내는것 같았다. 오한이 온몸을 휩쌌다. 다시 또 들려오는 목소리...

《진수동무!》

심장깊이 록음해두었던 그 부드러운 목소리의 선율... 그러나 그 선율은 이미 나에게 재미없는 음악이었다.

《왜 왔소?》

《저... 무슨 방도가 없을까요?》

너무나도 폐사로운 목소리,

《글쎄요...》

나의 입에서는 비꼬인 존대가 절로 튀어나왔다.

《참, 자기가 낳은 자식이 고운지 미운지, 병신인지도 모르는 나같은 천치가 무슨 방도같은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점점 원새끼가 꼬여지는것을 참아낼수 없었다.

《아이참, 정말 노하셨군요!》

순화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이 나에게엔 몽둥이로 후려치는것만 같았다. 초상난 집에 가서 웃어주는 사람이 결코 고마와보일수 없듯이...

나는 핵 발걸음을 돌리었다. 순화는 뜻밖인듯 주춤 서버렸다. 나는 일부러 숲이 무성한 오솔길로 돌아섰다. 그 길은 우리 집으로 곧추 뻗은 지름길이었다.

어디선가 놀란 밤새가 후두둑 깃을 치며 날아올랐다. 그러더니 다시는 아무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차라리 그 사박거리는 소리라도 들려왔으면 ... 들려왔으면 나는 참지 못하고 돌아섰을것이다. 그라고 내가 우리 나라 자음과 모음을 알게 된 때로부터 국어시간과 소설책들까지 합쳐 배우고 배운 모든 어휘들을 고르고 골라 별침처럼 아프고 고추처럼 맵고 소금처럼 짜디짠 말들을 마구 주어섬겼을것이다. 그리고 나는 오랜세월 나를 유혹하고 심장을 쥐여짖 그 모든것과 단호히 결별을 선언하였을것이다. 그러나 사위는 여전히 피피하였다. 그 사박소리가 다시 들려오지 않은것이 얼마나 다행이였는가를 나는 후에야 알게 되었다.

결심으로 떠날차비를 했다.

어머니는 나의 트렁크를 챙겨주며 오래도록 말이 없더니 불쑥 물었다.

《애야, 안가면 안되느냐?》

《가야 해요.》

누가 뭐라든 떠나려는 나의 결심은 이미 확고한것이였다. 순화가 이제 당장 용서를 빌며

불든다고 해도 그 결심은 변경시킬수 없었다. 다만 집떠나는 이 아들로 하여 다시 외롭게 지내야 할 어머니가 측은할뿐이었다.

어머니는 더 다른 말이 없었다. 이것 저것 의문이 많겠지만 애써 캐묻지 않는 어머니가 몹시도 고마왔다.

식사후 나는 어머니와 함께 역두에 나가 차표를 샀다. 우리는 흠으로 나갈 시간이 될 때까지 역사앞 공원의 긴의자에 앉아있었다. 기분이 울적한 탓인지 엇그제까지만도 것처럼 황홀하고 정다워만 보이던 역사의 나지막한 은빛지붕도, 5월의 짙은 록음도 지금은 제빛이 아니었다. 주위의 모든것이 그림속에서처럼 정지당한듯싶다. 흐린하늘에서 갑자기 비방울이 후두둑 떨어졌다.

《순화는 안나오느냐?》

어머니가 침묵을 깨뜨리며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

《떠난다는걸 알리지 않은게로구나.》

이번에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두 다 들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가 바라던것이 아녘니까. 하고 나는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순화를 잊자고 하면서도 순화를 거부하는 어머니를 원망하는 이 모순된 감정, 어찌하여 이런 모순이 생겨나는지 내자신도 알수 없었다.

잠시 아무말 없던 어머니가 내쪽으로 돌아앉았다.

《네가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글은 많아도 사람에 대해선 아직 잘 모르는것 같다. 순화같은 처녀를 몰라봐선 안된다. 나는 그애의 소행이 어쩐지 전에 네아버지가 나를 책망하던 때 일처럼 생각되는구나.》

《어머니, 과학이란 인간을 이해하기보다 썩 더 힘듭니다.》

《사람을 제대로 안다는것도 쉽지 않다.》

갑자기 머리우에서 파르릉! 하고 천등이 울었다. 하늘을 울려다보는 순간에 번개불이 번쩍-하더니 금방 정수리에 떨어지는것 같은 우뢰소리가 뒤에서있는 오동나무 바로 우에서 다시 터졌다. 뒤따라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급히 역의 기다림칸으로 들어갔다. 그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역구내방송이 개찰을 하겠다고 알리었다.

나는 흠으로 나가려고 두줄로 늘어선 손님들의 맨 꼬리에 어머니와 함께 섰다. 어머니는 자주 출입문쪽을 돌아다보았다. 순화를 기다리는것이

분명했다.

나는 쓴웃음을 머금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 공연한 속을 쓰십니다. 어머니의 피로운 오늘을 내 후날 백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시다.)

《손님, 빨리 나갑시다. 차가 들어오고있어요.》

쨍쨍하고 마른 목소리가 허공에서 울렸다. 나는 이미 텅비여버린 출구로 빠져나가며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어머니, 제 그럼... 비가 오는데 더 나오지 마세요.》

《오냐, 어서 가거라.》

어머니의 음성이 가볍게 떨렸다.

나는 뜨거운것이 목구멍에 차오르는것을 느꼈다. 이러다 어머니앞에서 눈물이라도 보일것 같아 황급히 돌아서버렸다. 비는 점점 더 발이 굽어졌다. 흠에 올라서서 몇걸음 옮겼을 때였다. 웬 너자가 철벽철벽 물창을 밟으며 나를 지나쳐 달리더니 갑자기 내 눈앞에서 몸을 돌리며 마주서는것이였다. 나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뜻밖에도 그는 순화였다. 폭 젖은 머리카락, 늘어진 옷소매, 다리에 감겨진 치마자락, 바쁘게 오르내리는 가냘픈 어깨... 우장도 없이 차거운 비발속에 몸을 내맡긴 그의 얼굴에서는 단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한순간 나는 가닭모를 미안함과 죄의식 비슷한 감정을 체험하였다. 그러나 나는 될수록 땀담과 위엄을 보이려고 애썼다.

《무엇때문이요? 우리 사이에 이미 할말은 다한것 같은데...?》

순화는 고개부터 가로저었다.

《아니예요, 우린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흥!》 나는 긴 말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며 그를 에돌아 걸음을 내짚었다.

《서세요!》

갑자기 날카롭게 소리친 순화는 한걸음 물러서며 나를 막아섰다.

《이건 뭐요?》

《갈 땐 가더라도 들을 말은 듣고 가세요.》

마주보는 차거운 눈빛과 함께 마디마디를 얼마나 담차게 하는지 나는 가슴이 다 서늘해지는것 같았다.

《좋소, 그렇다면 어디 들어봅시다.》

나는 우정 가슴을 쪽 펴며 여유있는척 해보였다. 순화는 피기가 썩 가신 창백한 얼굴로 입술만 깨물고 서있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퍼그나

갈려있었다.

《너자로서 차마 어려운 말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정을 이해해줄길 바래요. 난 오래동안 가슴속에 품어온 말을 이처럼 비참한 순간에 하게 되는것이 무척 피로워요. 그래요. 난 동무를... 오래동안... 하지만 내가 열렬히 심장을 바쳐왔던 사람은 지금 내 앞의 진수동무가 아니예요. 내가 그려온 진수동무는 과학앞에 무한히 성실하고 마음속이 어린애처럼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동무는... 동무는... 나같은건 버려도 좋아요. 전 워낙 동무의 짝이 될만한 녀자가 못되어요. 밋구 무식하구... 그러나 헤어지더라도 이것만은 꼭 말해야겠어요.》

순화는 울고있었다. 울면서 눈물속에 자기의 진정을 쏟아놓았다.

《동문 과학자예요. 어떤 경우에도 순간의 명예에 유혹되어 과학자로서의 양심과 청렴을 잃지 마세요. 그건 한번 잃으면 다시 찾기 힘든거예요. 보잘것없는 녀자의 말이라도 이걸 꼭 명심해주세요. 난 동무가 참다운 과학자로 된다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겠어요. 제할말은 이게 다예요. 잘 가세요. 부디... 부디...》

끝내 마감말을 맺지 못한 순화는 혁-하고 얼굴방아를 찡더니 두손바닥으로 눈앞을 가린채 역사쪽으로 허둥지둥 달려갔다.

나는 어깨를 떨구었다. 그루박힌듯 그자리에서 좀처럼 움직여낼수 없었다. 순화의 그 격하면서도 눈물어린 말마디들이 그대로 침이 되어 가슴속을 마구 찌르는것 같았다. 거기에 어머니의 목소리까지 귀전을 울려주었다.

작가연단

90년대 인간성격창조문제에 대한 소감

류 만

90년대 인간성격창조문제와 관련한 글을 써달라는 편집부의 청탁을 받고 처음에는 막연한 느낌이 들었다. 90년대도 이제 첫해를 보냈는데 한두해도 아니고 앞으로의 10년까지 예상하면서 우리 문학에서 창조할 인간성격에 대하여 말하라니 이것은 너무도 아름찬 일이 아닌가.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각을 거듭해보니 그것이 그렇게 외면할 문제가 아니요 또 엄두를 내지 못할 문제도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아니, 90년대 문학창조의 길에 오른 우리 작가들모두에게 있어서 누구나 다 탐구와 사색을 기울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는 절박감이 더 강하게 안겨오는것이였다.

《...순화같은 처녀를 몰라봐선 안된다. 나는 그대의 소행이 전에 네 아버지가 나를 책망하던 때 일처럼 생각되는구나...》

번쩍! 파르릉, 팡... 팡...

열광하는 소나기의 세례와 함께 나는 갑자기 온몸의 피가 깨끗이 정화되는듯한 가슴후련함을 느꼈다.

참으로 이상도 한 일이다. 어찌하여 내 운명의 전환점은 늘 소나기 내리는 날로만 정해지는것인가. 아직도 그 몇번 이런 소나기에 씻겨야 하는가. 나는 다시는 그런 소나기가 없기를 바랬다.

순간 떠나야 한다는 생각은 감감 잊혀지고 그저 피로움에 몸부림치는 그 작은 몸을 통채로 품에 꼭껴안고 달래고 어루만져주고싶었다. 내 가슴가득 멀기쳐 솟구치는 이 숨막히게 뜨거운 열정의 한토막이라도 안겨주고싶었다. 그리고 그의 발치에 꿇어엎드려 빌며 용서를 받고싶었다. 나는 이때처럼 그렇게 뜨겁고 열렬하게 다른 누구를 사랑해낼수 없다는것을 알았다.

참으로 지난 모든 날들의 갈피갈피에는 《순화》라는 남모르는 지지대가 말없이 등을 고여주고 손을 잡아주고 발걸음을 다그쳐주었다는것을 나는 새삼스럽게 느꼈다.

붕- 출발을 알리는 기관차의 기적소리가 역홀을 뒤흔들었다. 이제라도 달려가면 가까운 렬차승강대에 오를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서둘지 않고 주머니에서 차표를 꺼내 천천히 찢었다. 갈가리 찢긴 차표조박을 이미 굴기 시작한 차바퀴어름에 힘껏 내던졌다. 그리고는 순화가 달려간 역사쪽을 향해 힘있게 걸음을 내짚었다.

그리하여 아직은 90년대 인간성격창조과정에서 나온 이렇다할 문제작들을 접하지 못한채(원래는 창작된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것이 리상적인 경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90년대 인간성격에 대한 제 나름의 해석과 기대와 요구를 담아 90년대 인간성격의 특징을 밝히기보다 90년대 인간성격 창조문제를 어떻게 리해하고 해결할것인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여기에 몇가지 생각을 적어보기로 하였다.

90년대의 인간성격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

하시였다.

《1990년대는 우리 인민이 커다란 포부와 굳은 신념을 가지고 더욱 분발하여 힘차게 전진하여야 할 희망의 년대이며 투쟁의 년대입니다.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오랜 기간 간고한 투쟁을 계속하여온 우리 인민은 오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있습니다. 조국땅위에 사회주의 락원을 건설하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위업은 우리 자신이 20세기의 마지막 10년을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데 따라 그 승패가 좌우되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만만한 투지와 신심을 가지고 격동하는 역사의 흐름에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하며 희망찬 1990년대에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높은 봉우리위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려야 합니다.》

우리의 90년대는 희망의 년대, 투쟁의 년대이다.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승리를 안아올 희망과 투쟁의 년대인 1990년대!

참으로 90년대 우리 인민앞에는 휘황찬란한 전망이 펼쳐지고 성스러운 투쟁과업이 나서고있으며 90년대의 장엄한 진군길에 오른 우리 인민의 투지와 신심은 하늘을 찌를듯 높고 역세다.

90년대 인간성격창조문제는 오늘 우리 문학앞에 새롭게 나서는 문제이다.

90년대 우리 문학에서의 인간성격창조문제와 관련하여 먼저 리해를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90년대 우리 문학에서 인간성격창조문제는 크게 두 측면에서 제기되고 해결되여야 하리라 생각한다.

그 한 측면은 90년대의 현실생활을 반영한 작품에서의 현실적 인간들의 성격창조에 관한 문제요, 다른 한 측면은 지나온 혁명과 건설의 년대들에 새 역사의 창조자, 주인으로 성장한 인간들의 성격창조에 관한 문제이다.

우선 지나온 혁명과 건설의 년대들에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여온 주체형의 인간들의 성격창조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90년대 성격창조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간혹 이 측면을 놓치는 경우가 없지 않는것이다.

물론 우리가 90년대의 새로운 시대적특징을 말하면서 인간성격에 대하여 론할 때 기본은 어디까지나 90년대에 살며 투쟁하는 현실적 인간의 형상을 넘두에 두게 되는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지나온 년대들 다시말하여 항일무장투쟁시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후복구건설과

천리마대고조시기 등 력사적시기에 살며 투쟁하여온 인간들의 성격창조문제를 도외시할수는 없는것이다. 어느면에서는 이 문제가 현실적 인간의 성격창조에 못지 않게 90년대 문학앞에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고있다.

온 나라가 90년대의 새로운 진군길에 오른 오늘 우리 당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니였던 백두의 혁명정신, 전후복구건설과 천리마대고조시기에 나라치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살며 일할것을 요구하고있으며 온 사회에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기백이 차넘치게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새로운 《90년대속도》창조투쟁으로 들끓는 오늘의 현실에서는 항일혁명가요를 비롯하여 지나온 혁명과 건설의 년대들에 힘차게 울려 퍼진 전투적인 노래들이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있으며 그것은 그대로 90년대 시대정신의 메아리로 되고있다.

지나온 혁명과 건설의 년대들에 우리 인민이 높이 발휘한 불굴의 투쟁정신과 혁명적기백은 오늘도 우리 인민들이 가슴깊이 지니고 높이 발양하여야 할 숭고한 혁명정신이며 기백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정신, 이러한 불굴의 투쟁정신을 지닌 항일무장투쟁시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후복구건설과 천리마대고조시기에 살며 투쟁한 주체형의 인간들의 성격을 훌륭히 창조하는것은 90년대 우리 문학이 창조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형상과제이다. 항일혁명투사와 조국해방전쟁의 영웅들, 전후복구건설과 천리마대고조시기 인간전형들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함으로써 우리 문학은 90년대 인간성격창조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90년대 인간성격창조의 견지에서 볼 때 항일혁명투사들, 조국해방전쟁의 영웅들, 전후복구건설과 천리마대고조시기 인간들의 형상문제를 90년대의 현실적높이에서 훌륭히 실현하자면 이런 시기에 비하여 보다 새로운 사상미학적요구가 관철되여야 한다. 말하자면 일반적으로는 현대성의 요구를, 구체적으로는 90년대의 시대적 요구와 지향을 옹계 반영하여야 하는것이다.

레컨대 항일혁명투사의 성격을 창조하는 경우 50년대, 60년대 작품에서의 형상세계와 90년대작품에서의 형상세계가 꼭 같을수 없는것이다. 물론 항일혁명투쟁의 영웅적현실과 항일혁명투사의 불굴의 투쟁과 혁명정신은 력사적사실 그대로 진실하게 재현하면서도 90년대의 문학에서는 90년대의 시대적 요구와 지향의 조명속에서 그 모든 형상을 창조하게 되는것이다.

90년대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길에서 과연 어떤 위치를 차지하며 90년대의 시대적 요구와 지향은 무엇인가, 90년대 인간은 어떻게 살며 투쟁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넘두에 두고 지나간 혁명과 건설의 년대에서의 인간과 그 생활을 탐구하고 형상하여야 하며 그 모든것이 해당한 력사적시기의 사실을 진실하게 재현한 화폭이면서도 거기에 90년대의 시대적 요구와 지향이 담겨지게 하여야 한다.

90년대 우리 문학에서 인간성격창조문제를 론하면서 항일혁명투사들과 조국해방전쟁의 영웅들, 전후복구건설과 천리마대고조시기 인간들의 형상문제를 차요시하지 말고 중시하여야 할 근거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혁명전통주제, 조국해방전쟁주제, 전후복구건설과 천리마대고조시기 현실주제는 그자체로서는 의연히 중요하지만 그 중요성만 가지고서는 90년대의 시대적요구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없다. 지나간 혁명과 건설의 년대들의 형상에 바쳐진 작품들의 경우 문제는 거기에서 오늘의 시대적 요구와 지향을 옹계 구현할 때 그것이 충분한 가치와 의의를 가지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90년대 우리 문학에서의 인간성격창조에서는 작가들이 항일혁명투사들과 조국해방전쟁의 영웅들, 전후복구건설과 천리마대고조시기 인간들의 형상에서 90년대의 시대적 요구와 지향을 옹계 구현하는 문제에 응당한 관심과 탐구를 기울여 그들이 90년대 우리 인민의 생활과 투쟁에서 귀감이 될수 있는 사상정신적높이에서 형상되게 하여야 한다.

지나간 혁명과 건설의 년대들이 낳은 주체형의 인간성격창조와 관련하여 이러한 리해에 기초하면서 다음으로 90년대의 현실속에서 살며 투쟁하는 인간들의 성격창조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지금 90년대의 인간성격(현실적인간을 넘두에 둠)창조문제와 관련하여 90년대 인간은 어떤 인간으로 형상되어야 하는가. 그 성격적특징은 무엇인가 등 문제를 놓고 여러갈래의 생각들이 오가고있다. 물론 우리 문학에서 90년대 인간의 성격적특징에 관한 문제는 새롭게 해명되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나는 이 경우에도 역시 앞에서 90년대가 어떠한 년대인가 하는것을 리해한 그런 견지에서 문제를 고찰하는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90년대 인간의 성격적 특징이라고 하여 그것을 70년대나 80년대와 질적으로 구별되는 그 어떤것으로 리해할것이 아니라 주체혁명위업수행의 한길에서 발휘된 70년대, 80년대 주체형의 인간들의 성격적특징의 계승으로, 심화발전과 풍부화과정으로 리해하고 형상하여야 하는것이다.

물론 90년대의 새로운 현실이 제기하고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여 그 성격속에 일련의 새로운 특징이 부여될수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어떤 특징들이 더 두드러지게 강조될수도 있다.

그러나 주체혁명위업수행의 한길에서 형성발전되고 공고화된 주체형의 인간들의 성격적특징은 예나 제나 일관한것이며 그것은 새로운 시대적환경속에서 새 시대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발양되며 보다 발전심화되고 풍부화되는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우리의 90년대가 70년대, 80년대의 계속이고 그 높은 단계라면 마찬가지로 90년대의 인간들은 70, 80년대를 거처온 사람들이고 그 계승자들이며 보다 높은 사상정신적 및 도덕적품성의 소유자들이다.

이렇게 놓고보면 주체형의 인간들의 중요한 품성인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대중적영웅주의, 필승의 신념과 강의한 의지, 혁명적 량만과 락관주의 등은 지난날에도 있었고 70, 80년대 인간성격에서도 주되는 특징으로 두드러졌으며 또 90년대에 와서도 그것은 변함없이 의연히 주도적인 특징으로 높이 발양되고있다. 그러나 주체형의 인간으로서의 이 공통적인 특징에도 불구하고 매시기 문학형상에서는 각이한 양상과 심도를 보여주고있는것이다.

레컨대 주체형의 인간에게 있어서 주도적인 성격적특징으로 되고있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형상문제를 놓고보자.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형상은 우리 문학에서 지난 시기에도 주되는 과제로 실현되었으며 오늘도 중요한 형상과제로 나서고있다. 그러나 오늘에 있어서의 충실성형상은 그 근거에 확고한 혁명적수령관이 안받침되어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혁명적 의리와 신념에 기초한 충실성으로 되고있다. 따라서 같은 충실성에 대한 형상이지만 그 폭과 심도에서는 같지 않으며 그 높이와 사상미학적과동의 울림이 또한 각이한것이다.

우리 문학발전의 전과정을 놓고볼 때 충실성에 대한 형상은 의심할바 없이 심화발전되고 풍부화되는 과정으로 특징지어진다.

혁명적 의리와 충실성에 기초한 충실성형상만 두고보아도 70년대와 80년대의 성격형상에서 이 문제가 강조되고 거기에 작가적인 탐구와 노력이 기울여졌다면 90년대 성격창조에서의 충실성형상에서도 이 문제는 특별히 힘을 넣어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되고있는것이다. 그러면서도 여기에 대하여 90년대의 인간성격창조에서는 혁명적 의리와 신념에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충성과 효성을 다해가는 인간성격을 깊이있게 밝히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서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 당과 수령에 대한 혁명전사의 충실성으로뿐아니라 당과 수령을 아버지, 어머니로

모시고 따르는 효자의 다함없는 효성이 안받침된 충실성으로 높이 발양되고있는 여기에 충실성형상에서 90년대 우리 문학이 해결하여야 할 새로운 형상과제가 있다.

충실성뿐만아니라 주체형의 인간들에게 고유한 다른 성격적특징의 형상도 마찬가지다.

가령 혁명적랑만성, 락관주의를 두고보더라도 그것은 항일혁명문학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문학에서 창조된 주체형의 인간성격에서 주되는 특징의 하나로 되어왔다.

우리는 천리마운동이 한창 고조되던 1960년대초에 창작된 단편소설 《해주-하성서 온 편지》와 《길동무들》을 비롯한 많은 작품들에서 독특한 향기를 풍기던 랑만적열정을 가슴 후덥게 되새겨본다.

그런 혁명적랑만은 항일투사의 성격과 인민군전사의 성격에서도 그리고 사회주의건설자들의 성격에서도 주되는 특징으로 다양하고 특색있게 나타났으며 어제와 오늘도 우리 문학을 풍만하고 아름답게 하는 유난한 색채로 되고있다.

따라서 90년대문학에서 이 랑만성을 주되는 특징으로 강조한다면 그것은 어느 면에서 새삼스러운 느낌을 주는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제기될것이 아니라 주체형의 인간들의 성격에 고유한 랑만성이 90년대의 새로운 현실에서 어떻게 새롭게 특색있게 형성되고 발현되는가 그리고 그 지향성이 무엇인가를 옹게 밝히는것이 중요하다.

충실성, 랑만성뿐만아니라 주체형의 인간들의 모든 성격적특징이 작품의 형상과제와 주제사상적목적에 맞게 다같이 부각되어야 하며 그러되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그 시대의 현실생활과 요구를 반영하여 그 특징들이 매 시대에 맞게 다양하게 형상되었다면 90년대에는 또 90년대대로 새롭게 나서는 시대적 요구와 지향, 새로운 《90년대속도》창조의 현실을 반영하여 그 특징들이 한층 높고 심도있게, 자유분방하고 풍부하게 형상되어야 하는것이다.

이렇게 놓고보면 90년대의 현실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성격적특징을 찾으면서도 일관성과 계승성의 원칙에서 주체형의 인간들의 성격적특징을 90년대의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지향을 반영하여 더욱 심화발전시키고 풍부화하며 보다 높은 경지에도 승화시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비롯하여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등 성격적특징들이 계속 빛나게 형상되게 하여야 하는것이다.

그러되 그 모든 특징들은 지난 시기와는 다른 90년대 우리 당이 내세운 목표와 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90년대 인간들의 투쟁과 사상정신세계의 반영으로 되어야 하며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할 90년대의 높은 봉

우리에 올라선 그러한 인간의 성격적특징으로 부각되어야 한다는데 90년대 인간성격창조에서 우리 작가들의 새로운 탐구와 사색의 세계가 있으며 참다운 창조의 길이 있다.

90년대 인간성격창조와 작가

90년대 인간성격창조에서 그 특징을 어떻게 보고 그릴것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중요하게 나서는 것은 작가문제이다.

작품의 세계는 작가의 세계이며 작품의 사상예술적높이는 작가의 사상미학적준비정도의 반영이다. 그만큼 작가들은 아는것 이 많아야 한다.

작품에 대한 요구는 곧 작가에 대한 요구이다. 작가는 불변하는데 작품에만 높은 요구를 제기하면 거기에서 좋은 결실이 이루어질수 없다.

마찬가지로 90년대 성격창조과제를 담당하고 해결하여야 할 주인은 작가인것만큼 우리는 응당 작가에 대한 요구도 제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90년대 성격창조문제를 두고 이야기하는 경우에도 작가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적게 제기되는 인상을 주고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90년대의 성격을 창조하자면 작가도 90년대의 작가로 되어야 한다는것이다. 작가의 준비정도는 90년대 이전에 머물러있는데 그에 대하여 90년대 성격을 창조하라고 아무리 요구해도 작품세계는 90년대의 높이에 도달할수 없는것이다.

현실에 대한 관점과 립장, 그 체험에서 생활을 보고 그리는 안목과 형상기교에서 작가는 응당 90년대의 높이에 올라서야 한다. 작가들은 90년대의 높이에서 90년대 독자들의 요구를 헤아려야 하며 90년대 독자들의 미감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놓고보면 90년대 인간성격창조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는데서 작가에게 있어서 보다 중요한것은 정치적 식견과 안목이다.

작가들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 정통하여야 하며 90년대에 들어와 당이 새롭게 제기하는 문제, 당이 해결하자고 하는 문제를 잘 알아야 한다. 그리고 당의 로선과 정책이 관철되고있는 현실을 잘 알아야 하며 일관성과 계승성을 가지는 우리 당 정책이 매 시기 어떻게 관철되어왔으며 90년대에 와서는 그것이 얼마나 높은 수준에서 어떻게 원만히 관철되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알아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못하고 그것이 관철되고있는 현실을 잘 모를 때, 90년대의 안목에 서지 못할 때 비록 작품에는 90년대 인간을 내세워도 결과는 90년대 인간성격의 미를 옹게 밝혀낼수 없는것이다.

광복거리건설을 내용으로 한 어느 한 소설의 초

고에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당의 배려로 외국에 가서 공부까지 하고은 한 기술자가 파오를 범하여 현장에서 일하면서 깨끗한 량심을 가지고 당을 위해 그 무엇인가 하려고 건설에 절실한 경량부재 해결을 위해 숨은 노력을 기울여오는 이야기가 그려져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자에 대하여 책임적인 일군은 그가 지식인이라는것, 파오를 범한 사람이라는것으로 하여 무턱대고 차별시하며 그의 창안자체를 무시해버리는것이다.

여기서 생각되는바가 있다. 그것은 지식인에 대한 그러한 립장과 태도가 단순히 한 일군의 사업방법이나 작품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오늘에 있어서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과 관련된 문제이기때문이다.

50년대나 60년대도 아니고 오늘에 이르러서도 지식인문제를 구태의연하게 다룬다면 거기에 무슨 시대정신이 있으며 이런 현상을 두고 어떻게 90년대 성격창조에 대하여 말할수 있겠는가.

간혹 일부 사람들속에서 그런 편협한 태도가 나타날수 있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것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와 갈등설정에서 공공연한 《틀》로 리용된다는것은 전형화의 원칙과 어긋나며 90년대 현실생활의 진실에도 맞지 않는다.

이것은 단적인 하나의 실례이지만 우리 작가들이 당정책적안목을 가지고 90년대의 시대적높이에서 생활과 인간을 보지 못한다면 90년대 인간성격창조는 물론 당정책도 정확히 반영할수 없다는것을 교훈으로 가르쳐주고있다.

작가들은 모든것을 보고 분석평가하며 형상으로 실현하는 경우 반드시 90년대의 높이에 서야 하며 90년대의 현실과 인간을 90년대의 시점에서 그려야 한다. 그래야 미세한것 같은 하나의 생활현상도, 성격의 발현도 이전시기보다 새로운 높이에서 심화발전되고 풍부화되어 훌륭히 형상될수 있다.

90년대 인간성격창조문제는 작가가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90년대의 안목을 가지는것과 함께 90년대의 시대적 요구와 지향을 체현한 미학적 높이에 설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있다.

사회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의식과 지능이 발전하며 시대와 함께 미감도 달라지는만큼 90년대 사람들의 문학예술에 대한 요구와 취미도 이전시기보다 새롭게 변화발전하는것이다.

이것은 작가들이 90년대의 현실과 인간을 그리면서 그 형상의 품위를 높이며 형상방법이나 수법도 90년대 사람들의 미감에 맞게 새롭게 탐구해나갈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작가들이 응당 해결해야 할 문제의 하나는 작품형상에서 지성도들 높이는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물론 형상수준을

높이는 문제와 밀접히 련결되어있다.

작품형상의 지성도는 인간성격의 지성적높이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담보하지만 이와 함께 묘사와 구성, 인간관계설정 등 작품을 이루는 모든 요소와 밀접히 련결되어있다. 이것은 결국 작품형상의 지성도를 해결하는 문제가 작가의 지성적높이에 달려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최근에 읽은 어느한 소설초고에는 한 인물은 당면 생산과제만 생각하면서 기술혁신이야 어찌되든 낡은 방법으로라도 매일매일 계획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다른 한 인물은 당면과제는 좀 지장을 받더라도 기술혁신을 하여 전반적으로는 생산을 현대화의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자는 주장인데 결국은 이 두 주장이 충돌하여 처음에는 두번째 사람의 주장이 수세에 빠지다가 나중에는 기술혁신이 성공하여 그의 주장이 옳았다는 내용이 반영되어있었다.

지금 적지 않은 작품들에서 도식화되다싶이되고 있는 이러한 인간관계와 사건조직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주어진 생활자체가 설득력이 약하며 우리 시대 인간들의 지성적높이와는 거리가 멀다는데 있다.

그 인물들로 말하면 큰 기업소의 책임자, 부책임자 격의 인물들인데 같은 생산문제를 놓고 그리도 극단적으로 의견이 대립되는것도 리해되지 않거니와 기술혁명의 시대에 기술혁신 그자체를 무턱대고 부정하는것도 도저히 리해가 가지 않는 처사이다. 때문에 독자들은 책을 읽으면서 이러한 실정에 부딪치는 첫 순간에 벌써 누가 정당하고 누가 부당한가를 알게 되며 소설의 결과를 가늠하게 되는데 억지로 읽고나면 그 예상이 틀림없이 맞아떨어지는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실례에 지나지 않는다. 형식은 달라도 이러루한 실례는 드문히 찾아볼수 있다.

예술은 미지의 세계에로의 탐색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는데 작품의 첫 시작에서 또 작품의 이러저러한 인물과 사건에서 독자들이 벌써 그 결과와 결론을 알게 된다는것은 예술로서는 실패한 작품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이것은 다른데도 원인이 있지만 중요하게는 작품이 지성도가 낮게 씌여졌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 경우에 우리는 흔히 작가의 미학적준비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 그 미학적준비란 결국 작가의 지성적높이와 떼를 없이 련결되어온것이다.

작가 자신의 지성이 낮고 미학적수준이 어릴 때 90년대의 의의있는 사변들을 형상하여도 그것은 독자들의 미학적수요를 충족시킬수 없다.

작가의 높은 지성세계에 의해서만 지성도가 높은 작품이 창작되며 그런 지성의 안반침이 있어야 작가와 작품의 개성도 살고 그런 작품은 90년대의 독자들을 만족시킬수 있다.

작가들은 90년대의 인간성격을 창조하면서 작품의 높은 지성세계와 함께 또한 속도감문제도 해결하여야 한다.

속도감은 형상의 감동성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작품은 속도감이 있어야 읽을맛이 있고 흥미도 보장된다. 물론 이 경우의 속도는 작품의 길을 넘두에 두고있다.

지적 및 미학적 수준이 날로 높아가는 오늘의 독자들은 속도에 대한 반응이 매우 민감하며 그 요구가 매우 높다.

우리는 지금 독자들속에서 장편실화소설 《탐구자의 한생》이 흥미있게 읽히고있는 사실을 알고있다. 그것은 이 소설이 이름있는 한 과학자의 한생을 실화로 흥미있게 서술한데도 있지만 이와 함께 작가가 실화소설형식의 특성을 살려 작품의 속도감을 박력있게 보장한것을 비롯하여 예술적경지에서 새로운 탐구적노력을 기울인데도 있다.

작가는 작품에서 주인공의 한생을 진지하게 서술하면서도 그것을 립체적으로 흥미있게 구성하였으며 사건과 세부형상의 단락과 련계를 명백히 지어주고 묘사의 농도도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재치있게 끌고나감으로써 속도감을 잘 살리었다.

그러나 우리의 일부 소설들에는 속도감이 부족하여 작품이 잘 읽히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단편소설은 단편소설대로, 장편소설은 장편소설대로 속도가 있어야겠으나 그렇지 못한것으로 하여 90년대의 인간성격창조문제가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해결되지 못하고있는것이다.

이런 소설들을 음미해보면 그 설정에서의 류사성

과 구태의연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또한 불필요한 사건과 세부묘사, 독자들의 상상에 맡겨도 충분한 것에 대한 설명적인 《묘사》, 대사의 랍발, 작가의 의도의 지나친 로출과 로파심에 의한 창조, 있으나 마나한 특색없는 자연현상과 정황에 대한 묘사 그리고 함축, 생략 등 예술적수법의 결여가 이모저모에서 나타나고있는것이다.

그리하여 단편소설은 신문지상이면 레외없이 한면이상, 잡지면 대여섯장이상씩 지면을 차지하기 마련이며 장편소설 역시 쓸데없이 처져 독자들에게 부담과 실망을 안겨주는 경우가 없지 않은것이다.

속도감에 대한 고려가 없이 씌여진 작품에서는 90년대 인간성격을 생동하게 감수할수 없으며 그런 작품은 90년대 독자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작가들은 90년대의 인간성격을 90년대의 독자들의 요구와 미감에 맞게 지성도가 높고 속도감이 있게 창조하는데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이것은 예술적측면에서 90년대 인간성격창조문제를 훌륭히 담보하는 효과적인 방도의 하나로 되는것이다.

90년대 인간성격창조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이밖에도 많은 미학실천적문제들이 제기되고 해명되어야 한다는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가운데서 생각되는 몇가지 문제를 대략적으로 서술하였다.

우리 작가들은 당의 령도밑에 희망의 년대, 투쟁의 년대인 90년대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90년대를 주체문학건설에서의 새로운 리정표로, 가장 높은 봉우리로 빛내이도록 신심과 각오와 열정을 가지고 훌륭한 창작적결실을 안아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레성강반의 봄

오피천

연백이 생겨 연백벌이 펼쳐져
처음 보았다는 대소한 추위에
영영 풀리지 않을듯
얼어붙었던 레성강 얼음장이

쨍-쨍-
이 아침 고고성을 울리며
서서히 갈라지고
그 사이로 파란 물이
하얀 얼음장을 싣고
물길따라 내려라

기다렸던 순간인가
《봄이다!》
얼어붙은 강에 첫 기둥을 박았던

소대장이 속삭였다
작공식의 그날을 추억하며...

《봄이다!》
련속식타입으로
첫 콘크리트언제를 세우던
그날의 그 숨결로
제일 먼저 눈여겨본
영웅분대장의 속삭임

아 《봄이다!》
《레성강반의 봄이다!》
대소한의 눈바람을 걷어내고
물오리들이 날아오르고
얼음장 내리는 물길을 따라

물새들이 떼지어 날아라

어디선가

연백벌의 새 물길 동쪽에 입힌

잔디에서 새싹이 숨쉬는 소리

버들개지 입술여는 소리

산기슭 바위벼랑에서

진달래 꽃망을 터치는 소리

아직도 씨뿌리는 봄은

눈덮인 산밭너머 멀리 있건만

90년대 대진군의 발걸음으로

얼어든 강물을 녹이고

새 물길을 펼쳐놓아

레성강반에 새봄을 안아온

영웅건설자들

아 《봄이다!》

《레성강반의 봄이다!》

온 나라가 바라본

통수식의 기쁨 안고 흘러갈 첫 봄물은

건설자들의 뜨거운 가슴에서

이렇게 세차게 굽이쳐왔어라!

락원의 주물공

홍창원

준엄한 시절

나의 할아버지 수류탄을 쥔던 곳

여기 락원의 주물직장

그날의 머리 흰 로당원들이 사는곳에서

오늘은 손자인 내가 주물공이 되어

첫 쇠물을 뽑는다

기총탄을 맞받아

시한탄을 안아내고

빈터우에서 첫 양수기를 만들던

그 근엄한 눈빛들이 나를 반긴다

폐허의 거리로 첫 기중기를 보내던

그 무쇠주먹의 제대군인 당원들이

말없이 나의 손을 잡아흔든다

내 한생의 명세를 담아

용선로의 쇠물을 뽑는 이 시각

불같은것이 치밀어오르고 짙 목이 메어

더는 바라볼수조차 없음이여!

아, 말없이

나의 손을 잡아 축하해주는 열명 당원들

저 눈빛들속에서 높이 올렸구나

천리 불비속을 헤쳐 오신 수령님께

가슴을 올리던 그날의 명세가...

정녕 보배같은

이 손들이, 이 손들이 받들어 올렸구나

시련의 그날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을...

떠나간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나의 응석과 어리광을 다 받기에

주름살 더욱 깊어진 이 사람들과

어린 주물공인 내가 한대오에 선단말인가?...

행복하여라

이런 사람들이 내 걸어갈 먼 길에

언제나 가장 가까운곳에 있음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내 레사로온 날에도 주물공이란 말로

공기마시듯 뜨거운 사랑을 받고 살게 됨이...

하기에

가만히 불리보면

평범한 말 주물공!

허나 주물공이란, 진정 주물공이란

하나의 피줄로 우리 심장 이어주고

우리모두를 생사를 같이하는 전사로

떨어져 살수 없는 형제로 되게 하는

위대한 말이구나!

아, 주물공!

내 만약 순간이라도

열명 당원들의 그 의리 저버린다면

더는 응석으로 받아주지 마시라

영원히 이 대오에서 용서치 마시라

당이 준 가장 큰 표창으로

우리 당을 받들어가는 영원한 맹세로

가슴깊이 받아안았노라!
아, 나는 주물공!

자력갱생의 대를 잇는
락원의 주물공!

나는 본다

박 철

앞장을 두드리는 착암기소리가
가락맞게 울리는 막장휴게실
나는 한 굴진소대장과 마주앉았다
한달계획을 열흘에 끝낸
그 나날의 이야기를 듣는다

깊은 회억이 어린 어글어글한 눈
두툼한 입술새에
소리내며 타들어가는 담배불
이야기보다 먼저
그 험치 않았던 전투가 얼굴에 비낀다

지금은 궁룡식 쇠동발이
든든히 천반을 받든곳
저기란다 터져나온 수천립방의 물
휘여든 쇠동발
전진의 발걸음 막아나섰던 봉락구간이

이야기를 따라
나의 온몸은 사암층하늘의 비에 젖고
이야기따라 나의 심장
막장에 차넘치던
그날의 숨결로 골짜친다

열흘에! 열흘에!
성목을 쌓아올리며 부르짖던 그 웨침
우르렁거리는 물줄기를 휘여잡고
탈수갱으로 이끌며 타번지는 그 눈빛

무엇이던가 한달에도 가기 힘든 길을
스스로 열흘길로 정해놓고
넋을 불태우며
심장을 불태우며
위훈의 크나큰 자욱을 찍어온것은

그는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사는것이 탄부라는듯
당의 탄부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산다는듯...
막장끝에선 이 시각도 진동하는 착암기소리

아 이 나라의 이름없는 한 탄부가
당을 받들어 지닌 진정의 높이여
시대를 떠받든 동발마냥
그 믿음에 넘치는 어깨너머로
나에겐 보여온다
조국의 하늘이 들리게 솟아오르는 석탄산이

혈맥은 가를수 없다

-공화국을 방문한 황석영과 지낸 나날을 돌이켜보며-

최승철

상봉의 의미

1989년 봄에 이미 평양을 방문한바 있는 남조선 작가 황석영은 작년 8월에 다시금 이곳을 찾아 조국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에서 남측대표로 맹활약을 하여 그 친근한 인상을 극적으로 굳힌셈이다. 자주통일을 토로한 그의 연설들과 구호며 목갈리게 부른 노래들은 온 겨레의 심금을 울렸다.

황석영은 자신이 시대의 엄청난 과제앞에 서게 되고 그 일에 제한물을 바치게 된것이 행복이라고 하였다. 그러기에 공화국북반부 인민들은 그를 친혈육처럼 품어주었고 세월이 흘러가도 색조가 바랄수 없는 뜨거운 사랑을 안겨주었다.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대답은 크게 두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작가 황석영이 곡절많은 삶을 개척해온 과정에 자기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이 가를수 없는 하나임을 터득한 점이다. 다른 하나는 그가 이미 그전해 봄에 이곳을 방문하여 북반부사회가 이룩한 다방면의 기적적인 성과들을 몸으로 체험한 점이다. 그것은 회고할 가치가 있다.

1989년에 남반부작가 황석영선생이 엄혹한 분단 상황에서 공화국을 다녀간것은 누구에게나 잊혀질수 없는 애국적인 장거였다. 우리는 북과 남의 작가들과 인민들의 자주통일운동에 도움이 되기를 믿어 그 방문의 의미와 성과가 어떤것이였는가를 돌이켜보기로 했다.

나는 문예총의 위임에 따라 황석영선생이 북반부에 머무는 기간 같은 작가로서 그의 활동을 도와주며 안내하였다. 남조선의 이름난 작가와 깊이 사귄수 있었던것은 남다른 즐거움이였으나 성실히 대하려는 마음 하나뿐이어서 여러모로 미흡한 점이 많았으리라고 본다.

황석영은 제작년 3월 20일에 평양에 도착했다.

뒤에 그에게서 들은바에 의하면 진작 공화국을 방문할 용단을 내린 그는 서울로부터 일본의 도쿄를 거쳐 다시 공로로 중국의 베이징으로 갔다가 거기서 평양행 려객기에 오른것이였다. 제나라 북녘 땅을 찾아오는데도 다른 나라들에 들려 번거로운 입출국수속을 밟고 바다와 대륙을 에돌아와야 했던 것이다. 그 먼 우회로의 길이는 그대로 분단의 엄혹

성과 그 상처의 깊이를 재여보고있었다.

문예총의 백인준위원장과 함께 평양비행장에 나가 손님을 기다리는 나의 심정은 매우 착잡했다. 무엇보다도 손님에 대해서 아는것이 너무도 적었다. 전후에 공화국을 방문하는 남조선작가는 황석영이 첫사람이였다. 내가 아는것이란 그가 얼마전에 서울에서 조직된 남조선의 진보적문예인단체인 《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의 중요 발기자였고 그 조직의 대변인이며 소설 《객지》와 대하 장편소설 《장길산》 등으로 사회의 주목을 모은 무계있는 작가라는 정도였다. 그밖에는 그의 리념이나 경력도, 작가로서의 개성적특성에 대해서도 아는것이 별로 없었다. 뿐더러 나는 지난해부터 써오던 긴 소설을 마무리하는 일에 골몰하다가 갑자기 이 일에 동원되고보니 마음의 갖춤새도 엉성했다.

하지만 손님이 좋은분일것이라고 무턱 믿고싶었다. 훌륭한 소설을 쓴 작가는 훌륭한 인간일것이다. 더구나 분단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북반부방문을 결행한 사람이 아닌가. 나는 수많은 친척, 친구들과의 감격적인 상봉의 체험을 갖고있지만 이날처럼 숱스러운 소년시절로 돌아가 목이 마르도록 흥분한 적은 없었다.

마침내 려객기가 착륙했다. 비행기에서 나중무렵에 내리는 손님들가운데 연회색 코트차림에 하관이 부하고 기름한 얼굴이 가무늬한 감성적인 인상의 중년남자가 있었다. 그는 심한 흥분때문인지 표정이 풀어져있었다. 나는 그의 가느스름한 눈이 부엌에 흐려진것을 보고 바로 저사람이구나 하고 단정했다.

백인준위원장과 나는 번갈아 황석영선생을 포옹했다. 훌륭한 인사말을 하고싶었으나 그것이 되지 않았다. 속이 끓어서 정작 입밖에 낸것은 목이 잠겨 발음도 분명치 않은 언어의 부스러기뿐이였다. 말도 열에 녹는것일가, 그럼던 가슴들이 하나로 융합된 이 순간엔 뜨거운 열기와 눈물이 언어이상의것을 웨치고있었다. 주인도 손님도 팔에 힘을 모아 서로 안아조이며 상대의 내부에 뚫고 들어가는 내기를 하는것만 같았다. 포옹이라기보다는 정과 정의 격렬한 부딪침이였다.

우리는 심장이 하나로 융합되어 고동치는 소리와

함께 서로의 몸속에 끓는 처절한 피의 노래에 취해있었다. 그것은 유구한 세월 비단의 날실과 씨실처럼 촘촘히 엮힌 우리 민족이 몸으로 엮어온 유구한 민족사의 부르짖음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가늠할 수 없는 한몸이었다. 그 순간엔 분단의 고통도 설음도 있었다.

포옹에서 풀려나 다소 진정되었을 때 백인준위원장이 말했다.

《황선생, 이게 얼마만입니까. 힘든 걸음이였겠지 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만난자체가 얼마나 강한 응변입니까.》

황석영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간간히 닦고나서 말했다.

《뚝만 같습니다. 술한 남<한>친구들이 함께 온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만나고보니 갈라져 살았다는 사실이 거짓말같군요.》

그는 웃음짓고 나의 얼굴을 새삼 눈여겨보며 말을 이었다.

《최선생은 남쪽에 있는 저의 선배인 시인 문병란과 모습이 신통히도 비슷하네요. 그때문일가요, 초면인데도 이전에 자주 만났던것만 같습니다.》

나 역시 같은 심정으로 선이 잔잔하면서도 표정이 짙은 그의 얼굴을 눈여겨보았다. 전혀 초면같지 않았다. 그는 같은 창작실에서 창작을 놓고 토론도 많이 하고 저녁이면 이따금 술도 함께 마신 막역한 친구로서 어젠가 지방에 몇달간 취재출장을 나갔다가 돌아온것만 같았다.

나는 대답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린 날 때부터 구면인지도 모릅니다. 한겨레 아닙니까. 피줄이 엮혔으니 얼마나 자주 만났겠습니까.》

황석영의 얼굴에 생각에 젖은 미소가 흘렀다.

우리가 나눈 대화는 덕담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가 속한 민족에 비추어보면 개인들의 차이는 민족을 이루는 세부의 다양성일수는 있어도 서로가 무관계한 남일수는 없다.

흔히 체험하는 일이지만 외국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는 상대의 모습에서 자기와는 다른 점을 먼저 찾아보게 되지만 동족끼리 처음 만났을 때는 상대가 개성이 아무리 류별난 사람인 경우에도 저도 몰래 자기와의 공통점부터 찾아보게 되는것도 그때문 일것이다.

개성적인 작가 황석영과는 초면이었으나 동시에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한나무에 열린 같은 열매임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반도의 토양이 다듬어낸 얼굴의 유순한 류형도, 언어도, 머리칼의 빛깔과 눈매까지 우리와 다른없는 이 귀빈은 너무도 명백한 민족적인 동질성을 확인하려고 생사를 거는 일대 모험을 단행한것이다.

동족이면서 겨레들의 동질성과 사랑의 뉴대를 확인하려고 일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온 이 사실, 그리고 그것이 영웅적인 장기로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는 이 사실, 여기에는 외세로 하여 분단된 민족이 마흔다섯해나 겪는 참을길 없는 아픔과 비극이 깔려있었다. 그리하여 언어예술가들인 우리는 할말도 미처 찾지 못한채 넘어지면 아파서 우는 아이들처럼 눈물을 짰던것이다.

비바람속에 키운 날개

우리는 황석영선생의 숙소를 평양의 한 작가초대소에 정했다. 작가인 그에게는 번잡한 호텔보다는 그편이 나으리라 고 여겨졌다. 도심지대에서 가까운 이 작가초대소는 조용하고 공기가 싱그러운 소나무숲속에 있다. 침실이 달린 여러개의 알뜰한 집필실들과 피아노가 놓인 휴게실을 겸한 너털청한 영사실, 당구대를 비롯한 여러종의 운동기구가 갖추어진 오락실, 넓은 주방과 식당들로 이루어진 꽤 큰 집이다. 넓은 정원에는 화단이며 자그마한 인공의 돌산, 꽃나무들이 배치되어있다.

그새 이곳에서 지내던 많지 않은 작가들은 작품을 완성하고 집으로 돌아갔거나 생산현장으로 취재하러 나간 때여서 귀빈을 모시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황석영은 제일 좋은 방이 차례져서 흡족해하는 눈치였다. 나는 그의 열방에 들었다.

황석영의 평양생활은 그를 위한 환영연회며 문학예술계 일군들의 떠들썩한 방문으로 시작되었다. 방문자들은 누구나 손님을 형제적인 사랑으로 반겼다. 남조선에서 온 손님이 정치인이나 기업가가 아니라 작가라는 사실이 무척 매력인듯했다. 작가는 독특한 개성으로 하여 독자성이 강하지만 창작으로 사회와 시대를 폭넓게 표출한다는 점에서는 사회생활의 복합적인 얼굴이기도 하다. 이래저래 손님이 그냥 뚫어서 그는 손이 부를를 지경이었다. 게다가 피차간에 궁금한것이 많고 다채로운 이야기가 청산류수여서 도끼자루 썩는줄을 모를 지경이었다.

그렇다고 하여 이야기에만 팔려있을수는 없었다. 생활은 여러갈래로 흘렀다. 황석영은 구경하는 일에 욕심이 많아서 낮시간에는 매일 평양 시내를 비롯한 공화국북반부의 많은 명소들을 돌아보느라고 분주했다. 하지만 저녁식사후에는 폭신한 쏘파에 몸을 묻고 밤길도록 시간을 후하게 쓰면서 여러가지 이야기에 취할수 있었다. 그럴 때면 그의 참관일

정을 보살펴주는 동무들도 끼여들어 룡담을 주고받으며 즐기기도 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보니 황석영의 인간상이 립체적으로 꽤 뚜렷하게 그려졌다. 그에게서 들은 인생경로를 살펴보면 그 역시 민족분단으로 고향을 잃은 사람이었고 그 때문에 통일열의가 각별했음을 알 수 있었다.

《황선생은 중국 동북지방태생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서글픈 추억거리가 많겠군요.》

내가 이렇게 말을 붙이면 그는 담배연기를 길게 들이그으며 말했다.

《나긴 일정말기에 중국 장춘에서 났지만 내 경우는 난곳과 고향을 갈라보고싶어요. 나는 걸음마도 타기전에 어머니의 등에 업혀 조선에 나와 평양모란봉밑에 있던 기림리에서 네살때까지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이 평양이었거든요. 게다가 나도 어린 시절의 한토막을 평양에 남겼으니 이 도시가 나의 고향입니다.》

해방이 되자 황석영은 어머니를 따라 38선을 넘어 서울의 영등포로 옮겨갔다고 한다. 아버지가 그곳 전기회사에 취직을 하고있었던것이다. 그랬으나 어머니는 친척도 없고 생소한 서울이 마음에 붙지 않아 아버지더러 평양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매일 같이 졸랐다고 한다.

《황선생은 네살때에 평양을 떠났으니 기억에 남은것은 별로 없겠군요. 너무 어린 때였으니까.》

나의 물음에 그는 생각에 잠기며 이야기에 서정을 풍겼다.

《물론 코흘리개시절의 체험이었으니까 많은걸 까먹었지요. 하지만 애뜻이 기억하고있는것도 적진 않아요. 아스무레하게 흐려졌던것도 어머니의 추억담으로 색깔이 입혀져서 뚜렷해진거지요. 넓은 세상으로 아이를 유혹하던 기림리의 전차소리도 귀에 남아있습니다. 전차소리도 귀에 남아있습니다. 저녁이면 이모의 손을 잡고 전차정류소에 가서 직장에서 퇴근하는 엄마를 기다려 만나 과자며 락화생을 받아먹는것이 왜 그렇게도 기뻐던지. 더운 계절엔 어른들에게 이끌려 모란봉에 자주 올라가 봤어요. 꽃이 많은 그 푸르른 숲길, 그림책에서 본 보물나라의 성문같은 칠성문과 울밀대... 다 기억에 선명해요. 그런 추억의 단편들은 나만이 간직한 별무리였다고 할가요.》

그러나 그들 가족은 그리운곳으로 돌아갈수 없었다. 인차 없어질것으로 허술히 보았던 38선이 어느새 넘을수 없는 죽음의 계선으로 변했던것이다.

어쩔수 없이 서울에 남게 된 그들은 정착민의 안정을 찾을수 없었는데 그것은 어린 황석영에게까지 실향민의 설움을 주었고 그 설움은 후일에 조국통일에 대한 열의로 승화되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번의 그의 평양방문은 장장 43년만에 이루어진 오랜 꿈의 실현이었다.

우리는 그가 살았던 기림리일대를 함께 돌아보았

는데 온통 천지개벽이어서 황석영은 매우 놀라는 눈치였다. 거기에는 옛날에 살았던 기와집도, 석란먼지에 덮어진 길도, 유구한 력사의 잔영이 어려있던 고색질은 기와집마을도, 옛날의 전차정류소도 없었다. 그 일대에는 덩지가 어마어마하게 큰 고층건물들이 눈길에 모자라게 빼곡이 솟아있었다. 시원하게 열린 대통로들에는 새시대 사람들이 끝없이 흐르고있었다.

옷차림이 현란한 한때의 유치원 조무래기들이 줄지어 건능길목에 이르고있었다. 차량들이 멈춰서며 길을 터주자 아이들은 목청껏 노래를 부르며 큰길을 건너가고있었다. 그 하나의 풍경에도 새 도시의 미소가 어려있었다. 세월도, 세상도, 마을풍경도 온통 바뀌어서 손님에게는 추억이 발붙일 매개물 하나도 찾기 어려웠다.

나는 황석영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으나 그는 사라진 옛집을 아쉬워하거나 감상에 잠기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새 생활의 장엄한 정경앞에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황석영은 모란봉에서 자기의 옛자취를 찾아냈다. 경사가 느린 모란봉의 둘레단을 오르던 그는 저바루 솟아있는 칠성문을 알아보고 한순간 생각을 굴리더니 계단길이 꺾인 지점을 손으로 가리키며 환성을 올렸다.

《아, 생각난다, 저기구나, 저기! 저 돌이 아직도 그대로 있구나!》

그곳으로 달려간 그는 목은 잔디에 뿌리를 묻은 자그마한 바위앞에 무릎을 박고 그 바위를 쓰다듬으며 기뻐서 어쩔줄 몰라했다.

그는 젖은 얼굴을 들고 웃으며 말했다.

《바로 이 돌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모란봉으로 오를 때면 늘 여기서 숨을 돌리며 쉬곤했어요. 많은것이 흐려지고 잊혀졌지만 이 돌은 세월의 시공속에 비둘처럼 남아 코흘리개시절을 지켜주었던걸요.》

사진사는 놓치지 않고 사진기를 내댔다. 칠성문과 울밀대 역시 황석영의 추억의 장소였다.

평양에서의 그의 어린 시절을 돌구어준것은 친척들과의 상봉이었다. 그에게는 아버지편으로는 남아있는 친척이 없는듯했다. 우리는 황석영과 함께 신천군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고향에까지 찾아가 보았으나 섭섭하게도 친척이라고는 아무도 없었다. 그곳 군간부들의 말이 지난 전쟁시기에 고향 온천면에서만도 수천명의 남녀로소가 미국놈들과 그의 앞잡이들에게 학살당한데다가 적들의 계속된 폭격으로 온 마을이 부서지고 불타버렸다고 했다.

황석영은 아버지가 외아들이어서 가까운 친척은 있을수 없어도 촌수가 먼 친척은 더러 남아있을줄 알았다. 그러나 그 바램도 헛된것이였다.

언제나 쾌활하던 그는 눈빛이 어두워지고 서있을 기운도 없는듯 쪼그리고 앉아 한숨만 토했다. 침략자들로 하여 겪는 민족적인 참변이 그자신이 겪는

아픔으로 예각화되어 가슴에 박혀온것이리라. 그는 허거프게 웃으며 말했다.

《제3자란 있을수 없지... 나도 피살자유가족인 걸...》

그에게는 요행 외가편 친척들이 살아있었다. 고려호텔에서 이루어진 이모님과 그편 친척들과의 만남은 자못 감격스러운것이였다. 이모네는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살고있었는데 공화국의 해당 기관에서는 여러날만에야 겨우 그들을 찾아낼수 있었다. 그렇게 된것은 이모는 황석영의 어린 시절의 이름만 알고있었는데 찾는 일을 맡은 기관일군들은 황석영의 아명을 몰랐던탓이였다.

젊은 시절에 꽤 미인이였다는 이모는 나이가 꽤 많은데도 아직 살갗이 반드럽고 얼굴과 눈매가 단아했다. 황석영이 호텔방에서 친척들과 첫 상봉을 할 때 외과질환으로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이모는 소파에서 엉거주춤히 일어났다가 주저앉으며 《임자가 정말 수남인가?》하고 목멘 소리를 했다.

40여년만에 처음으로 수남이라는 아명을 들은 황석영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 이모님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렸다.

한동안 감탄과 반기는 말들이 오간 뒤에 이모가 손수건으로 젖은 눈을 닦으며 말했다.

《네 모습이 어쩔 그렇게도 달라졌니. 아이적엔 곱돌처럼 매끈하고 꽃처럼 곱던 네 얼굴이 이렇게도 거칠어졌다구야. 통일을 하느라 고생한다더니 눈매까지 몰라보게 넓어졌구나...》

이모는 우수에 잠겨 찢찢 혀를 찼다.

모두들 식사가 차려진 방으로 옮겨갈 때 내가 황석영에게 속삭였다.

《내보기엔 황선생 얼굴이 신랑처럼 밝은데... 하긴 겨우 네살이던 아이가 갑자기 40여년의 세월을 메여다 동맹일 쳤었으니 이모님이야 무서울수밖에. 역시 분단의 아픔이군요.》

황석영은 나의 손목을 꼭 쥐며 말했다.

《그렇군. 분단의 아픔! 이모님에겐 내가 긴 세월을 터무니없이 비약하고, 아이적모습도 거부한, 전혀 판사람으로만 보이실테지. 네살먹은 아이가 갑자기 어른이 된것, 한사람이 둘로 갈라져 나타난것, 이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니까. 꼭 작품으로 써야겠어.》

황석영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에서의 그의 어린 시절은 명랑한것이 못되였다.

아버지가 오랜 폐병으로 집안살림을 맡리우던 끝에 세상을 뜨고보니 모든 부담이 어머니의 섬약한 팔목에 얹어지게 되였다. 소년은 학교에 다니는 일방 신문팔이, 담배팔이로 헤매야 했다. 소란한 시장바닥에서 약장수들의 무릎앞에 턱을 고이고 앉아 그들이 경쟁적으로 구사하는 광고의 마술에 정신을 빼앗기기도 했다. 그바람에 담배와 목관까지 날치기군들에게 들치워 어머니를 울린적도 있었다. 그는 고등학교시절에 벌써 작품을 내어 작가들의 칭

찬을 모았으나 생활은 그를 학생투쟁의 길로 밀어붙였다.

황석영의 회고담에 의하면 그의 의식장성에는 몇개의 단계가 있었다고 하는데 4.19항쟁과 그자신이 대학재학중에 《국방군》에 징집되어 남부웰남의 다랑지역에 끌려가서 체험했던 웰남민민의 반미전쟁, 서울의 최하층 노동자인 전태일의 분신자살사건, 영웅적인 광주시민봉기는 그를 각성시키고 성숙시킨 중요한 계기들이였다.

생활의 격류속에서 인생관을 부지런히 다듬어온 황석영은 시대를 그려내는 작가이기에 앞서 압제에 저항하는 민중의 한사람이였다.

그는 고등학교시절에 벌써 투쟁에 참가했다는 리유로 학교에서 쫓겨났다고 한다. 울분을 주체할길 없어 집에서 무작정 뛰쳐나간 소년은 거지행색으로 전라도와 경상도 각지를 정처없이 방랑하면서 밑비닥 인생들의 참상을 뼈저리게 체험했다. 후에는 대학도 다니고 동서양의 지성사도 쟁여넣었지만 직장같은것은 넘볼 흥미도 없었다.

그의 생활은 민중을 깨우치고 떠밀어주는 여러가지 노력과 투쟁으로 점철된다. 농민학교와 노동자들을 위한 야학을 운영하기도 했으며 마당굿, 통일굿 등의 문화소조를 만들어 이끌기도 했다.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민중문화운동협의회》, 《민족예술인총연합》 등의 진보적문화예술단체들의 조직과 운영에도 앞장서왔다.

그 과정에 여러 세대의 대중투쟁의 기수들과 사귄수 있었고 김지하, 고은, 김남주, 백락청, 염무웅을 비롯한 뜻이 높은 많은 문인재사들과도 깊이 열크려졌다.

경찰들에게 가택수색을 당하거나 탄압을 피해 숨어다닌적도 여러번이였다고 한다.

황석영은 말했다.

《〈유신체제〉 말기에도 지명수배를 받고 멀찍이 도망쳤지요. 헌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어찌나 철저히 숨었던지 독재자 박정희가 부하의 총탄에 죽은줄도 감감 모르고있었지 뭇니까. 벼랑굴이에서 책을 읽고있는데 잠자리를 정하고있는 집 아이눔이 정신없이 달려오더니 팔딱팔딱 뛰면서 하는 말이 방금 텔레비를 틀어보니 박정희가 죽은 장면이 나온다나요. 그러면서 빨리 가보자고 그냥 독촉이지요.》

난 그 말을 도저히 믿을수 없어서 〈이눔, 내가 누군줄 아느냐. 그때위 거짓말에 속히울줄 아느냐, 양? 집안 망치고싶지 않거들랑 입 다물었!〉 하고 오히려 된욕설을 퍼부었지요.

그런데 아이의 눈치가 아무래도 수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슬금슬금 따라가서 텔레비전을 보았더니 이거 진짜가 아닙니까! 난 당장 새 세상이 열릴것 같은 기대에 동 떠서 그 길로 친구들을 찾아서 서울로 달려갔어요.》

그는 류치장살이도 스무나문번이나 겪었는데 동

지들이 벌린 석방운동에 힘입어 매년 인차 풀려나 군했다. 그의 말이 그렇게 잠깐씩 자주 류치장살이를 거듭하는것을 탕녀들의 흥등가출입에 비유하여 우스개말로 《갈보징역》이라고 부르는데 자기는 급수가 꽤 높은 《갈보징역》의 선수인셈이라고 하면서 호탕하게 웃어보이기도 했다.

황석영은 남조선의 절대다수의 민중은 누구에게 죄를 진 일도 없는데 저주받은 존재처럼 죽도록 고생만 겪고있는데 그 주되는 원인들중의 하나가 외세에 의해 나라가 갈라진때문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불행이야 천태만상이지요. 그렇지만 어떤 불행도 한껏데기만 벗겨보면 그속엔 분단의 상처가 불도장처럼 찍혀있지요. 갈라진 민족이야 불구아닙니까. 그러니 그 민족의 성원인 남쪽백성들이 어떻게 온전한 인생을 살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동일입니다. 이번에 북에 와보니 민족의 넓이 왕성히 살아있는것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정말 신심이 생겨요. 동일만 하면 만병이 치료되고 세상에 무서울것이 없겠다는 신심이 생기는군요.》

민중의 얼굴인 작가

황석영은 나나 다른 사회단체 일꾼이나 누구를 만나건 그의 고유한 개성적특징과 함께 공화국의 사회풍토가 이루어놓은 그들의 공통적인 면모가 무엇인가를 알고싶어했다. 작가이니 그럴수밖에 없다. 뿐더러 그는 남에서 온 동일한 사절이니 겨레들의 진면모속에서 민족적인 동질성을 확인해야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관심은 손님을 대하는 주인들쪽에서도 배외일수 없다. 우리 역시 작가 황석영에게서 그의 독특한 면과 함께 남조선의 진보적인 작가 일반의 경향적인 자태를 알고싶었고 나아가서는 남조선민중의 보편적인 가치관과 인생관을 투시하고싶었다.

작가와 그를 배출한 사회를 알려면 그 작가의 작품들을 잘 아는것이 첩경이다. 그런데 나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황석영문학에 대해서는 알고있는것이 많지 못해서 여간 난처하지 않았다. 그의 대작인 《장길산》은 이전에 대여섯권 읽었지만 다른 소설들은 거의 읽지 못했다. 그런데 황석영은 요행 나에게 자기의 중편들과 단편들을 묶은 작품집 《객지》를 선물했다.

나는 황석영이 잠든 뒤면 그의 소설집을 부지런히 읽었다. 덕분에 그의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할수 있는 밑천을 다소 마련할수 있었다.

국내외에 많은 독자를 갖고있는 황석영의 문학은 그의 적극적이고 투쟁적인 인생살이의 결과들이었다.

그의 작품계열에서 무게있는 력작들은 빼외없이

격동하는 정세에 비추어 운동권이나 민중에게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수 없는 가장 절실한 그 무엇들 담은것들이었다. 불평이명이라 할가, 세상의 부정의에 속이 울근거려 터져나온 소리였다.

《순수》를 자랑하면서도 전혀 순수하지 못하여 역겨운 냄새를 부단히 풍기는 예술지상주의자들이 권력자들에게 미래를 부리며 소시민적세태나 형이상학적인 관념의 동굴에 집착할 때 진보적문인들은 사회의 모순이 뒤엉켜 끓는 생활의 현장에 몸을 던졌다.

1971년에 《창작과 비평》지에 발표된 황석영의 중편소설 《객지》는 작가가 최하층 노동자들의 노동현장에 뛰어들어 그들의 생활을 몸으로 익혀가면서 쓴 문제작이다.

소설에는 간석지공사에서 고역에 시달리는 날품팔이 인부들의 참혹한 군상이 펼쳐진다. 그들은 더는 견딜수 없는 극한상황에 이르러 파업에 돌입하지만 업주측은 간혹한 기만술과 경찰부대의 힘으로 인부들을 분렬시켜 파업을 파탄시킨다.

업주들의 눈에는 노동자란 얼굴과 개성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무기물같은 자연이며 고작해야 번호가 붙은 생산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사채에서 모여온 노동자, 품팔이군들은 다소라도 처지를 개선하려고 몸을 깨며 저항했으나 의식화수준이 낮은 그들은 성난 소가 매인 말뚝에 치이는 꼴이 된다. 그들은 넓은 천지에 매달려 볼곳 하나 없는 철저히 소외된 수난자들인것이다.

작가는 주제를 밑으로 깔고 뒤흔친 묘사로 현장의 진실을 화쪽으로 펼쳐놓았을뿐이다. 그러나 이 화쪽은 스스로 우렁찬 소리를 내고있다. 그것은 노동하는 인간을 짓밟는 착취자, 억압자에 대한 고발이며 사회의 진보를 바라는 사람은 누구나 력사창조의 주역인 근로자부대를 의식화, 조직화하여 그들의 삶을 개척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는 통절한 웨침이다.

시인 김지하는 풍자시 《5적》으로 세상을 망친 상층의 매국노들을 매섭게 후려댔다면 소설가 황석영은 《객지》로 사회의 밑바닥에 묻혀있던 민중을 세상의 눈앞에 이끌고나와 모든 동시대인들의 사명을 새롭게 깨우친것이다.

10편의 장편본책들로 이루어진 대하력사소설 《장길산》은 황석영문학에서 가장 큰자리를 차지하는 력작이다.

이 소설은 조선봉건왕조 후기인 숙종년간에 실행했던 비천한 광대출신의 의협심이 강하고 무술에 능했던 장길산과 그의 맹우들이 봉건적계위질서와 극심한 수탈정책으로 백성들을 죽을 고비에 몰아넣은 통치배들을 농민폭동으로 치받아 타격하는 과정을 거대한 력사화로 펼쳐보이고있다. 소설에는 광

대들과 농민, 공인들을 비롯한 여러 천민계층의 삶의 애환과 다종다양한 풍속도가 들어있는가 하면 백성들의 피눈물우에 환락을 누리는 압제자들의 도덕적타락상이 펼쳐지며, 혹은 간계와 모략에, 혹은 사형장이나 피방을 뛰는 격전장들에서 죽어가는 무수한 인물들의 곡절많은 운명선들이 숨막히게 교차된다.

나는 작가에게 이 력사소설을 쓰게 된 동기를 물어보았다.

《뭘 동기래야 특별한건 없었어요. 나는 농민들을 딱 좋아하는데 시골에 몸을 잠그고보니 그들의 억울한 처지가 왜 그렇게도 아픈니까. 대대로 짓눌리고 뜯기우면서도 인습의 사슬에 매워 저항할줄 모르는것이 안타깝더군요. 타고난 팔자란 없으니 참 인생이란 앞길을 개척하는 싸움이란걸 알려주고싶었습니다. 그래서 력사를 꺾다가 감히 한소리 웨쳐본건데...》

참인생이란 앞길을 개척하는 싸움이라는것을 웨치고싶었다는 이 말은 이 력사소설의 현대적의미를 집중적으로 표현하고있다.

작가의 말에 의하면 서울의 한 도서관(규장각)에는 5백년간에 걸친 조선봉건왕조의 력대정부의 의금부(의금부-왕의 명령에 따라 정계와 사회계의 각종 죄인을 심문하는 일을 맡아보던 관공서)가 남긴 방대한 기록이 비장되어있었다는것이 알려져서 근년에 사학자들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고 한다. 그중에 장길산에 관한 많지 못한 자료가 들어있었는데 작가는 그 자료에 기초하여 그우에 그 당시 사회의 지리, 풍토지, 사회생활 각 방면에 관한 폭넓은 탐구를 쌓아가면서 버드나무가지처럼 갈래가 많은 대하소설의 사건과 인물운명선들을 펴나갔다.

그는 소설의 많은 부분을 전라도 농민들속에서 살면서 써나갔는데 농민들의 방조와 격려가 많았다고 한다. 소설은 씌여지는 족족 신문에 런재되고있었는데 농민들은 부정인물을 빨리 통쾌하게 죽여달라고 강경히 청해서 작가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다. 작가는 그 시대의 사회력량관계를 고려하여 어떤 부정인물들은 그냥 살려두고있었는데 그런 장면을 읽은 농민들은 《선상님, 이거 와 우리 속을 바작바작 태우기만 하는거입니까. 아 그 구미여호같은놈을 아즉 살려두다니, 도리깡이로 그저 해삼탕되도록 얼른 때리죽이얏니더!》 하면서 작가를 들볶기도 했다.

황석영은 소설의 뒤부분을 쓸 때에 있는 이런 일화도 들려주었다.

황석영의 후배들은 그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번거로워 글을 쓸 시간을 얻기 힘들어하자 지리산초입지대의 한 골짜기에 있는 《호국사》라는 조용한 절에 그의 집필장소를 옮겨주었다. 그는 절의 여러

개의 방들가운데 맨 구석방에 책짐을 풀었다.

그런데 이른새벽에 오줌누러 밖으로 나오다가 아차 실수로 넘어지면서 그만 다리뼈가 부러졌다. 병랑하기 짝이 없었다. 왕년에 태권도의 멋까지 익힌 다리가 무슨 꼴인가. 주지가 달려와서 구완해주었다.

주지는 작가와 겸상을 하여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선생님도 귀신한테 씌인겁니다. 이 터가 워낙 무서운곳이여. 지리산유격대가 담양을 점령하려고 이 근방서 전투경찰대와 20여회나 골육전을 벌렸지요. 쌍방간에 술한 시체가 널리고 정말 피바다였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경찰대 원혼들을 위로하느라 이 절을 짓고 이름도 〈호국사〉라 붙인거 아니니까.

나도 그때 상사견장 달고 싸움에 끌려나왔지요. 그래서 잘 아는데 이 절터는 토벌대의 전호자리라구요. 난 그후 인생무상을 깨닫고 마흔에 중이 되어 이 절에 들어왔는데, 참 기이한 일이지요. 나역시 입산 첫날밤에 넘어져서 한쪽다리가 부러졌지 뭐니까.》

황석영은 주지의 말을 전하고나서 흥미있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날밤에 나는 밤새도록 악몽에 시달렸어요. 몸은 이상한 공포에 후들후들 떨리는데 커다란 문이 쉬지근한 악취를 풍기며 열리더니 배추머리에 해골같이 여윈 수많은 청년들이 제발 밥 좀 달라고 연신 어꾸러지며 하소연을 하는겁니다. 그 밥달라는 소리가 하늘땅에 짹 차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은 유격대원들이였습니다. 깨어나보니 꿈이지요.

그런데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똑같은 악몽이거든요. 그러니 기력이 싹 빠져 글도 못쓰겠데요.

절에는 밥짓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의 말이 자기도 늘 밥달라는 유령들에게 시달리는 악몽때문에 혼났다는군요. 그래 건디다못해 큰 양푼에 밥을 가득히 담아들고 나가 수습개 숟가락으로 번갈아 밥을 떠뿌리며 고시례를 했더니 그런 꿈이 싹 없어지더라나요. 그 할머니는 나를 위해서도 많은 밥을 산에 이리저리 뿌리더군요. 그때 나는 무덤도 없이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중얼중얼 기도까지 했어요. 〈나는 글로써 여러분의 한을 꼭 풀어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랬더니 묘하지요. 그날밤부터는 그놈의 악몽이 없더라말입니다.

나는 웰남전쟁터에 끌려갔을 때 거기서 많은 시체를 보았습니다. 시체들이 서로 뜯어먹는것 같은 끔찍스러운 광경도 보았어요. 정말 별의별 참혹한것을 다 보았지만 남의 땅이여서 그랬을가요. 거기에선 악몽도, 귀신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 땅에 오니 사정이 달라요. 나는 유물론자이지만 한을 풀

고 죽은 사람은 꼭 원혼을 남긴다고 생각하게 됐지요. 〈장길산〉을 쓰면서 현대적의미에 골몰했던 탓인가 봐요.》

이 이야기는 환상적인 색채를 띠고 있지만 작가가 작품을 쓰면서 무언가에 몰두해있었는가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그는 력사의 화폭을 그리면서 동시에 현실문제에 해답을 주려고 그렇게도 애를 태웠던 것이다.

사실 소설 《장길산》은 독서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고 한다. 일반 민중은 매우 통쾌해한 반면에 집권층쪽에서는 저네들에 대한 기소장처럼 사갈시켰다. 그래서 소설은 신문에 여러해 련재된 기간에 여러번 중단을 당했다고 한다.

이 소설은 그림책으로도 만들어져서 역시 인기가 대단했는데 화가는 여러번 봉변을 당했다고 한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는 황석영이 쓴 광주항쟁에 관한 기록이다. 이것은 투사만이 쓸 수 있는 애국적인 책이다.

황석영의 회고담에 의하면 항쟁당시 통치자들은 광주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야수적으로 죽였거나 상처를 입혔으나 그 진상을 철저히 감추는 한편 항쟁의 력사적의미까지 외곡하고 말살하기에 급급하고 있었다.

그사이 서울에 가있었던 황석영은 경찰의 수배를 받고 제주도로 몸을 뺐다가 81년 봄에 은밀히 광주로 숨어들어갔다. 정세는 침통했다. 황석영은 광주사태의 진상을 세상에 공개할 것을 결심하고 자료를 수집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협조해주었다. 자료가 모아지자 황석영은 서울로 가서 한 러관방에 숨어 두달만에 일기형식으로 된 광주항쟁의 실기를 탈고했다. 책은 발행되자 즉시 압수당했다. 그러나 동료들의 숨은 노력으로 다행히 몇권의 책이 간신히 해외로 반출되고 외국어로 출판되어 압제자들의 만행자료가 세계의 면전에 드러나게 되었다. 외국에서 발행된 책은 다시 여러 인권을 거쳐 남조선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여러가지 위장제목으로 은밀히 출판되어 사회계로 흘러퍼졌다고 한다.

이 책에 실린 자료들은 인간다운 삶과 민주주의를 위해 압제에 저항한 광주항쟁의 혁명적성격에 대한 증언으로 되었고, 이 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한 통치자들의 죄악에 대한 힘있는 고발로 되었다. 이것은 작가의 용감한 조준사격이었다. 그가 책의 머리글에서 5월은 끝난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한 말은 그후의 정세발전과정에 의해 확증되었다.

작가는 이 책을 쓴것때문에 권력당국으로부터 참을 수 없는 모욕과 화를 당했다고 한다. 그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래 여러번 가택수색을 당했으나 이때처럼 심하게 겪은 적은 없었다. 경찰들은 온 집안

을 뒤엎다 못해 트락까지 쇄쫓기로 빈틈없이 찼러댔다. 필자 자신은 물론 잡혀갔다.

황석영에게는 그밖에도 웰남전쟁을 무대로 한 장편소설 《무기의 그늘》을 비롯한 많은 작품들이 있다.

그는 그의 인생체험과 사회운동, 창작생활 전반을 볼 때 사회정의의 위한 담찬 투사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에게는 개인생활과 사회운동, 창작이 억눌린 민중을 살려내려는 목적을 공분모로 하여 하나의 흐름으로 통일돼있다. 아마도 여기에 그가 온갖 난관과 유혹에 지지 않고 자기의 삶을 상승적으로 개척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는 것 같다.

새로운 문명

황석영선생은 공화국북반부사회의 발전과정이나 현실에 대하여 꽤 많이 아는 편이었다. 그런데도 사회주의건설성과가 그에게 준 충격은 매우 큰듯했다. 모든것이 그의 인식수준을 넘어선 높이에 펼쳐져있었던 것이다.

그는 공화국에 머무르는 기간 완전한 자유를 누렸다. 35일간 체류하면서 보고싶어 선택한것은 다 본셈이다. 사적지들과 기념비적인 대건설물들, 평양을 비롯한 도시들과 농촌마을들, 공장, 기업소들, 백두산, 금강산을 비롯한 여러 명승지들, 작가, 예술인들과 그들의 창작실, 가극과 영화... 일일이 헤아릴 수도 없다. 품을 놓고 찾아간곳만도 수십개소였다.

우리의 일행에는 문예총의 최영화제1부위원장이나 자주 동행했고 작가동맹 간부들인 현승걸, 조정호 동지들도 드문히 동참했다.

우리는 그의 생활시간표도 그의 취미에 맡겼다. 그는 매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성이었다. 식사도 점심과 저녁, 하루 두끼였고 아침은 성찬을 차려주어도 커피 한잔 정도로 넘겨뛰는것이 오랜 관습이었다. 그리고도 체중이 3키로 가까이 붙어서 이러다간 몸과 신경이 둔해져 글을 못쓸것같다면서 걱정이 컸다.

밤에는 통 자지 않는것 같았다. 흔히 밤 두시나 세시까지 한담이나 문학얘기를 했고 영화보거나 책읽기로 시간을 보냈다. 잠을 깨는것은 아침 10시경이었다. 그의 이런 야행성바람에 나는 어지간히 혼이 났다. 그는 관습대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지만 나는 매일 늦게 자고도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그날의 일과조직이랑 살펴야 했으니 날이 갈수록 잠

은 그냥 밀릴 수밖에.

황석영은 체험도 다채롭게 할 수 있었다. 현지 참관, 각이한 계층 근로자들과의 좌담회, 기자회견, 가정방문, 야유회, 극장공연관람, 산책 등 제한이 없었다. 그에게 특별한 인상을 남긴 체험들도 적지 않았으리라고 본다.

공화국을 방문하는 사람은 해외동포이건 외국인 이건 리념이나 주의주장의 차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그렇게 하듯이 황석영도 만경대에 있는 위대한 **김일성** 주석의 생가를 방문했는데 그 역시 깊은 감명을 받은 듯했다. 그에게는 그이의 생가가 모진 가난이 짙게 어린 자그마한 초가인 것도 놀라왔거니와 모두가 나라찾는 위업에 헌신하신 일가분들의 투쟁사적은 더욱 감동적인 것이었다. 옛 세월의 오랜 수난사가 어린 여러가지 농기구들과 찌그러진 독이며 너무도 소박한 집안의 비품들을 돌아보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생각이 어려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께서는 황석영을 초대하시어 화기어린 분위기에서 식사를 나누시며 은정 어린 부드러운 말씀을 하여주시었다. 그이께서는 황석영이 너무 긴장하여 굳어져있는 것을 알아보고 그런 때에는 시원한 수박을 먹으면 가슴이 진정되니 수박을 먹으라고 자애롭게 권하시었다. 황석영은 권유대로 수박을 먹었더니 묘하게도 순간에 속이 편안해지더라고 후에 나에게 말했다.

그는 **김일성** 주석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거나 그것이 전부 인민에 관한 것이었고 모든 말씀의 귀결점은 레외없이 조국의 평화통일문제였다고 하면서 감탄을 감추지 못했다.

황석영은 어디로 가나 특별대접을 받았다. 나라에서는 그를 위해 만수대에 술극장에서 유명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특별공연을 마련해주었으며 그 한 사람을 위해 려객기나 헬리콥터까지 동원하여 천하명승인 백두산과 묘향산, 금강산을 구경시켜주었다. 도시들과 농촌, 공장과 산간마을 어디서나 그고장의 간부들과 근로자들이 그를 자기들의 일터와 가정으로 끌었다.

그 과정에 손님이 우리 현실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을 상세히 쓴다면 두툼한 책을 이룰 것이다. 하지만 손님이 이곳을 찾은 방문기를 쓰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로서는 선생의 글을 읽는 것이 도덕적이고 흥미도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구색을 맞추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간단히

언급하겠다.

황석영은 재능있는 작가답게 세상을 보는 눈이 독특했다. 그는 동서양 여러 곳을 가보았지만 어디로 가나 소문난 명승지나 기술적 건축물보다는 그고장의 사람들이 관심거리였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흔히 이채로운 현대적 건축물이나 오랜 고적같은 것을 만나면 희한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감동할 줄 아는 그들의 능력이 부러웠다고 한다. 그 자신은 몇천년의 풍광에 그슬린 고적보다는 그고장 사람들의 문명수준이나 사고방식 쪽이 훨씬 흥미를 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황석영은 이번만은 자기의 취미를 다소 양보한 것 같다. 그는 물론 우리 인민의 사고방식과 생활의 이모저모에 크게 관심했다. 하지만 건설물에 대한 관심도 그에 못지 않았다.

평양에 대해서도 역시 그랬다. 그가 남조선에 살 때 상상한 평양은 현대화의 과정을 밟으면서도 전근대적인 그들이 짙게 깔린, 여러모로 미숙한 그런 도시였던 것 같다. 6. 25 전쟁 때 평양에는 인구수보다 훨씬 많은 미국의 폭탄이 떨어진 것을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져서 덧놓인 벽돌이 없을 정도였다. 미국놈들은 평양은 지도에서 영영 사라졌다고 뇌까렸다.

그 신산하던 폐허우에 새로운 문명을 자랑하는 아름답고 장엄한 현대도시가 끝간데 없이 펼쳐진 것이다. 황석영이 이 도시를 보고 감탄한 것은 응당한 것이다. 나는 겸손이 미덕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황석영과 함께 평양의 거리들을 돌아볼 때면 어쩔 수 없이 자랑하는 말이 자꾸 튀어나왔다. 그럴 때면 그 역시 눈길이 가느스름해지며 탄성을 지르곤 했다.

우리는 170미터의 높이를 가진 주체사상탑 꼭대기에서와 고려호텔의 40층우에 있는 회전식당의 전망대에서 두 번 평양을 부감했다. 느린 호를 이루어 휘돌아 흐르는 대동강과 보통강만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눈길이 모자라게 펼쳐진 수도는 예술품인 거창한 기념비적인 공공건물들과 각양각색의 고층문화주택들이 숲이 무성한 공원과 기묘하게 조화를 이루어 해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황석영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거창하고 화려하군요. 그 짧은 기간에 이렇게까지 멋지게, 많은 일을 하다니, 아주 대단합니다. 민족적 형식에 현대성을 립체적으로 통일시킨 것

도 훌륭합니다. 건축이란 응고된 음악이라더니 장엄한 씬포니가 들려오는것 같군요.》

황석영은 5월1일경기장, 광복거리, 서해갑문, 묘향산의 국제친선전람관,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와 같은 이름난 건축물들을 많이 보았다. 어느 건축물이나 내용과 형식이 독특하고 자연과 잘 조화된 점이 그의 주목을 끌었다.

그는 서해갑문을 구경하러 갔을 때에도 그런 점을 놓치지 않고 관찰했다. 서해갑문은 국가가 40억 팔라나 투자하여 기술진과 인민군대를 동원하여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대동강하구에 면한 20리 날바다우에 일떠세운 세계적인 갑문이다.

황석영은 나라의 위력을 반증하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에 놀라고 군대가 평화적건설에 종사하고있는 사실에도 감탄했다. 하지만 더욱 감탄한것은 그 엄청난 구조물전체가 예술적조형미를 갖추고있을뿐 아니라 모든 세부에 예술적장식이 배풀어지고 지어는 자연의 생리를 보호하는 세심한 관심까지 비쳐있는것이였다. 그는 갑문의 한쪽 귀퉁이에 물고기가 오르내릴수 있게 물길까지 따로 설치돼있는것을 보고 말했다.

《어떻게 저런것까지 생각할수 있습니까. 큰결 달성하면서도 어느 하나의 작은것도 놓치지 않았군요.》

갑문은 바다를 사이에 둔 두 기슭을 다리로 련결하여 새로운 료로를 개척하고 수위가 높아진 대동강에 대형려객선과 짐배들이 다닐수 있게 만들어 고도의 경제적효과를 내고있을뿐아니라 대동강자체를 합리적으로 다듬어 풍치까지 한껏 돋구고있었다. 황석영은 그곳에서 만난 해설자에게서 이런 리점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나서 말했다.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훌륭한 조화를 이루다니. 서해갑문이야말로 인간의 얼굴을 가진 현대화의 모범이군요.》

황석영은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도 가보았는데 그 공장도 인간본위의 구조물이었다.

세멘트공장인데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것이 이상하여 황석영이 공장 기사장에게 물었다.

《연기가 없네요. 오늘은 쉬는날입니까? 아니면 내부보수공사라도?...》

기사장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쉬다니요. 한창 생산중입니다.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것이 정상입니다. 연기만 나면 야단이지

요. 그땐 생산공정이 자동적으로 멎게 돼있지요. 먼지와 가스를 없애는데 공장건설비의 35%의 자금을 넣었습니다.

한줄기 연기도 없는 세멘트공장, 공장전체 건설비의 35%를 제진비에 쓰다니! 황석영은 눈으로 번번히 보면서도 얼른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그럴수밖에 없는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생각조차 하기 힘든것이기때문이다.

《남조선에서는 세멘트공장이 하나 서면 그 일대는 연기와 먼지로 모조리 망쳐집니다. 난 여기로 오면서 오늘은 먼지깨나 먹어야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긴 환상소설이군요.》

황석영이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어깨를 들었다놓으며 말했다.

공장정원에는 공기가 맑아 잔디와 화초가 싱싱하고 지붕우에는 비둘기들이 날아돌고있었다.

우리는 소성로직장을 비롯한 몇개의 중요공정을 돌아보았다. 어디나 만가동인데 먼지 한점 없었다. 로동자들은 사무원 옷차림이였다.

《세멘트공장은 폐수가 문제인데.》 기사장이 다시 말했다. 《우린 그 문제도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폐수는 물리적처리, 기계적처리, 화학적처리의 3단계를 거쳐 완전히 정화됩니다.》

이 공장 종업원들의 주택마을도 황석영의 주목을 끌었다. 시원히 뿜린 인공운하의 양편에 다층아파트들로 알뜰한 소도시가 형성돼있었다. 동행한 지배인의 말이 이 주택들은 공장보다 한발 앞서 지어졌다고 했다.

황석영은 구경삼아 길가의 한집에 들어가보았는데 3개의 살림방에 가구들도 그췄했다. 그 집 로동자부부는 귀한 손님을 그저 보낼수 없다면서 령장고에서 무얼 자꾸 주어냈다. 황석영은 감명이 컸다.

인간본위로 꾸려진 이런 현실은 옳은 정치리념과 인민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떠나서는 설명할수 없을것이다.

우리는 숙소에 돌아가서 현대화와 생태학적환경의 관계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는데 견해가 서로 비슷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흔히 보듯이 눈앞의 리윤만을 노리는 건설은 그보다 많은것을 파괴하는 결과를 빚어낸다. 돈벌이만 생각하는 자본가들에게는 자연을 개척한다는 개념이 자연을 무절려 파괴하는 의미와 류사한것으로 리해되고있다.

그들은 자연을 해치는자는 반드시 자연으로부터

반타격을 당한다는것을 알고 하지 않는다. 생태학적환경의 파괴로부터 생긴 각종 산업공해는 인간사회를 역추격하는 자연의 검질기고 무서운 보복타격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의 현대화는 사람, 건설물, 자연이 호상 지지하고 보완하는 관계에 놓일것을 요구한다. 자연을 개척하여 인간생활속에 끌어들이면서도 자연의 우점은 우점대로 살려주고 돌려주어야 자연도 건강하고 인간도 건강할수 있겠으니 말이다. 황석영은 공화국에서 추진하고있는, 인간적인 훈향이 물씬 풍기는 이러한 건설은 크게 자랑할만한것이라고 하였다.

백두산과 금강산, 묘향산을 비롯한 대자연이 손님에게 준 감명 또한 컸다.

나는 백두산에는 이전에 몇번 갔다왔으므로 이번에는 빠지고 4.15문학창작단의 현승결단장이 기자들과 함께 갔는데 귀환담이 꽤 재미있었다. 백두산은 높고 험준하기로 소문난 마천령산줄기, 로야령산줄기, 장백산줄기를 거느리고 2,750미터의 키를 솟구고있는 우리 나라의 조종의 산으로서 옛날에는 장사의 기력을 지닌 등산가도 죽음을 결심하기전에.는 오를 생각을 할수 없었던 《하늘나라》이다. 근년에는 비행기길, 기차길, 자동차길이 울리 뻘어 교통이 편리해졌지만 6, 7월에도 겨울이 꼬리를 끌고있어 퍼붓던 소나기가 순간에 함박꽃같은 눈송이로 바뀌는 수가 많다.

황석영일행이 올랐을 때는 4월이였는데 백두고원은 아직 겨울이었다. 겨우내 쌓인 장설과 눈보라로 그들의 자동차길은 여러번 막히군했으나 그때마다 그고장 청년들의 도움을 받을수 있었다. 청년들은 《조국통일을 하느라 수고하는 선생님을 백두산에 모시지 못해서야 인사가 되겠느냐》고 하면서 열심히 눈길을 열어주군하였다. 황석영은 백두산지구에 있는 성스러운 항일혁명사적지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고 천지가 굽어보이는 백두산절정에 올라 광대한 동방산하를 바라보았다.

《정말 신기한 선경이군요. 이 장관을 보려고 내가 세상에 났어. 영원을 사는 거인할아버지의 품에 받들린것 같습니다. 조국의 신성한 의미가 폭포수처럼 가슴을 막 내리쪼는것 같군요!》

황석영이 하늘기슭까지 흘러퍼진 장엄한 대자연을 둘러보며 감탄하자 현승결이 반응했다.

《소리가 빛이 되고 빛이 소리가 되는 성역이지요.

여기서는 력사가 귀에 들리고 미래가 현실에 육박해오고있습니다. 이 신성한 조국땅이 오랑캐들에게 분단되다니, 말도 안되지요.》

《그렇지요, 이 산은 통일의 상징이고 통일의 맹세, 그 승리입니다!》

황석영은 격동의 한자락을 내비쳤다.

그는 제주도 한나산은 너성적으로 미려하다면 백두산은 강건한 남성미의 극치를 이루고있다면서 조선사람은 백두산을 꼭 봐야겠다고, 그래서 남조선에 술한 친구들을 두고 자기 혼자 보는것이 죄스럽다고 하였다. 그는 남조선에 있는 친구들에게 나누어주겠다면서 백두산돌(부식)을 비닐주머니에 가득 채워넣었다.

일행은 백두산지구를 돌아다니면서 토산물음식 맛에도 톡톡히 재미를 붙였다. 삼지연호텔에서는 백두산 참취나물에 훌쩍 녹았다. 참취는 목은것인데도 햇것처럼 새파랬다. 그것으로 씹을 싸먹는데 황석영은 처음이어서 씹을 입에 물고 눈치만 보고 있었다. 곁에서 누군가가 나물의 줄기를 당기라고 귀띔해주었다. 그 말대로 줄기를 주욱 당긴 그는 금시 몰아지경에 빠져 눈이 실오리가 되었다. 맛이 기가 막혔던것이다. 돌이 먹다 셋이 죽어도 모를 지경이라고 했다. 룡두지점의 맛도 참취쌈에 못지 않아서 황석영은 재간있는 요리사들이 솜씨를 보인 다채로운 서양식료리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보천보쪽에 갔을 때는 자그마한 곱돌단지에 감자며 고기, 산채 등숙을 갖가지 조미료에 섞어끓인 곱돌장이 어찌나 맛이 좋았던지 뜨거운것을 식힐새없이 삼키다가 그만 입을 데어 여러 사람을 웃기기도 했다.

두만강변에서의 야외식사도 잊을수 없는것이였다. 일행은 진대나무에 백포를 펴고 앉아 금방 구운 큼직한 감자에 강에서 금방 잡아구운 산천어를 먹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다는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좀 지내 타게 구워진 감자를 정신없이 먹다보니 모두들 손과 입이 새까매진것이 톱글퉁 《소제부》 꼴이였다.

황석영은 요리사가 다심하게 권하는 기름진 룡리를 퇴놓고 그냥 구운 감자만 먹으면서 호기를 부렸다.

《내사 신선일다. 양말이니 구두따윈 썩으라 하라. 갈잖은 서양식문명같은건 어림도 없지... 아, 룡음속에서 땀흘려 일하고... 구름노전 깔고 목침베고

이런 구운감자 먹으면서 감자같이 구수한 너인과 함께 시름없이 살어나 봤으면!... 이것 보세요. 앞으로 이남에서 시인, 작가들이랑 좋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다른 음식 말고 바로 이걸 대접하세요. 그럼 아마 춤을 추고 시가 쏟아질겁니다...》

묘향산 역시 첫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명산이다. 여기서도 일화거리가 많았지만 한두마디만 하겠다.

대웅전 사찰을 방문한 황석영은 정장을 한 늙은 스님의 안내를 받으며 사찰안으로 들어서더니 불상 앞에 두손을 높이 들어 합장을 하고는 그 자세대로 납작 엎드려 무척 성의있게 레불을 하는 것이었다.

밖으로 나와 거닐 때 내가 그에게 반룡조로 조용히 물었다.

《그 배알인사 아주 그럴듯하던데요. 유물론자가 불교에까지? 욕심이 좀 파하지 않을까요.》

황석영은 빙긋 웃었다.

《스님을 만났으니 그의 세계를 도덕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는 그곳에 있는 불교전람관도 참관했는데 그때에도 이와 비슷한 감동을 표시했다.

금강산구경도 꼭 인상적인 것이었다. 도착 첫날밤에 황석영은 그곳 호텔 연회장에서 지방간부들이 술을 강권하는 바람에 좀 파음했던 것 같다. 다음날 아침에 만물상으로 오르는데 그는 도중에 몸이 불편해서 몇번 주저앉더니 토하기까지 했다. 우리는 일정을 연기하기로 작정했다.

《태권도 2단이 폭 녹았구먼. 금강산이 금강산이지, 아무나 받아들이는 줄 아나? 안되겠어.》

《황선생같은 약골은 어렵도 없어. 호텔로 돌아가 치료받고 온탕이나 합시다요.》

동행한 최영화부위원장과 나는 룡담을 뿌리며 그만 돌아가자고 거듭 권했다. 헌데 황석영은 울음이라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성깔을 부렸다.

《이런 별천지를 미루다니, 돌아서면 난 죽습니다.》

그리고는 청년들에게 부축을 받으며 고집스레 등산을 계속했다. 절경에 취한 그의 입에서는 감탄사가 그칠 줄 몰랐다. 동서남북 어데를 보나 《아!》 소리가 터져나왔다. 금강산이야말로 모든 감탄사에 솟아있는 신비경이었다. 황석영은 누구나 선경으로 바라보는 금강산 역시 민족의 얼을 하나로 그려안은 조국통일의 힘있는 상징이라고 하였다.

그고장을 떠날 때에는 우리가 타고갈 헬리콥터아

래에 그곳 로동자들의 음악과 노래가 기다리고있었다. 그들은 가까운곳에서 열심히 토관을 부설하거나 집을 짓던 남녀로동자들이었다. 남조선에서 온 손님이 평양으로 떠나간다는 것을 안 그들은 설참에 즐기던 악기들을 가지고 비행기아래로 바삐 모여들더니 즉석에서 환송음악회를 열었는데 꽤 들을만했다. 황석영은 그들의 노래는 쓸쓸한 편이라고 했다. 그대신 기악연주의 수준은 전문가들도 울고갈 정도로 대단하다고, 산골로동자들인데 어쩔 저렇게 세련될수 있느냐고 감탄했다. 그들이 다룬 각종 민속악기들과 양악기들은 대부분이 고급한 기교에 도달하기전에는 청중에게 감흥을 주기 어려운 전문악기들인데 독주나 중주, 어느것이나 치기가 없이 훌륭했다. 황석영은 그들이 혹시 전문예술인들이나 아닌가 하여 여럿의 손을 잡아보았지만 하나같이 로동에 익숙해진 검붉은 손이었다.

그는 어느 지방, 어데로 가거나 아이들과 청춘들만 만나면 악기를 다룰 줄 아느냐고 묻곤했는데 한결같이 안다는 대답이었다. 청년들의 파반수는 두가지 세가지 악기를 다룬다고 했다. 시험삼아 연주를 시켜 확인해보기도 했다. 그는 이러한 음악의 대중화에 대하여 《인간의 행복을 담보하는 일과 놀이의 조화》라고 평가했다.

우리의 사회보장제도와 인민을 위한 다양한 봉사제도 역시 손님의 주목을 끌었다.

11년제 무료의무교육, 전반적 무상치료제, 모든 세금의 폐절, 주택, 식량, 의복에 대한 특별혜택, 법으로 보호되는 로동권과 국가부담에 의한 정휴양제, 어느것이나 손님에게는 놀랍고 희한한 것이었다.

평양산원을 돌아볼 때 잊은 일이다. 그곳은 나도 외손자가 태어났을 때 화려한 현관홀까지 들어가본 일이 있다. 황석영은 현관에 들어서자 나를 건드리며 속삭였다.

《이건 애기 낳는 집이 아니라 궁전이군요.》

반겨맞아주는 후덕스럽게 생긴 녀성원장과 의사들의 순후하고 무던한 인상도 손님의 주의를 끌었다. 우리는 원장의 안내로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기술장비들이 갖춰진 많은 방들을 둘러보다가 입원실에서 몇명의 산모들을 만나보았다.

《실례지만... 순산을 했습니까? 건강은 어떻습니까?》

황선생이 애끓은 산모에게 묻자 저쪽은 수줍어 고개를 집고 싱긋 웃어보이기만 했다.

옆자리에서 쾌활해보이는 중년의 산모가 끼여들었다.

《저렇게 부끄럼 타능기 아이는 어떻게 땀글었는지 원. 낳는기사 순산이구 말구. 의사선생님들이 무통치료라는지, 아프지 않구 낳는 치료까지 해주이까 저 아지민 첫 아인데도 영 쉽게 슬쩍 낳았지비.》

와자그로 웃음이 터졌다. 분위기가 누그러지자 젊은 산모도 활기를 냈다.

《정말 나라의 배려가 너무도 커요. 영양식사에 보약까지 무료로 주지요. 충치가 하나 있는것까지 치료해줬어요. 저 아주머닌 한쪽 귀가 약간 어두웠다는데 의사들은 그것까지 알아내여 말짱 고쳐줬지요 뭐.》

원장이 몇마디 보렸다.

《산모들은 모두 종합검진을 시켜 잔병까지 치료한후에야 퇴원시킵니다. 의술이란 사랑인데 사랑이야 완전해야지요.》

황석영은 남쪽에서는 너공이 임신하면 해고위험이 따르고, 몇달분의 로임을 써도 슬픈 일을 많이 겪는다고 했다. 일행과 함께 복도에 나선 그는 몇걸음 뒤에 처지더니 손수건을 눈에 댄채 떼지 못했다. 남녘에 두고온 불행한 너인들과 아이들을 생각한 것이리라.

황석영은 어디로 가나 사람들의 조국통일념원을 읽을수 있었다.

간부들과 대학생들, 노동자들과 아이들,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조국통일은 외세의 간섭이 없이 북과 남이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머리칼이 하얗게 바랜 로인들이나 가정주부들까지 남조선겨레들이 벌리고있는 애국투쟁을 잘 알고있었고 런대의식도 매우 높았다.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은 대학을 방문한 황석영에게 남녘학우들의 영웅한 투쟁에 대한 자기들의 뜨거운 성원의 마음을 전했다.

한 학생은 열정적으로 말했다.

《우리 대학에서는 남조선에서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전사한 대학생들의 넋을 우리의 뜨거운 가슴속에 품고있습니다. 우리는 남녘의 대학생렬사들을 대학의 명예등록장에 등록했습니다. 출석을 부를때면 그들의 이름도 소리높이 부릅니다. 그때면 학급반장이 일어나 남반부 어느 대학 학생 누구는 언

제 어떻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엄숙해지고 학생들은 눈빛이 달라집니다.》

대성산유원지에 놀러 갔을 때 있는 일이다. 우리는 그 일대의 명소들을 돌아보고나서 숲그늘에서 차에 싣고 온 술과 음식을 벌려놓고 늦어진 점심을 먹고있었는데 멀지 않는 저쪽으로 수십명의 청춘 남녀들이 서정적인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고있었다. 청년들을 좋아하는 황석영은 그들을 보자 만나보고싶어했다. 나는 얼른 청년들을 불렀다. 그들은 평양경공업대학 학생들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황석영을 소개했다.

청년들은 대번에 환성을 올렸다. 소문이 자자한 남조선작가를 우연히 만난것이 큰 경사인듯했다. 모두들 귀빈에게 물려들어 포옹과 악수공세를 벌렸다.

분위기가 가라앉자 청년들로부터 질문들이 쏟아졌는데 대부분이 남반부 대학생들의 투쟁실태에 관한 것이었다. 황석영은 실례를 들어가면서 일일이 대답해주었다. 그중에는 생각에 잠기게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있었다.

몸이 갱뽕하고 말쑥한 얼굴이 리지적으로 생긴 청년이 흥분하여 말했다.

《황선생님, 난 텔레비에서 남녘대학생들이 경찰놈들의 곤봉에 맞아 피흘리면서 끌려가는걸 보면 너무 분해서 그냥 미칠것 같아요. 나의 젊음과 행복이 막 죄스럽구요. 차라리 내가 악질경찰놈을 처단하고 그 학우를 대신하여 교수대에 오르는 편이 속편할것 같아요. 우리의 이 심정을 그들이 알까요. 네?》

그러자 얼굴이 이쁘게 생긴 퐁퐁무례한 너대생이 손에 진 소설책을 가슴에 얹고 울먹이며 말했다.

《전사한 남쪽대학생 들을 생각하면... 죽음속에도 노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 남반부에 산다면... 저는 아마... 일생 결혼하지 않을거예요... 전사한 그 사람을 못잊을테니까요...》

누군가 노래 《조선은 하나다》를 선창하자 모두가 어깨걸고 합창을 했다. 그런데 함께 부르던 황석영이 한손으로 얼굴을 싸쥐고 울기 시작했다. 손가락짚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렇게 되자 모두가 그를 부둥켜안고 함께 울었다.

황석영은 정에 물려 눈물이 많았다. 학생소년궁전에 갔을 때는 《보내지 못한 편지》라는 아이들

의 소품공연을 보고 소리를 내어 울었다. 그 작품은 한 아이가 남쪽에 사는 할아버지에게 고운 아이가 담긴 자기의 편지를 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설음을 하소연한것인데 아이들자체가 울면서 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설음을 하소연한것인데 아이들자체가 울면서 연기했다.

황석영은 격한 정을 누르고 손수건으로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었으나 그자신도 끝내 아이들을 부여안고 울음을 터뜨리고말았다. 어찌나 심하게 울었던지 안경이 떨어져 땀굴고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되었다.

그를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통일을 하자고 호소했다. 젊은 세대들은 학생이건 로동자, 농민이건 대부분이 악기를 다룰줄 알아서 황석영은 어데로 가나 그들의 기악과 노래를 들을수 있었는데 통일노래만 나오면 그는 울면서 따라불렀다.

작가들속에서

황석영은 북반부의 문학예술계에도 관심이 컸다. 그는 많은 작가들과 사귀고싶어했고 그들의 창작에 대해서도 알고싶어했다. 최근 몇해사이에 남반부에서는 북반부의 문학작품들이 적지 않게 출판되었고 그에 따라 남쪽 문단에서는 북의 문학계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진것 같다. 북의 문학성과를 이해하는것은 남조선청년학생들과 민중사회가 북반부의 사회전반을 폭넓게 이해하는데도 절실히 필요할것이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일반 대중속에서는 반미자주통일운동이 고조되는것과 함께 북반부사회의 진실을 알려는 기운이 높아졌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북반부의 문학작품들도 적지 않게 보급되어 독서계의 화제를 모았는데 황석영도 여러권 읽은듯했다. 그러나 그는 어쩔수없는 사정이기도 하지만 북반부의 문학예술에 대해선 아는것보다 모르는것이 많았고 어떤 측면에서는 편견도 가지고있었다.

우리는 그가 진실을 정확히 알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문학관계의 리론서들과 창작품들, 가극과 예술영화들도 적지 않게 보여주었다. 밤길도록 포도주를 기울이며 오랜 작가들이 낡은 습성과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새 시대의 사상과 문물을 섭취하면서 문학과 인생, 혁명과 세계를 새로운 높이에서 리해하게 된 과정에 대하여, 혹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끊임없이 등장한 새 세대 작가들의 개성과

재능이며 그들의 사랑과 우정의 일화들도 들려주었다.

황석영은 많은 작가들과 예술인들을 그들의 창작현장에서 만나볼수 있었다. 특히 작가들과의 상봉은 감격적인것이였다. 4.15문학창작단 작가들은 그곳 창작기지를 방문한 황석영을 남녘의 진보적문학계가 파견한 통일의 사절로 환영했다. 그들은 손님에게 수십개나 되는 창작실을 다 열어젖혔다. 어느 방에나 벽에는 동서고금의 책들이 차여있고 커다란 책상우에는 작품원고들이 무독히 쌓여있었다. 고급자재로 웅건하게 꾸러진 침실과 서재에는 전축이나 전화, 텔레비존을 비롯한 각종 문화용품들이 갖춰있었다.

황석영은 이방저방 둘러볼 때마다 훌륭한 설비에 감탄해마지 않았다. 소설가 리종렬의 방에 들렀을 때는 방문의 기념으로 테블앞에 앉아 화락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 창작기지에는 회의실과 영사실, 자료도서관, 실내체육실과 야외정구장, 훌륭한 주방을 갖춘 식당 등 온갖 생활조건이 완비돼있었다.

황석영은 프락에 나와 창작실의 암청색건물이며 북쪽에 가까이 펼쳐진 봄빛같은 백양의 무성한 숲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건 너무나, 너무나 훌륭합니다. 작가들과 작품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를 알수 있군요. 훌륭한 작품은 황금과도 바꿀수 없다는 그 뜻이 가슴에 젖어듭니다. 빨리 통일이 돼야 남쪽작가들도 이런 데 와서 글 써보겠는데...》

이곳에 찾아오는 외국작가들도 비슷한 말을 한다.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한겨레인 남조선작가가 부러워하는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송구스런 마음이었다.

그곳 면담실에서 황석영을 위해 열린 좌담회와 대동강변의 옥류관에서 있는 연회는 형제적인 사랑과 선의에 넘쳐있었다. 화제는 가지각색 들쭉처럼 다양했다. 창작주제, 인간생활, 문제작이야기, 재기로운 룡담, 공화국건설성과, 통일문제,세계정세와 20세기문명 등 퍼그나 다양했다. 이야기는 들먹을 흐르는 물처럼 조용히 진행되다가도 갑자기 룡담과 폭소가 버무러지면서 모두가 뒤설레며 벅쩍 떠드는 장마당을 이루기도 했다.

황석영은 남녘작가들과 애국민중의 자주통일열망을 감동적으로 소개했고 이쪽 작가들은 흥분된 어조로련대의 정을 뽐냈다. 민족분단이 참을수 없는것이기때 남녘작가와와의 상봉은 무던히도 정다왔다. 정은 주고받을수록 뜨거워만져서 피차 말의 한

계를 느낄 때는 부둥켜안고 울고 웃었다.

황석영은 이번에 과거에 월북한 작가들로서 이미 작고한 홍명희, 리기영, 박태원, 리용악 선생들의 북반부에서의 활동정형과 그들의 유가족들의 생활도 상세히 료해할수 있었다.

8.15해방때나 그후에 월북한 그들 작가들은 공화국의 품에 안겨 각별한 배려를 받았다. 살림살이에 대한 보장은 물론이고 창작과 사회생활에서도 많은 혜택을 누렸다.

그들중에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각별한 신임으로 정부기관이나 사회단체의 요직에서 사업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벽초 홍명희는 내각부수상으로, 민촌 리기영은 문예총 위원장으로 생애의 말년까지 사업했다. 나라에서는 그들이 인민의 사랑을 받는 좋은 작품들을 내면 국가표창으로 고무해주었다.

박태원선생의 유가족들이 황선생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그대로 감동적인 소설이었다. 구보 박태원은 다부작 장편소설 《감오농민전쟁》을 창작하던 시기부터 두눈이 완전히 멀었고 뒤따라 온몸이 마비되어 누워서 곱적할수도 없는 불구의 몸이 되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크게 걱정하시어 진작부터 유능한 의사를 붙여주시고 이름난 약을 거둬 보내주시으나 병세는 다소 호전되다가는 다시 악화되었다.

이제 환자의 몸에서 살아있는 부분은 심장과 귀와 혀뿐이었다. 어떤 의지의 인간도 이 지경에 이르면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이나 결심은 단념할수밖에 없을것이다. 그러나 박태원선생은 단념하지 않고 창작을 계속했다. 그는 부인을 곁에 앉히고 입으로 불러주는 방법으로 한글한글을 몇번이나 쓰고 지우고 다시 쓰게 하면서 장편소설의 아득한 길을 한치 또 한치 뚫어나갔다.

그러던차에 나중에는 허까지 마비되었다. 이제는 말조차 할수 없게 되었다. 소경에 전신마비의 불구자가 말조차 할수 없게 되었으니 외계와의 의사소통은 완전히 단절된것이다. 그래도 창작은 계속되었다. 부인은 남편의 미세하게 쉼룩이는 입의 움직임에서 소리없는 언어를 간신히 읽군했으며 그것을 원고지에 옮기곤했다. 긴세월 남편의 표정을 보기도 그의 생각과 기분상태를 짐작한 섬세한 부인만이 해낼수 있는 일이었다. 그것은 마치도 고고학적 출토품에 희미한 얼룩처럼 남아있는 몇천년전의 문자를 판독하는것처럼 어려운 일이었다.

악전고투속에 장편소설의 첫권과 두번째권까지 간신히 진척되었다. 그런데 소설가는 다부작구상을

완성하지 못한채 그만 중도에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되자 부인이 창작의 계주봉을 이어받았다. 남편의 시중을 들던 고령의 가정부인이 많은 력사자료들을 뒤지며 어려운 력사소설을 끝까지 써나간것이다. 3부작으로 된 《감오농민전쟁》은 이렇게 씌여졌다.

소설가 박태원은 남조선에서 살 때에는 소시민적 취미를 풍기던 연약한 기질의 작가였다. 그러던 그가 어떻게 되어 이렇게도 강직하고 큰 작가가 될수 있었는가. 그는 량심의 인간이었으니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준 나라앞에 빛을 지고는 세상을 뜰수는 없었던것이다. 남조선에 혈육과 많은 벗들을 두고 월북했던 그는 분단을 참을수 없었으니 그 아픔이 또한 소설로 번져나왔던것이다.

우리는 감동의 눈물을 감출수 없었다.

황석영은 참으로 많은것을 배웠다면서 앞으로 남북을 같이 반영하는 소설을 쓴다면 이 이야기도 담고싶다고 했다.

그는 심한 전상자로서 수십년 세월 침상에 누워시를 쓰는 시인 김시권에 대해서도 응당한 존경을 표시했다.

황석영은 리기영선생의 유가족들도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고인의 늙은 미망인과 가족들이 그에게 한 말도 시중 통일문제였다.

황석영은 그 집을 떠날 때 할머니앞에 록음기를 당겨놓고 정중히 말씀드렸다.

《저는 이제 돌아가면 언제 다시 찾아뵈올수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할머니께서 남조선작가들에게 무엇이나 특별히 당부할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시오.》

몽땅한 토막기에 머리칼이 하얗게 바랜 엄청난 고령의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황석영의 어깨를 쓰다듬더니 물기어린 실눈을 쫓프리고 마디마디 힘주어 말했다.

《한피줄이 갈라져 살다니 안되지. 안되고말고. 부탁이라면... 통일에 보탬이 되는 참글을. 통일을 당겨오는 그런 책 많이 써달라는거여...》

자그마한 할머니가 우뚝 솟아보였다. 황석영은 할머니앞에 엎드려 작별의 큰절을 드렸는데 한동안 머리를 들지 못했다.

황석영과 우리 작가들과의 교제는 형제적인 애정의 얹힘이었다. 피차 무슨 이야기를 하던지 감출것도, 과장할 필요도 없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기쁜중에도 서먹서먹한 감이 없지 않았으나 서로 대방을 리해하게 되자 격식같은것은 방해물이어서 아예 없애치웠다. 친구가 되어 너나들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로 가르쳐주고 배운 노래들을 취기 어린 목소리로 합창하기도 했으며 눈물나게 웃고는 익살과 통담도 많이 주고받았으며 더불어 춤도 추었다.

황석영은 형수님을 만나겠다면서 나의 집에도 들려 저녁을 즐겼는데 나의 처와 아이들은 그를 친척처럼 대했고 그 역시 그랬다. 그는 나의 작은 딸과 막내아들에게 그 애들이 시집장가갈 때면 자기가 축하하러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허드레말갈지 않았다. 그는 후에 남조선으로 돌아가려고 외국으로 갈 때 비행기안에서 곁에 앉은 나에게 말했다.

《선생네 아이들에게 한 약속을 꼭 지켜야겠는데...》

잊을수 없는것은 황석영과 작가들의 작별연회였다. 훌륭한 환송사와 답사가 오고갔다. 시인 오영재는 리별을 서러워하는 즉흥시를 절절하게 읊었다. 황석영은 슬피 울었다. 모든 작가들이 눈물을 흘렸다. 헤어질 때는 모두가 부둥켜안고 젖은 얼굴을 맞비비며 오래도록 떨어질 줄 몰랐다.

통일지향의 문학을 위하여

황석영의 리념이나 문학성향은 북반부의 작가들과 일치한다고는 볼수 없을것이다. 그는 역시 북반부와는 판이한 남조선사회풍토의 산아이다. 인간은 사회관계로부터 벗어날수 없듯이 자기가 성장한 환경보다 높이 뛰어오르는것은 수월치 않다. 그는 아무래도 우리하고는 가치관이나 생활방식, 취미같은것도 같을수 없다.

하지만 그런것은 문제로도 될수 없다. 우리는 피차 줄장부가 아니니 믿음과 사랑의 값어치를 안다. 다소 차이가 있을들 그게 뭐 대순가. 그런것은 우리가 정으로 엮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문학, 통일을 위한 문학을 론하는데는 아무런 장애로도 되지 않았다.

오히려 황선생의 정신적면모에 비추어보면 남녘의 진보적작가들과 우리와의 사이에는 차이점보다도 공통점이 훨씬 크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들이 보는 아름다운것과 추악한것의 개념, 정의와 부정의 의 척도는 우리와 다름없다. 중요한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들은 침략자, 억압자들을 증오하고, 억눌리고 소외당한 민중의 구원을 열망하고있으며 민족의 통일을 진심으로 바라고있는것이다. 창작이나 언론으로 대담하게 불의를 고발하고 정의를 주장한것으로 하여 민중의 사랑을 받은 대가로 권력자들에게 모진 학대를 받은 작가들도 많다. 정의와 진실을

밝힌 값으로 기나긴 세월 감옥의 철창속에서 모진 고생을 겪으면서도 투사의 머리를 숙이지 않은 탁월한 시인, 작가들도 있다. 그들은 사회제도와 진보적리념이 충돌관계에 있는 사회에서는 각성된 인간의 존재방식이 반항과 투쟁이라는것을 알고있다. 이러한 작가들은 작품으로 혁신적인 모랄을 제시할뿐아니라 제물을 깨면서 그 모랄을 실천해나가는것이다.

어머니들이 자식들의 효성스러운 소행을 한생토록 잊지 않듯이 조국은 투사 작가들을 청사에 간직하며 길이 사랑할것이다.

남반부의 진보적작가들의 자주통일운동은 최근 년간에 이르러 더욱 조직화되고 활성화되고있다.

그들은 1987년 9월에 수백명의 진보적작가들을 망라하여 《민족문학작가회의》를 조직했다. 이 조직은 1974년말에 케케묵은 부르조아문단에 혐오를 느끼고 그로부터 갈라져나온 작가들로 무어진 《자유실천문인협의회》조직을 개편한 기구이다.

이 조직은 창립선언에서 《통일문제에 대하여 정부당국이나 일부 외국인들이 론의를 독점하고있는 사태를 시정》할것을 중요항목으로 밝히고있다. 창작방향을 설정하는데서도 《민족문학은 통일지향의 문학》이라고 규정하고 《분단된 민족의 통일의 지를 담은 민족문학의 시대를 열겠다》는것을 결의하면서 우리와의 문화교류를 주장하고있다.

지난해말에 조직된 《민족예술인총련합》(민예총)은 남조선에서 가장 큰 운동권의 문학예술인종합조직이다. 수백명의 발기인들에 의하여 결성된 이 조직에는 문학부문을 비롯하여 미술, 민족극, 영화, 민족음악, 무용, 건축, 사진에 이르는 8개부문이 포함되어있다. 그들은 독재권력에 추종하여온 종래의 낡은 문학예술의 퇴폐성과 시대역행적인 실태에 반감을 품은 문학예술인들로서 민중을 자주의 식화하고 문학예술의 민족적주체성을 높여 남북문화교류를 촉진하며 나라의 통일을 달성할것을 주되는 목적으로 삼고있다.

한편 우리는 북과 남의 작가, 예술인들의 접촉과 문화교류를 촉진하며 나라를 자주적으로 통일하는 문제를 먼 해방직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조선문학예술총동맹(문예총)과 조선작가동맹은 대회나 중요회의에서는 물론 정세발전의 여러 계기마다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했다. 그러나 남쪽의 제도권 문화단체들의 지도성원들은 통일문제에는 소경에 귀머거리인 민족불감증환자들이여서 그랬는지,

아니면 권력자들의 뺑뺑이 눈총에 기가 길려서 그랬는지 한번도 호응한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남쪽에도 자주 통일을 바라는 문예인들이 조직을 못하고 나섰으니 좀 좋은가! 피차 상대를 통일의 전우로 삼을수 있게 된것이다. 그래서 황석영선생도 우리를 찾아온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와 함께 통일과제와 작가의 사명을 두고 여러번 밤깊도록 의논을 했다.

통일문제는 초미의 역사적과제일뿐아니라 그 자체가 창작가의 재능과 정열을 부르는 무한대한 예술적탐구의 대상이다. 참다운 문학은 인간을 고립, 속박, 물리해, 어둠으로부터 결함, 각성, 사랑, 광명에 이끈다. 그것은 민족이 적의와 전쟁, 쇄멸의 소속인 분단으로부터 화합과 평화, 번영의 소속인 통일을 지향하는것과 같은 관계에 놓인다. 문학이 이러한 근본문제를 출시할수 있는가?

조선반도에서의 분단세력과 통일세력의 투쟁은 제국주의적 《문명》과 인민적문명의 역사적투쟁이기도 하다. 부르조아철학이 논하는 인간은 비리성적이고 생물학적이며 낱알으로 고립된 암담한 존재이다. 약육강식의 질서를 제도화한 침략자, 독재자들에게는 민중을 수탈하고 망치면서도 범죄의식이 없다.

압제자들의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반인간적이며 야수적이다. 히틀러나 도쥬, 맥아더를 인간으로 볼수 있겠는가. 6.25전쟁이나 광주봉기때에 무고한 민중을 야수적으로 학살한자들은 레외없이 인민과 평화와 인도주의의 적들이었다.

요컨대 자주통일운동은 배타적인 리기주의에 확장하여 사람들과 민족을 분열시켜 칼질하는 침략자, 압제자들을 반대하여 사람들의 화목과 민족의 단합을 갈망하는 인민대중이 벌리는 정의로운 인류사적인 투쟁이다. 따라서 그것을 다루는 문학은 애국적인 민족문학이면서 동시에 세계적높이의 문학일것이다. 갈라진 겨레들이 겪는 설움과 불행, 상봉과 재결합을 위한 몸부림, 통일운동에 앞장선 사람들의 영웅적기상, 어느것이나 창작의 새로운 지평선을 열어보이며 작가들을 부르고있다.

중요한것은 북과 남의 작가들이 통일을 위한 문학운동을 조직적으로 확대발전시키는것이다.

우리 창작단체 간부들과 작가들은 황석영과 이 문제를 여러번 의논했다. 그 과정에 흥미있는 방안들이 적지 않게 나왔다.

북과 남의 합동창작집과 평론집을 발간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통일지향의 창작집과 평론집을 북과 남에서 각각 출판하여 호상교류하자는것이다.

북과 남의 작가들사이에 합작도 가능할것이다.

레컨대 하나의 서사시를 북과 남의 시인이 공동으로 쓸수도 있다. 주제와 구성안을 사전에 합의하여 서사시의 앞부분은 북의 시인이 쓰거나 뒤부분은 남쪽 시인이 써서 각각 현지출판물에 발표하고 그것을 북과 남 혹은 3국에서 합본하여 출판하자는 것이다.

영화도 합작할수 있겠다는 의견들이었다. 가령 《춘향전》을 영화로 만든다면 대본이나 연출을 북과 남이 적당히 분담하고, 성춘향을 북에서 내면 남에서는 리몽룡을 내는 식으로 하여 합작을 하면 그 인기와 영향력은 대단할것이다.

노래의 경우는 한쪽 시인이 가사를 써서 방송이나 다른 수단을 써서 다른쪽에 알려주면 그쪽의 작곡가가 곡을 붙여 상대방에 알려주는 방법을 쓸수 있을것이다. 이렇게 되면 통일주체의 새로운 노래들을 북과 남이 함께 부를수 있을것이 아닌가.

소설에서는 이러한 합작방법이 다소 어렵겠다는 의견들이었다. 구조의 얽음새가 매우 복잡한 장편소설을 토막을 내어 개성이 다른 작가들이 그나마 북과 남에 떨어져 앉아서 성공적으로 합작하기는 어려울것이다. 그대신 북과 남의 작가가 약속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각자의 상황에서 동시에 써서 발표하고 그것을 북과 남이 교환하여 출판할수 있겠다는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안들은 초보적인 가상이므로 보다 합리적인것으로 바뀔수도 있겠지만 실천에 옮기려면 난관도 적지 않을것이다.

이번에 문예총 백인준위원장과 최영화제1부위원장, 작가동맹 통일문학담당 조정호부위원장은 남의 민예총 대변인이며 민족문학작가회의 지도위원인 황석영선생과 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의견을 모은뒤에 북과 남의 민족문학을 통일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한 문건을 교환했다.

이 문건에 관통돼있는 주장은 조선의 량심적인 모든 작가는 누구나 자주통일성업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아야 하며 우리 시대의 민족문학은 통일지향의 문학으로, 통일문학운동으로 돼야 한다는것이다.

문건에는 그와 관련하여 북과 남의 작가들이 분단의 장벽을 넘어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합작을 실

현할데 대한 지향과 방도를 중요사항으로 밝혔다.

통일지향의 민족문학을 공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북과 남의 창작가들이 자주 만나는데가 절실하다. 그러므로 합의서에서는 현안문제로 제기돼 있는 북과 남의 창작단체들의 회담을 비롯하여 북과 남의 문학예술인조직들간의 접촉과 회담의 길을 트는 문제를 과제로 밝히고있다.

황석영은 북반부의 문예총과 작가동맹이 남쪽의 민예총이나 민족문학작가회의와만 회담을 가질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남쪽의 예총이나 문협과도 별도로 회담하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 의견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합의서에 명기되었다.

이 합의서는 북과 남의 문예인들이 리념이나 창작경향의 차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나라의 평화통일 위업에 창작과 문학운동으로 기여할수 있는 전도를 밝혔다. 점에서 그 의의가 클것으로 보인다.

작 별

황석영선생은 35일간의 공화국방문일정을 마치고 4월 24일 평양을 떠나 귀로에 올랐다. 문화관계의 여러 일군들과 작가들, 시민들이 그와의 리별을 서러워했다.

문화예술단체의 지도일군들인 백인준, 최영화, 조정호 동지들은 평양비행장까지 따라나가 그를 배워주었다.

떠나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들도 아픔을 감추지 못했다. 서로 덕담과 룡을 주고받으며 웃기도 하였으나 거기에도 슬픔은 배여있었다. 황석영과 우리는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속을 더놓고 사귀었던터에 인간적으로 정이 폭 들어버려서 놓아보내기가 괴롭고 아팠다. 우리는 그에게서 정의와 아름다움을 탐닉하는 예술가다운 개성과 다채로운 정서를 부단히 발산하는 다감한 심정을 느꼈다. 그 역시 우리가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친혈육처럼 사랑했다는 것을 실감했을것이다.

그런데 그가 돌아가야 할 서울에서는 통치자들이 적의에 차서 그를 징벌하겠다고 울려대고있었다. 그들은 황석영을 악명높은 《국가보안법》에 걸여 처형하겠다고 거둬들고있었다. 먼저 서울로 돌아간 문익환목사일행은 그곳 비행장에 도착하자마자 손을 묶이워 류치장에 끌려가있었다. 북반부에서는 통일의 사절로 인민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남에 돌아가면 죄인으로 구속돼야 하는 이 모순적인 사태는 우리를 비애와 분노에 싸이게

하였다. 그러니 떠나가는 사람의 심정은 어떠했겠는가!

나는 황석영이 공화국에 머무르는 전기간 그와 생활을 같이한 작가로서 증언하거나 북반부에서의 그의 활동에는 민족앞에 죄가 될것이란 전혀없다. 오히려 그는 훌륭한 일만을 했다. 남북간에 적대감을 없애고 한겨레, 한민족으로서 평화적으로 나라를 통일하고 선조들과 어린이들 앞에서 그리고 후손들과 세계 앞에서 부끄럼없이 살자는 의논만 했다. 어느쪽을 편파적으로 두둔하거나 어느쪽을 굽어내리지도 않았다. 우리가 함께 확인한것은 민족적인 동질성이었으며, 지혜와 인내와 용기를 다하여 서로 사랑하러는 지향이었다. 그길에서 문학의 임무를 확인했고 민족문학건설의 방도를 모색했다. 이런것이 죄가 된다면 선과 악, 정의와 부정의는 그 개념이 뒤바뀌어야 할것이다.

남조선통치자들에게는 누구를 범죄자요 뭐요 하면서 떠들만한 체면도 명분도 없다.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대역부도죄인으로 민족의 법정에 기소할수 있는 엄청난 범행자료들을 알고있다. 하지만 여기서 그걸 뒤적거릴 흥미는 없다. 다만 한마디 던지고 싶은 말은 반성은 언제나 유익한것이니 이제라도 인간으로 돌아오기 위해 애쓰라는것이다.

황석영은 돌아가면 곧 북조선방문기를 쓰겠다고 했다. 남조선에 공화국의 실상을 진실그대로 소개하여 통일운동에 기여하러는것이다.

그러니 압제자들이 쇠고랑을 들고 기다리고있는 서울로 직행할수는 없게 되었다. 방문기를 쓰려면 안전한 장소가 필요했다. 그는 중국의 베이징을 거쳐 일본이나 다른 제3국에 가서 당분간 머물면서 책을 쓸 계획이었다.

나는 황석영을 려객기편으로 베이징에까지 따라가 전송했다.

베이징에서는 일본입국사증을 해결하려고 일본령사관에 몇번이나 들러야 했다.

우리는 설비가 좋은 곤륜호텔의 높은 층에 들어있었다. 거기서 서울의 동아일보 기자가 찾아와서 황석영과의 첫 인터뷰를 했는데 꽤 인상적인 장면이었다.

베이징에 도착한 이튿날이었다. 우리는 호텔 식당에서 늦어진 아침을 먹고 침실에 돌아와 한담을 하고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내가 나가보았더니 중키에 둥근 얼굴이 말쑥한 젊은 남자가 어깨를 갑작 췌어보이며 곱살긋게 반긴다. 《실례합니다. 여기에 황석영선생님 와계시지요?

저는 서울서 온 기잡니다. 〈한겨레신문사〉에, 네, 거기 있지요. 황선생님을 꼭 좀 만나게... 네, 부탁입니다!》

그는 나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매우 안달아하고있었다. 나는 황석영이 기자들에게 소문을 놓으며 떠들썩하게 다니는 취미가 아니라는것을 알고있었으나 손님의 청을 고려하여 그를 들어놓았다. 했더니 상대는 방안 복도에서 다시 인사를 차리며 말했다.

《선생님, 용서하십시오. 저는 실은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혹시 면회를 거절당할까봐 거짓말했습니다.》

그가 주는 명함장을 열핏 보니 《동아일보》의 기자 최용원이라고 적혀있었다.

황석영을 만난 기자는 기뻐서 어쩔줄 몰라했다. 허리를 깊이 꺾어 절을 거듭하며 탄성을 질렀다. 분단을 넘어 북반부에 갔다는 작가를 영웅으로 보았던것이다. 나는 겨레로서의 그의 피를 믿기로 했다. 그 기자는 환회에 찬 거동으로 남조선사회가 황석영의 평양방문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지지하고있는가 하는것을 보여주고있었다.

그 기자는 본사의 지시로 베이징에 와서 머물면서 황석영을 선찬으로 만나려고 매일같이 비행장에 나들고 술한 호텔들을 수소문하면서 고생했다고 했다.

《오늘은 저의 명절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저는 이런 순간을 위하여 여러해나 기자생활을 해온것입니다.》

최기자는 작가에게 공화국에 대한 여러가지 소감을 물었고 작가는 요령을 잡아 진실하게 말했다. 기자는 즉석에서 전화로 서울의 본사에 상세한 보고를 했고 《동아일보》는 그날로 그 내용을 석간신문에 크게 보도했다.

이것이 단서가 되어 남조선의 수많은 신문사출판사들이 서울과 일본지부들에서 경쟁적으로 황석영에게 전화회견을 요청해왔다.

가슴후련한것은 그와 전화인터뷰를 한 수십명에 이르는 상대자들이 그의 공화국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열정적으로 지지해나선것이였다.

《지금 경향각지에서는 온통 문익환목사와 황석영선생이야기뿐이오.》, 《어떻게 축하할지 말을 못찾겠어요. 당국에선 야단치지만 우리 모두 황선생님 편입니다》, 《이북겨레들에게 남쪽 인사 잘 전하셨겠지요? 거기 사정 몹시 궁급합니다. 이북 방문기를 꼭 써주세요. 목이 타게 고대합니다.》

모두가 이런조로 찬양하고 고무했다.

진정 피줄은 어쩔수 없는것이였다. 미제와 남조선권력자들이 아무리 기겁을 하고 탄압해도 남조선민중은 이미 막을수 없는 힘으로 통일으로 흐르고있었다.

우리는 틈틈이 베이징 시내를 산책했다. 천단공원의 조용한 숲속에 앉아 줄담배를 태우기도 했고 인파로 가득찬 도심지대의 변화가와 고색질은 좁다란 골목길을 헤매기도 했으며 입에 맞는 중국요리를 찾아 찬청(식당)을 기웃거리기도 했다.

한번은 그렇게 헤매다가 《고려찬정》이라는 간판을 만났다. 얼씨구나 하고 거기에 들렀더니 예상대로 늙수그레한 조선인녀인이 경영하고있었다. 중국태생인 그 동포녀자는 호상소개로 우리가 평양과 서울에서 온 작가들이라는것을 알고는 눈이 휘둥그래지며 짜근 손뼉을 쳤다.

《야, -북남이 이렇게 친구가 되어 다니는수도 있군요! 기막히게 좋아요. 선생님들은 벌써 통일을 했군요. 미국놈이 원쑤지, 백성들 마음에야 무슨 분단이 있겠나요.》

너주인은 한턱 쓰겠다면서 무료로 맛좋은 요리를 냈다.

황석영과 나는 헤어지는 마지막순간까지 리별의 아픔같은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공연히 미리부터 속을 썩이는것은 우둔일것이다. 우리는 애써 통담을 하며 웃기를 잘했다.

나는 일본으로 떠나는 그를 베이징비행장에서 작별했다. 가슴에 빼곡한 뜨거운 정은 한사발의 물처럼 자칫하면 넘쳐 쏟아질것만 같았다. 활주로에선 비행기가 동음을 높이고있었다.

우리는 부둥켜안은채 어눌한 소리를 했다.

《황선생, 이러다간 비행기 놓치겠어. 안되겠어. 랭정하게 찢어집시다...》

《자, 그럼 랭정하게 찢어져요...》

랭정하게 찢어진다는 말은 내가 그에게서 배운 말이다. 남조선에서 애인들이나 친구들이 헤어지기 힘들 때 서로 그렇게 타이르고 웃으며 떠난다고 했다.

우리도 포옹을 풀고 웃으며 떨어졌다.

돌아보는 그의 얼굴이 흐려진것을 본 나의 가슴은 날카로운 쇠붙이에 할퀴우는것처럼 아프고 쓰렸다.

출장지에서

신리섭

1

웃음소리, 말소리... 활기에 넘치던 렬차칸안은 새벽녘이 가까와오자 점차 고즈넉해갔다.

정무원 ㄸ총국 한병준국장은 성애가 두텁게 낀 차창을 바라보며 깊은 사색에 잠겨있었다.

어제 낮까지만 해도 그는 이런 완행렬차를 타고 출장을 떠나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었다.

어제오후 그는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된 정무원협의회에 참가했었다. 일군들로부터 대건설 정형을 보고받으신 수령님께서는 R 촉매제가 긴장하여 수력발전소 언제건설에서 지장을 받고있는데 대하여 심려하시였다.

한병준국장은 그 심려의 교시를 받아안고 커다란 가책을 느끼었다.

수력발전소건설은 그의 사업범위밖의 일이였고 실상 총국에서 쓰는 촉매제는 언제건설에서 쓰는량에 비하면 새발의 피격이었다. 더구나 지금 총국산 하인 봉천기계공장에서 한 청년야금기사가 몇년전부터 연구해오는 R 촉매제를 쓰지 않는 새로운 주물법만 성공하면 촉매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며칠전에 촉매제공급지도서까지 떼였지만 회사에 받지 않겠다고 전화를 하고나서 그 정형을 료해하기 위해 이렇게 봉천기계공장으로 떠난 길이었다.

렬차는 서해안의 무연한 대지를 질풍같이 달리건만 몹시도 곱떠보였다.

앞의자에는 어느 도중역에서 오른 처녀가 알팍한 기술잡지를 펼쳐놓고 원주필로 책장의 여백에다 계산물이를 골똘히 해가며 깊은 사색에 잠겨있었다.

한병준은 담배를 입에 물고 무심결에 처녀가 읽는 책장에 눈길을 주었다.

《R 촉매제의 화학물리적특성과 그 경제적리용》이라는 글제목이 눈에 띄었다.

순간 두눈에 무겁게 실렸던 피로의 흔적은 가뭇없이 사라졌다.

(R 촉매제?!)

한병준은 호기심을 갖고 처녀의 얼굴을 훑어지게 쳐다보았다.

가름한 얼굴에 진한 눈섭과 조화를 이루어 리기가 비낀 두눈이며 선이 부드러운 코날과 꼭 다문 입술이 티없이 맑고 순진한 인상을 주는 처녀였다.

한병준은 이 렬차안에 자기외에 R 촉매제에 관심을 갖고있는 처녀가 있다는것이 놀랍고도 무척 반가웠다.

《처녀동문 그 촉매제에 관심이 큰 모양이구만.》

한병준의 말에 처녀는 놀라서 얼굴을 들더니 진정이 담긴 눈길을 반자 귀밑이 발갛하게 달아올랐다.

《저- 초형주물에서 R 촉매제대신 다른 방도가 없을가 해서...》

《이거 정말 반갑소. 나두 그래서 봉천기계공장에 출장가는 길인데 좀 자세히 대달라구.》

한병준은 문제해결의 비결이 처녀한테 있기라도 한듯 절반도 타지 못한 담배를 서둘러 꺼버리고 의자끝으로 나앉았다.

《봉천기계공장예요?!》

순간 처녀의 작을사한 입이 들썩하더니 함박꽃같은 미소가 확 피여오르고 속눈썹이 길다란 두눈이 그 어떤 기대를 담고 빛났다.

《동무도 그 공장에 있는게구만?》

《아닙니다. 전 5월8일기계공장 기술과에서 일합니다. 전... 아직 생각뿐입니다.》

처녀는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었다. 웬일인지 차분히 내려깔린 살눈섭밑 가장자리에 알수 없는 그늘이 비끼었다.

이때 봉천역에서 내릴 손님들은 준비하라는 렬차방송원의 목소리가 물리었다.

아쉬운 일이었다.

한병준은 어쩐지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만난 처녀와의 상봉이 렬차안에서 잠시 만났다 헤어지는 길동무로 생각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자체공급지도서를 떼고서도 촉매제를 받지 않은것은 이 처녀를 만나자고 그런것 같았고 또 그래서 이 렬차에 오른것 같았다. 처녀와 헤어지는것이 그래서 더 서운한지 몰랐다.

들어오는 렬차와 나가는 렬차가 서로 어기게 돼있는 역구내는 두 렬차에 타야 할 손님들로 몹시 붐비었다.

한병준은 렬차에서 내리자 그 혼잡속에 밀려들었다.

거무칙칙하게 흐린 하늘에서는 흰 눈썹이 날리고 있었다.

《아니 국장동지가 아니십니까?》

밤색외투를 입은 체격이 좋은 사람이 반갑게 인사를 하며 앞으로 다가왔다. 봉천기계공장 량흥규 지배인이었다.

《안녕하오? 그런데 어델 가자고 떠났소?》

《월말이 가까왔는데 촉매제가 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총국에 가는 길입니다.》

흰눈이 내리는 거리의 저 멀리 모퉁이에서 불시

에 기적소리가 울렸다. 남행열차가 나오는것이였다.

《하마트면 길이 어긋날뻔했군. 나도 그 촉매제때문에 오는 길ियो.》

《그럼 촉매제를 가지고 오십니까?》

《아니, 촉매제 공급지도서는 내게 그냥 있소. 공장으로 가서 토론합시다.》

량홍규의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고 실망의 그늘이 비끼였다.

《허허...》

그는 얼굴을 밝게 하려고 애쓰며 서둘러 뒤말을 이었다.

《촉매제없이 공장으로 가서 뭘합니까.》

《인젠 그 지도서가 필요없을것 같소.》

기관차의 소음으로 한병준의 말소리는 높아졌다.

《?...》

량홍규는 옆에 와 선 열차와 낮빛이 침중해보이는 한병준의 얼굴을 어정쩡한 눈길로 더듬었다.

열차의 승강대를 오르는 손님들의 분주한 움직임도 뜨음해졌다.

저쪽에서 운전지휘원이 푸른 신호등을 흔들며 출발신호를 알린다.

《안녕히 가십시오.》

처녀가 승강대에서 한병준에게 인사를 했다. 그제서야 한병준은 지배인과 이야기하느라고 처녀를 잊었다는것을 깨닫고 황황히 돌아섰다.

《이런 인사불성이라구야. 잘 가오. 꼭 성공하라고-》

뿡- 전기기관차는 짙막한 기적을 울린다.

두 열차는 자기 품에 실으려던 손님을 놓쳐버린 데 대한 불만과 만나자 헤어지는 두사람의 작별이 서운해서인지 천천히 굴러간다.

《누굽니까?》

《동무나 나보다 못지 않게 촉매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동무요.》

《그래요?!》

...두사람은 맨나중에야 나들문을 나섰다.

크지 않은 지방도시의 새벽길은 고요한 정적속에서 잠에 취해있었다.

그들은 눈이 하얗게 내린 길을 따라 공장을 향해 걸어갔다 한병준보다 키가 한뼘은 더 큰 량홍규는 흙에서부터 줄곧 한가지 생각, 그의 출장길에 대해서 신경을 썼다.

그는 자주 한병준의 얼굴색을 살피었다.

약간 쪼프린 두눈이며 너무죽한 얼굴에는 려행에서 지친 피로의 흔적이 나타나있었다. 그의 량미간에 가늘게 패인 주름살이며 눈언저리에 자리잡은 거무스레한 빛, 꼭 다문 두툼한 입술, 그 모든것은 전쟁에서 피도 흘렸고 20여년간의 로동생활에서 땀도 흘린, 많은것을 체험한 웅심깊은 일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도 남는다.

한병준은 격식과 틀이 없고 말을 해도 예돌줄 모르고 직방치기로 하는 소탈한 사람이였다. 때문에 량홍규는 그를 대할 때면 하고싶은 말을 허물없이 하곤했다. 바로 이런 국장이 촉매제때문에 내려온 다면서 입을 꼭 다물고있으니 량홍규는 가늠할수 없는 불안이 가슴에 서려들면서 마음이 번거로워졌다.

《우리가 나라에 손을 내밀지 않고서도 주물을 완성할 방법이 없을까?》 하고나서 한병준은 정무원 회의회때의 자책과 죄의식이 가슴속에 되살아나서 인지 그만 입을 꼭 다물었다. 두사람사이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량홍규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힘들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새 주물법을 완성할 때까지만이라도 촉매제를 보장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면 될것 같소?》

《글쎄... 과학연구를 어떻게 언제까지다 허구 줄을 긋기야 하겠습니까.》

《하긴 그렇지.》

한병준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그것을 시작한지가 인젠 3년째지. 너무 오래거든.》

《국장동지, 그게 어디 밥먹듯 쉬운 일입니까. 실패는 성공의 열쇠라구 하는데 그 과정에 경험과 교훈이 축적되고 그 토대위에서 성공하는것이지요.》

《실패는 성공의 열쇠라- 어쩐지 지배인동무한테서 그런 말을 듣는다는게 놀랍소.》

한병준은 유감이라는듯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물론 그 말에는 일정한 타당성이 있소. 하지만 충성심과 실무능력의 부족에서 오는 실패의 책임감을 변명하기 위한 방패로 삼기 위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 없지 않지요...》

《에-에?...》

《허허, 달리 생각지 마오, 내가 지배인동무를 믿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니... 하여간 지배인동무의 사업에서 그 말이 좌우명으로 되지 않기를 바라오.》

《헛참. 국장동지두... 저기가 우리 집인데 들어가 식사나 하고 나갑시다.》

량홍규는 길옆에서 얼마간 떨어져있는 단층집을 가리켰다.

《지배인동무네 집이야 공장옆이 아니요?》

《작년가을에 새로 이사했습니다.》

《음, 집들이를 단단히 해야겠소.》

연분홍빛 휘장이 아늑하게 드리워져있는 창문으로부터 파르스레한 부드러운 형광등불빛이 저 멀리

수도에서 날려보내는 바이올린독주의 그윽한 선율과 어울려 눈내리는 새벽대기속에 흐르고있다.

《지배인동무나 어서 들어가보오. 내가 지금 들어가야 부인의 직장출근이 늦어질텐데 후에 들리지.》

한병준은 그의 권고를 마다하고 내쳐 걸었다.

2

주물공으로부터 작업반장, 직장장, 부지배인을 거쳐 지배인이 된 량홍규는 기술을 알았고 사업에서 전개력도 있었고 작품도 좋았다. 어려운 일이 제기되면 먼저 팔을 부르걸고 나섰고 창의고안 같은 것이 제기되면 적극 지지해주기도 했다.

중국에서도 그는 《담이 큰 지배인》, 《배짱있는 지배인》으로 소문이 났었다.

10여년전 한병준이가 국장사업을 갖 시작했을 때 공작기계부속품 Z-48호를 생산에 받아들이는 문제를 가지고 중국산하기업소 지배인들의 협의회가 있었다. 원래 부속품의 열처리와 가공공정이 복잡하여 어떤 방법으로 생산해야 할지 한다하는 공장들에서도 선뜻 나서지를 못하고있는데 량홍규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우리 공장에서 하였습니다.》

지방산업에 속해있다가 갖 중국으로 넘어온 기업소인것만큼 큰 공장들에서도 주저하는것을 자진해나서니 한병준은 반갑기도 하고 의문도 생겨 그 작은 공장에서 꽤 할수 있겠는가고 물었다.

《국장동지, 작은거야 공장의 생산설비와 규모이지 사람의 담도 작겠습니까.》

한병준은 무겁던 가슴속이 홀 열리는것만 같았다. 생산설비를 보기전에 사람을 먼저 보는 높은 안목과 자세, 통이 크고 배짱있는 이런 일군을 보는것으로 하여 가슴이 부풀어올랐다. 그점에서 지금 역시 량홍규는 변함이 없는것 같다.

중국지도원들이 공장에 갔다올적마다 지배인이 새 주물법을 적극 도와준다고 했다. 또 지배인 자신이 중국에 올 때면 늘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했고 실지 이번에 내려와보니 그것이 모두 사실인것 같았다. 그는 일부 사람들이 새 주물법을 두고 머리를 기웃거리는데 용납하지 않았고 새 주물법을 연구하는 정찬식기사가 합숙생활을 하고있는것을 고려하여 합숙방도 따로 한칸 내주게 하였다.

그런데 생소한 초형주물법을 도입하는데 서너달밖에 안걸렸는데 일정한 기술적도대우에서 진행되고있는 새 주물법이 3년이 넘도록 끝을 보지 못하고있었다.

(도대체 이 원인이 어데 있는가?)

한병준은 주물현장구석에 쌓여있는 새 주물법으로 부어낸 부속품의 녹을 벗기면서 줄곧 이 한가지 생각만을 좇고있었다.

아직 출근시간전이어서 작업장은 피자누룩하다.

옆에서 인기척소리가 들렸다. 한병준은 고개를 돌렸다. 밥일을 했는지 기름묻은 솜옷을 걸친 정찬식기사가 부유스름한 전등불을 등지고 서있었다. 수면부족으로 피발이 선 두눈에는 선망의 표정이 실려있었다.

한병준은 앓은뱅이철관의자를 끌어다놓았다. 수척한 젊은 기사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저리었다.

《힘들지? 성공한 다음에 보면 별게 아닌것이 사람의 속을 태우거든. 그래 언제 또 봇겠소?》

《저- 축매제가 들어와야...》

《축매제라니? 그건 무슨 소리요?》

《지금 축매제가 떨어져서 생산을 못하기때문에 실험로를 죽였습니다. 실험 몇개 하는것때문에 로를 돌릴수는 없고...》

《?...》

한병준은 아연해졌다. 참말로 생각밖의 일이었다. (모를 일이군. 이렇게 관심밖에 놓이다니...)

공교롭게도 이때 량홍규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 보나 인상좋은 미소가 떠돌고있었다.

《어머니한테서 편지가 왔구만. 편지가 잦은걸보니 어머니가 몹시 기다리는것 같은데 아무때든 한번 다녀오도록 하오.》

찬식기사에게 편지를 내미는 량홍규의 태도에는 웃사람다운 너그러움이 있었다.

찬식은 걸봉에 씌여진 주소를 한번 훑어보더니 그냥 주머니에 쑤셔넣었다. 그의 얼굴에 반가움보다도 어딘가 그들이 비끼는것을 보고 한병준은 의아해졌다.

세사람은 작업장을 돌아보았다.

작업대옆에 규모있게 가려져있는 초형주물형타 무지앞에서 량홍규는 형타 하나를 집어들며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축매제가 떨어져서 이렇게 쌓이지 않았습니까.》

한병준은 알만하다는듯 고개를 끄덕이며 형타무지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그것을 만드느라고 들끓던 지난 일들이 삼삼히 떠올랐다.

지배인은 공장옆에 있던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밥을 날라다 노동자들과 같이 모여앉아 먹으며 일했다. 그때 공장에 자주 내려오군했던 한병준은 휴게실에서 지배인의 밥그릇을 여러번 축내군했다.

《지배인동무, 이 초형을 만들던 때가 생각나오?》

《허, 그걸 어떻게 만든것이라고 잊겠습니까. 걸은 비록 늙긴 했어도 정신만이야 아직 변함이 없지요.》

량홍규는 그때 일이 되살아오는듯 얼굴이 불깃해지며 들고있는 형타를 애모쁜 손길로 더듬었다. 그것은 자기의 힘과 지혜와 땀이 깃든것에 대한 남다른 애착에서 오는것이였다. 한병준은 그의 이러한 심정을 충분히 짐작할수 있었다.

한병준은 작업대앞에 놓인 대패질을 얼추 한 긴 절상에 걸터앉았다.

《모르겠소. 새 주물법을 질질 끄는걸 보니 지배인동무 정열이 그전만 못한것 같거든. 그대 지배인동무 생각엔 어떻소? 내 생각엔 이 초형이 낡은것 같은데 로속에 처넣든가 아예 치워버렸으면 하는데...》

순간 량홍규와 정찬식의 얼굴에는 놀라는 기색이 어리었다.

《하긴 10여년이 됐으니 낡았지요. 허지만 새 주물법이 생산을 어떻게 담보하는가에 달려있는것만큼 그건 나보다도 기사동무가...》

하고 량홍규는 정찬식이한테 말끝을 넘겼다.

《그건 저- 아직...》

정찬식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거렸다.

《?...》

출입문밖에서 신발터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다. 경비원이 들어와서 정무원에서 전화가 왔다고 한병준에게 알렸다. 그는 지배인에게 오늘부터 로를 다시 살리자고 당부하고나서 자리를 떴다.

3

한낮이 지나서 로가 다시 살아났다.

천길 지심깊은곳에서 들려오듯 용선로의 둔중한 음향이 고르롭게 울리는 작업장구내에 류다른 활기가 차넘쳤다.

주물공들은 물론 가다오다 들려보군하는 다른 직장 사람들의 얼굴에도 새로운 환희와 성공에 대한 기대가 어려있었다.

작업복차림을 한 한병준은 주물이 시작되자부터 팔을 걷고나서 주홍빛을 띤 잘익은 쇠물을 바가지에 받아들고 형타에 부어넣군하였다. 얼굴이며 목덜미에 팔알같은 땀발이 내돋쳤다. 누구보다 바쁜것은 정찬식이었다. 그는 작업과정을 기술적요구에 충족시킨느라고 이마의 땀도 흠칠 사이없이 뛰어나왔다.

그는 매개 형타의 중심에 낸 구멍에 담배대만한 철사를 꽂아놓군하였다. 한병준은 쇠물 한바가지를 다 붓고나서 왜 그렇게 하는가고 물었다. 정찬식은 쇠물이 랭각될 때 제품 가운데부분은 가늘고 랑쪽 끝머리가 무겁기때문에 서로 당기는 장력이 작용하는데 그때 균열이 간다고 설명했다. 서로 당기는 힘의 중심에 철사를 꽂았더니 균열이 없는 합격품비율이 한결 나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무엇때문인지 아직 강도가 약한 오작품이 적지 않다고 안타까워했다.

한병준은 그 말이 신통하게 여겨져 주위를 둘러보았다. 주물공들의 작업동작은 매우 세련되어있었다.

(밖으로 향하는 장력을 중심축에 끌어당긴다...

뉴턴은 물질은 서로 당긴다는 만유인력법칙을 발

견하였지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칙은 못내쫓단 말인가. 허참...)

한병준은 이들의 실패원인이 어데 있는것인가고 골똘히 생각해보았다.

주물작업이 끝나자 한병준은 정찬식기사가 내미는 목수건을 받아들며 옆에 선 청년에게 담배갑을 내밀었다.

《...뭘 우물쭈물하오. 동무네도 와서 한대씩 태우오.》

한병준은 담배갑을 툭 떼서 작업대우에 올려놓았다. 노동자들은 꺼내들었던 자기 담배대는 귀바퀴에 끼우고 조금도 어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담배를 꺼내갔다. 잠간사이에 담배 한갑이 동이 났다.

뒤에 섰던 량홍규는 국장의 텅빈 담배갑과 한대씩 붙여물고는 기분 좋게 연기를 내뿜군하는 노동자들을 민망스럽게 바라보았다.

한 녀인이 탄산수주전자를 들고왔다. 고뿌에 찰랑거리게 부은 탄산수를 받아든 한병준은 단숨에 쭉 마셔버렸다.

《어- 시원한게 좋구만. 한고뿌 더 주우다.》

노동자들은 탄산수를 곱배기로 들이키는 한병준을 즐겁게 바라보며 입을 멍싹멍싹했다.

《난 평양에 있을 때두 몸이 지긋지긋하면 이 탄산수생각이 나더구만. 지배인동무도 한고뿌 하오.》

그는 량홍규한테 고뿌를 내밀었다.

화실의 불빛에 허물없이 둘러앉아 담배를 피우며 탄산수를 마시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맞은편벽에서 너울거렸다.

력기선수처럼 어깨가 짙 버그러진 청년이 이제부터 촉매제가 들어오지 않는다는게 사실인가고 한걸음 나왔으며 물었다.

《글쎄... 그건 동무들한테 달린거요. 만약 공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소?》

긴장해진 눈길들이 국장한테 쏠렸다.

한병준은 지배인한테 말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된 정무원협의회의 내용을 전달하고나서 천천히 말을 이었다.

《동무들, 우리가 일을 쓰게 못해 걱정을 끼쳐드린다면 그게 어디 혁명전사로서의 의리가 됐는가 말이요. 그래서 촉매제공급지도서를 떼긴 했지만 동무들을 믿구 이렇게 왔소. 그런데 새 주물법이 제대로 안되거든. 원인이 어데 있는가? 이게 문제란 말이요.》

송풍기의 고르로운 음향과 어울린 한병준의 목소리는 낮으나 절절했다.

《국장동지,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린 촉매제가 그렇게 귀한줄은 몰랐었습니다.》

《우리가 그 원인을 꼭 찾겠습니다.》

주위에서 신심에 찬 목소리들이 들렸다.

량홍규가 슬그머니 뒤로 한걸음 물러서는것이 보이었다. 그의 얼굴은 여느때없이 심중해보였다.

4

저녁녘이었다. 찬식기사와 함께 그의 합숙방에 들어서던 한병준은 문지방에서 굳어지고말았다.

책상우에 널려있는 도면장들이며 몇권의 기술서적들, 그밑과 출입문구석에 무저있는 주물형타들과 공구들, 한쪽대가리가 부러진 주물제품이 침대밖으로 뺏여져나와 문을 열고 선 한병준을 마중하고 있었다.

벽밀에는 침대 두개가 놓여있었다.

(합숙이 아니라 실험실이군.)

했으나 스스럼없이 들어서는 한병준의 입에서는 전혀 탄소리가 흘러나왔다.

《역시 정열가가 다르구만. 자, 어느 자리에서 자라우?》

그리고는 솜옷을 벗어 벽의 말코지에 걸고나서 그가 가리키는 침대우에 걸터앉았다. 두다리를 쭉 펴니 뺨마디들에서 푹푹 관절 꺾이는 소리가 나면서 온몸이 노곤해졌다. 구석에 있는 형타들이 또다시 눈을 아프게 자극했다.

한병준은 이 순간 부드러운 불빛이 흘러나오던 지배인네 집 연분홍빛 창문휘장이 대조적으로 떠올랐다.

그는 눈길을 돌렸다. 침대에 썩은 백포머 머리맡에 개여놓은 이불이 눈에 띄었다.

두고온 자기 집 생각이 저절로 났다.

안해의 손길로 하여 침대요는 늘 보아야 눈이 부시도록 하얗고 침대는 몸이 잠기도록 폭신했다. 그는 집에서 극상 잠을 잔대야 다섯시간 정도였다. 허나 출장지에 나가 여섯, 일곱 시간을 잔때보다 오히려 피곤이 쭉 풀리고 몸이 건뜻해지곤했다. 그것은 바로 안해의 살뜰한 손길, 자식들의 행복한 체취였기때문이라.

그제서야 한병준은 독신생활을 하고있는 이 젊은이한테 무엇이 부족하겠는가를 생각하게 되었다.

오늘 받은 편지와 얼굴에 때때로 비끼곤하던 그늘에 대해서 짚이는데 있었다.

그는 담배갑을 꺼내었다.

《여기 와서 담배를 너무 피우는군. 우리 집사람이 알면 또 야단을 하겠는걸.》

《아니 담배 피우는것까지...》

정찬식이 호기심을 갖고 한병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말도 마오. 집에선 하루에 열대밖에 피우지 못한다우.》

한병준은 담배대에 성냥을 그어댔다.

《난 군대복무할 때부터 <담배지골> 이라고 대대에서 소문이 났댔다우. 제대되어 로동생활을 시작한지 이듬해였댔소.

하루는 직장에서 협의회를 하는데 의견들이 잘맞지 않아 회의가 길어졌댔소. 담배생각에 목구멍이

췌서 건딜수가 있어야지. 끝내 참지 못하고 위생실에 간다고 핑계대고는 담배 피우러 나갔댔소.》

한병준은 담배불이 스러져가자 맛스레 몇모금 연거퍼 빨았다. 빨간 불이 일어났다.

《국장동지두요?!...》

《여보, 국장자리가 뭐 타고난것이라고 제대되자부터 국장을 했겔소. 담배 두대를 연거퍼 태우구 속이 후련해서 들어와았으니 옆에 앉았던 고수머리처녀가 눈살이 꺾였지 않겔소. 담배냄새가 처녀의 기분을 잡쳤던 모양이야.》

(자, 이젠 시집을 가면 담배 안피우는 남자를 골라가려나.) 하는 배심으로 처녀가 눈살을 찌프리든 코살을 찌프리든 관계없이 앉아있었지.

그런데 다음날 작업총화때 처녀가 그걸 가지고 비판하지 않겔소. 뭐 공중도덕이 없다나. 글썄 담배 피우다 비판받기는 처음이요. 헌데 사람의 운명이란 모르겠더군. 그후부터 어떻게 됐는지 그 처녀와 정분이 생기지 않았겔소.》

《그래서요?...》

정찬식은 한병준이가 국장이 아니라 허물없는 동기간처럼 생각했던지 호기심이 잔뜩 동해서 다우쳐 물었다.

《그래서라니, 정분이 났으니 식기전에 제격 가정을 이룰수밖에. 자, 처녀때 총각 담배 피우는걸 비판하댔으니 부부가 된후에야 오죽하겔소. 어데 출장이라도 가게 되면 옷차림에 대해서도 관심이 이만저만 아니지.》

이번에도 여기로 출장은다니까 와이샤쓰대신 작업복을 넣더란말이요. 하긴 내가 넥타이나 매구 현장에 나와 돌아다닌다면 동무들이 날 어떻게 볼텐가. 너자란 바로 이런가 보오. 참 동무는 언제 결혼식을 하려나?》

한병준은 슬쩍 이야기머리를 돌렸다.

《뭐 아직은...》

《애인은 있소?》

《예, 그런데 우린...》

드디어 정찬식은 아직까지 그 누구한테도 이야기한적 없었던 자기들의 사랑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5년전 대학을 졸업하고 공장에 올 때에 동창생처녀와 미래가 정해져있었다. 레의 꿈많은 청년들이 그러하듯 그들 역시 사회에서 무엇인가 큰일을 하나 해놓고 가정을 이룰것을 약속했다.

정찬식은 곧 촉매제를 쓰지 않는 새 주물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연구성과는 손에 잡힐듯말듯하면서 오늘까지도 시원한 전망이 열리지 않고있다. 정찬식의 나이가 금년에 서른, 처녀나이는 스물여덟, 그들은 이 모든것을 외면했다. 량집 부모들은 처녀총각으로 늙는다고 요즘에 와서 걱정이 부쩍 잦아졌다.

이것으로 하여 정찬식의 얼굴에 때때로 그늘이 비끼곤했다.

한병준은 문득 열차칸에서 R 촉매제에 대한 기술 잡지를 들여다보던 순박한 처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허나 오랜 생활을 통해서 우연이란것에 기대를 걸지 않는데 습관된 한병준은 머리를 저었다. 열차칸에서 잠시 만났다 헤어진 이름모를 처녀를 그의 애인이라고 믿기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었다.

꼭 다문 두툼한 입술과 눈언저리가 꺼면 두눈에는 심중한 빛이 떠돌았다.

(애인은 곁에서 멀리 떨어져있고 지배인은 이들의 사랑을 모르고있으니 결국 찬식이 혼자힘으로 해온것이 아닌가.)

한병준은 찬식에 대한 애모뿐 동정심보다도 오늘 낮에 량홍규에게 정찬식이한테 애인이 있는가고 물었을 때 자기는 잘 모르겠노라고, 없기에 그러지 있다면야 왜 결혼을 안하겠는가고 대수롭지 않게 여가던 일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과학의 세계란 아무리 작고 단순한것이라도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에게서 값높은 정력과 탐구와 피나는 노력을 요구하는것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청춘도, 때로는 일생의 귀중한 모든것도 아끼지 않는것이다. 때문에 일군들은 이들의 구체적인 생활에 친부모이상의 관심을 돌려야 한다.

일군들이 성의껏 이끌어주고 도와줄 때 그들이 하는 자그마한 일일지라도 나라의 귀중한 재부로 빛을 낼수 있는것이다.

그래서 어느 초소에나 일군들이 필요한것이고 당에서는 사람들의 충복이 되라고 요구하는것이 아닌가. 그런데 량홍규는...

쫓쿵, 쫓쿵... 얼마 멀지 않은 단조장에서 자동하마의 불동적인 선물이 그의 생각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며 규칙적으로 들려오고있었다.

다음날 저녁이었다.

사무실에서 한병준이와 량홍규가 래달생산계획을 의논하고있는데 정찬식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여느때 볼수 없던 환희의 빛이 어려있었다.

《국장동지, 원인을 찾았습니다.》

《뭐라구?》

한병준은 다우쳐 물었다.

《로동자동무들과 토론했더니 첨가제농도가 형태제작에서 고르롭게 되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밤 한병준은 그와 같이 자면서 오작원인의 외부적영향에도 있을수 있으니 로동자들과 토론해보라고 이야기했었다. 그래서 정찬식은 온종일 현장에 나가 토론을 거듭한 끝에 첨가제를 사람의 손로동으로 하기때문에 똑같은 비율로 섞이지 못한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즉 첨가제가 적게 들어간 형타는 쇠물이 식을 때 강도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던 것이다.

한병준은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 흔들었다.

《기사동무, 수고했소.》

량홍규도 그의 성과를 기뻐했다.

《저... 한번 대답하게 해보았으면 합니다.》

《어떻게?》

《허락한다면 하루분량으로 말입니다.》

《시험생산을 해보았소?》

말없이 앉아있던 량홍규가 불쑥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나 그속에는 철부지의 무모함을 꾸짖듯하는 년장자의 너그러운 음성이 섞여있었다.

《오늘낮에 몇개 해보았는데 모두 합격입니다.》

《원인을 찾았으니 합격품이 나오겠지. 허지만 시험생산에서는 기술이 중요하지만 공업적생산에서는 숙련과 경험도 무시할수 없단말이요. 이불깃바가며 발퍼랬다고 이 모든것이 담보돼야지 덮어놓고 많이 붓기만 했다가 무리오작이 나면 어찌겠소.》

조만간 자기 흥분을 걸로 표현하지 않는 량홍규는 시종 너그러운 표정을 지으며 아량있게 이야기했다. 찬식은 입술을 감쌀뿐 대답을 못했다. 한병준은 천천히 량홍규한테로 돌아섰다.

《물론 책임문제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당에서 말하는 책임문제는 주인답게 일했는가 못했는가 하는 것이 아니겠소.》

기사동무 말대로 한번 대답하게 밀어봅시다. 지배인동무야 원래 통이 큰 지배인이라고 소문났겠지 않았소. 그때처럼 한번 배짱을 부려보우.》

《허허... 내가 뭐 속통이 좁아서 그런건 아닙니다. 국장동지가 좋다면 해봅시다.》

량홍규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다.

5

요즘 한병준은 분명한 나날을 보냈다.

총국에서와 정무원의 유관부서들에서는 그의 의견들을 받기 위해 날이 갈수록 전화가 잦아졌고 이날 아침 부국장은 출장을 끝내고 돌아와주었으면 하는 의향을 표시하기도 했다.

물론 한병준은 정찬식이 연구하는 새 주물법이 오늘에 와서 거의 성공적이라는 결론을 지을수 있을만큼 성숙된 조건에서 총국으로 돌아갈 생각도 해보았다. 그때마다 그는 자신을 다잡군했다.

오늘은 하나의 기술적문제를 해결하고 간다 하지만 앞으로 다른 문제들이 또 제기되지 않는다고 단언할수 있는가?

출장길, 한병준은 처음으로 자신과 일군들이 견게 되는 출장길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다.

이제 자기가 총국으로 돌아간다고 하여도 별로 낯할 사람은 없을것이다. 그러나 새 주물법이 3년이나 지연된데는 지난날 총국일군들의 유람식지도가 어느정도 부정적작용을 한것이 아니겠는가,

하다면 일군들의 출장길은 웅당 문제의 결린 고리를 풀고 제때에 해결할뿐만아니라 나아가서 있을수 있는 문제를 앞질러야 하는것이다.

그는 다시 현장에서 로동자들과 담화도 했고 기

술부서 기사들과 밤늦도록 논쟁을 하기도 했다.

그 파정에 량홍규의 사업과 생활에서 새로운 구석을 보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기술발전전망계획서와 종업원총회 보고서, 결정서들에 새 주물법이 약국의 감초처럼 빠짐없이 올라있으면서도 그를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이 진행된것은 거의 없었다.

깊이 파고들지 않으면 스쳐버리기 쉬운, 그래서 지난 시기 지도원들이 공장에 여러번 내려오면서도 보지 못한 결함이었다.

한병준은 믿음을 배반당한 실망과 모멸감과도 같은 감정이 가슴속에 피어올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섰다. 정오의 해열이 호호호호 내려쬐이는 창밖은 다가오는 봄맞이 공론을 하듯 참새들이 추녀끝에서 분주하게 재잘거리고있다. 그의 눈앞에는 실패는 성공의 열쇠라고 하던 량홍규의 목소리며 새 주물법 시험을 적극 내민다고 말은 하면서도 촉매제가 떨어졌다고로 세워놓은 일이며 종업원총회결정서에 기입된 수자는 알고있으면서도 찬식에게 애인이 있는지는 모르고있는 량홍규의 모습이 구름떼처럼 꾸역꾸역 떠올랐다.

부드럽고 아늑한 불빛이 흘러나오던 연분홍빛휘장이 드리운, 새로 지은 지배인네 집과 기름물은 작업복이 걸린 벽밀에 주물제품들이 구석구석 쌓여있던 찬식의 호실이 명암과도 같이 뚜렷한 대조를 이루면서 그의 눈굽을 따갑게 지지였다.

촉매제를 절약하기 위해 애쓰는 찬식의 일을 제일처럼은 생각 못했다 해도 다소나마 일꾼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았다면 자기 집을 덩실하게 지을 때 시험실로 쓸 자그마한 방 한칸쯤은 췌어야 할게 아닌가.

한병준은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팠다. 한 일꾼의 이런 문제를 시급히 바로잡아주어야 한다는 의무감도 의무감이었지만 그 보다도 당에서 것처럼 경계하며 가지 말라고 충고하는 안일과 보신의 길로 가는 량홍규가 측은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모자를 눌러쓰고 문을 나섰다.

주물현장에 들어선 한병준은 작업장안이 그전과 달리 활기가 넘치는것을 느꼈다. 노동자들이 주물제품을 놓고 둘러서서 웃고 떠들고있었다. 지배인이 먼저 한병준을 알아보고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주물품이 들려있었다.

《국장동지, 일이 제대로 되는것 같습니다. 합격품이 172개 나왔습니다.》

《172개라...》

한병준은 속으로 계산을 하느라고 눈을 습벅이더니 《그럼 69.8%가 아니요.》 하고 반색했다.

《예, 조금만 더 추진시키면 국가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올려낼것 같습니다.》

《수고했소.》

《수고랄게 있습니까. 저야 뭐 방조자에 불과하지

요. 허허...》

량홍규는 어줍게 미소를 지었다.

한병준의 얼굴은 굳어졌다. 버들잎같이 투한 눈썹이 코등으로 좁혀지고 다정하던 눈이 뻥뻥한 사색의 막으로 덮여있다. 그는 감정을 억제하고 돌아섰다.

한병준은 옆에 선 정찬식의 손을 뜨겁게 잡아흔들었다.

《국장동지, 오작품이 더러 있습니다. 우선 저 형태제작공정을 자동화해야겠습니다.》

찬식의 얼굴에는 성공에 대한 기쁨보다도 자책의 표정이 더 진했다.

한병준은 눈굽이 흐려질것만 같은 심정에 잠기였다. 그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질수록 그의 가슴속에서는 새로운 결심이 꿈틀거렸다.

《그게 힘든 문제겠지?》

《아닙니다. 뭐 별루 품먹을것이 없을것 같습니다.》

《그럼 좋소. 전번에도 얼핏 이야기했지만 초형이 인제는 나왔소. 나왔것은 언제나 새것이 자라는데 장애로 되기 마련인데 로속에 집어넣든가 없애버리자는거요. 동무네 생각은 어땠소?》

《?!...》

누구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위는 물뿌린듯했다.

《저, 한가지 물어봐도 좋겠습니까?》

력기선수처럼 어깨가 짙 버그러진 청년이 량홍규를 결눈질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서 말하오.》

《국장동지는 언제 떠나시겠습니까?》

《?!...》

한병준은 선뜻 대답할수가 없었다. 그 물음에는 인사치레가 아니라 보다 절박한 사정이 어려있는듯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자기한테서 무엇을 바라는지를 느꼈다.

한병준은 량홍규한테 얼굴을 돌렸다.

량홍규는 그의 눈길을 받자 슬며시 고개를 돌렸다. 뜻밖에도 국장앞에서 자기 립장이 이렇게 웅색해질줄은 몰랐었다. 청년은 국장앞에서 지배인, 자기를 비판한것이였다.

(집안당신은 손주녀석이 시킨다더니만.)

화로불을 뒤집어쓴듯 얼굴이 벌개진 량홍규는 담배를 꺼내들었으나 불붙일념은 하지 않았다.

한병준은 얼굴을 돌렸다.

《난 새 주물법이 성공할수만 있다면 인제라도 떠나겠소.》

《국장동지, 그렇다면 저 초형기구들을 없애버리시다.》

순간 한병준은 가슴이 후터워졌다.

《찬식기사동무 생각은 어땠소?》

《저도 찬성입니다.》

이때 량홍규가 이야기에 끼여들었다.

《기사동무, 69.8%라는 수자는 일정한 성공을 담보하지만 그건 시험생산수자요, 국가에서 요구하는 수준과는 아직 차이가 있단말이요. 그런 조건에서 초형을 없애버리기는 때가 이르지 않을까?》

한병준의 낯색은 심중해졌다. 그는 이 순간 의사가 렌트겐투시경으로 환자의 가슴을 들여다보듯 량홍규의 마음속을 살살이 꿰뚫어보고있었다.

《그러면 지배인동문 반대인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반대하는게 아니라 좀더 현실적인 대책을 탐구한 다음에 없애자는것입니다. 가령 그것을 다 없애버렸다가 69%에서 더 전진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나도 그 초형기구들을 없애버리는데 찬성합니다. 낡았으니까요.》

량홍규는 마지막말에 그루를 박았다.

한병준은 대답을 못했다. 그는 향방을 알길없는 갈림길에 서있는듯한 심정이였다.

국가계획수행에 지장을 준다면 그때는 누구도 책임앞에서 외면할수 없거니와 외면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량홍규의 말이 옳지 않은가.

다음순간 한병준은 언제 떠나겠는가고 묻던 청년이 자기를 지켜보고있음을 깨닫자 귀뿌리가 뜨끈해졌다.

대중의 믿음과 기대, 우리 일군들한테 이보다 더 큰 긍지와 보람이 어데 있겠는가. 그들의 신뢰속에서 산다는것은 그만큼 당에 충신했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동요를 하다니...

실패의 책임은 피하고 성공의 기쁨만 나누는것이 라면 무슨 일군이라.

한병준은 초형을 없애버리는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당정책을 옹호관철함에 있어서 우리 일군들이 지녀야 할 립장과 자세에 관한 문제라는것을 더욱 절실히 느꼈다.

《기사동무, 촉매제를 절약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문제요. 당정책관철에서 장애로 되는 낡고 거칩스러운것들은 제때에 없애버려야 하오. 책임은 내가 지겠소. 그런 책임을 지기 위해서 국장이 있고 지배인이 있는것이 아니겠소. 그렇지 않소, 기사동무?》

《국장동지-》

찬식의 두눈에 맑은 이슬이 어리였다.

얼마후 한병준은 량홍규를 데리고 휴계실안으로 들어갔다. 두사람은 기름때에 절은 책상을 사이두고 담배를 붙여물었다. 무겁고도 팽팽한 분위기가 방안의 공기를 압박했다.

한병준은 곡선을 그리며 퍼지는 파르스름한 연기속에 한 일군의 운명문제가 있길라도 하듯 연기타래에 눈길을 준채 말이 없었다.

량홍규는 마음의 탕개가 조여졌다. 한참후에 한병준이 입을 열었다.

《지배인동무, 난 요즘 우리 혁명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군하오. 58

년도 대고조가 일어나던 때 그 장애물들은 체본색 그대로 나타났소. 그래서 눈에 잘 띄웠지. 당의 두리에 한마음으로 뭉친 군중의 뒤탈격을 받고는 깨끗이 숙청되었소. 그러나 90년대의 열풍이 몰아치는 오늘 보신의 현란한 갑옷을 몸에 두른 사람들이 간혹 나타나기 시작했소. 대오내에서 눈에 잘 띄이지도 않고 걸으로 보긴 아주 충실하고 진실한것처럼말이요. 그리고는 당과 외교를 하려고 한단말이요.》

한병준은 속이 타는듯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량홍규의 얼굴은 수수떡처럼 벌개졌다.

《동무한테도 그런 경향이 있는것 같소. 동무는 새 주물법의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전에 먼저 보수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을가보아 겁부터 먹었던말이요. 그래서 회의때 기술적문제가 납득이 잘 안돼서 머리를 기웃거리는 사람들에게 먼저 보수주의자라고 비판을 했고 말끝마다 이야기했소.

하지만 실제적인 대책은 세워주지 않았소. 그건 실패하는 경우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였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나두 찬식동무의 사업을 힘껏 도왔습니다. 이젠 너무합니다.》

량홍규는 목덜미가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럼 지배인동문 새 주물법이 성공하리란걸 확신하고 지지했소?》

《예?...》

량홍규는 고개를 번쩍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반발의 눈길은 아니였다. 정통을 찢리워 놀란 눈길이었다. 그 눈길은 곧 아래로 미끄러졌다.

《동무는 공장기술발전전망계획에 그리고 종업원 총회 보고서와 결정서마다에 새 주물법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쪼아박았소. 그후 동무는 그 집행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소? 로력은, 자재는, 조건은?...》

당정책을 관철한다고 회의만 하고 집행을 하지 않는 여기에 문제가 있단말이요. 바로 동무의 사업태도를 통해서 당정책을 전달받는데 그치고 그 집행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위험한 생각이 군중들속에 물들수 있단말이요.

만약 우리 인민이 당의 사상으로 무장되어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못하다면 동무와 같은 일군들때문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가.

동무처럼 자기만 편안하게 살려는 극단한 보신주의는 당정책을 결쳐 대하는데서도 그대로 표현되는 거요. 이런 결합은 동무한테만 있는게 아니요. 수령님식사업방법을 따라배우자고 말은 하면서도 현지에 내려와 실지 걸린 고리를 풀어주지 못한 나한테도 있소.

가슴아픈 일이요. 각성해야겠소, 지배인동무.》

한병준의 말마디들은 비수처럼 날카롭고도 절절했다. 그는 흥분을 억제하듯 무겁게 한숨을 토크고나서 담배를 붙여물었다. 담배연기를 내뿜을 때마다 휘파람갈기도 하고 한숨갈기도 한 소리가 길게 울

러나오군했다. 먹장구름같이 꺼매진 얼굴을 감싸쥐고있는 량홍규의 절망에 싸인 모습을 보느라니 가슴이 쓰리었다.

《나는 동무를 생각할 때마다 저 초형주물법을 도입하던 때 공장옆에 있는 집에조차 들어가지 않고 밥을 날라다 현장에서 노동자들과 같이 먹으며 일하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소.

그때 노동자들은 저마끔 동무의 찬그릇에서 반찬을 집어갔소. 고작해야 명태자반이나 배추통김치였을 지배인의 찬이 무슨 특식이기라도 한 것처럼 맛보고는 그후에도 오래도록 추억하곤했소.

지배인동무, 그때가 얼마나 좋았소...

그때의 지배인으로 돌아가주오. 상급으로서만이 아니라 동지로서 진정으로 권고하는 말이요.》

한병준은 불꺼진 담배대를 재털이에 넣고나서 장갑을 집어들었다.

《우리도 현장에 나가봅시다.》

그리고는 먼저 밖으로 나갔다.

즐거운 웃음소리가 터져오르는 작업장은 희열에 넘쳐있었다. 그속에 자주색의투를 입고 살빛삼각목도리를 쓴 용모가 단아한 처녀가 섞여있었다. 그들결으로 다가가던 한병준의 입에서는 일순 놀라운 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거 렬차칸에서 만났던 동무가 아니요?》

《아이! 안녕하십니까?》

국장과 처녀가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것을 보고 모두들 의아해졌다.

《우린 이미 구면이라오.》

한병준은 주위를 둘러보며 이야기했다.

《그런데 어떻게 왔소?》

《저...》

처녀는 귀방울이 발그스레해지며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주물공청년이 찬식이더러 이야기하라고 옆구리를 찔렀다. 찬식은 눈길을 어데다 돌지 몰라 당황해했다. 그러자 청년이 처녀가 새 주물법의 실패원인과 그 대책을 연구했는데 이미 찬식이네가 한것과 꼭 맞아떨어졌다는것 그리고 형타제작공정을 자동화할 설계까지 다 해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했다.

한병준은 렬차칸에서 축매제에 대한 문문을 골똘히 들여다보던 그의 모습이 되새겨지면서 가슴이 뭉클해졌다.

《진작 그런 사이였다고 말할것이지. 자, 인제는 큰일을 하나 해제겼으니 대학을 졸업할 때의 약속을 지켜야지.》

하고 한병준은 호탕하게 웃었다.

《어마나-》

처녀는 얼굴이 딸기빛이 되어 몸둘바를 몰라했다. 창황중에 몸을 피한다는것이 찬식의 등뒤에 가서는 통에 주위에서 더 큰 웃음소리가 터져올랐다.

그들은 한병준이와 함께 초형주물기구들을 로속

에 처넣기 시작했다.

뒤늦게 휴계실을 나선 량홍규는 그자리에서 굳어져버린듯 움직이지 못했다.

화실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노동자들이 초형주물기구들을 로속에 집어넣고있었다. 백광이 이글거리는 용선로안은 초형주물기구들이 들어가자 수천의 불꽃이 축포처럼 터져오르고 시뻘건 불빛이 밖으로 짹짹 내뿜치군했다.

노동자들은 흐르는 이마의 땀을 팔소대로 닦으며 한병준의 주위에 둘러서서는 무슨 말인가 주고받고는 즐겁게 웃군한다.

그 누구도 지배인이 와 서있다는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 량홍규는 자신의 처지가 외로웠다. 마치도 지배인의 자격을 상실하고 대렬밖으로 밀리운것만 같았다. 저들속에 한자리를 차지하고싶었으나 들어가았을수 없는 자신을 찾게 된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슬픈 빛이 어리었고 지워지지 않을상심은 그들이 비끼었다.

어느덧 그의 눈앞에는 혼방직솜옷을 입고 완행렬차를 타고온 수수한 사람, 노동자들과 같이 탄산수를 허물없이 마시던 소탈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런가 하면 지배인의 찬그릇을 넘겨다본 노동자들이 몇이나 되겠는가고 준절히 이야기하던, 당정책이 집행되지 않는데 대해서 가슴을 치며 때로는 엄격한 얼굴로 바퀴기도 했다.

바로 그 모습들이 서로 합쳐지면서 참된 일군의 모습으로 떠올라 친근하게 안겨왔다.

이른새벽,

텅 빈 흙에는 세사람이 서있었다.

정찬식은 저쯤 앞 역명관앞에서 그리고 처녀와 량홍규는 뒤에 서서 차츰 속력을 높이고있는 남행렬차를 타고 떠나는 한병준을 바라우며 제각기 생각에 잠겨있었다.

량홍규는 웬일인지 눈앞이 흐려와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사회적지위가 어땠는 우리 시대의 모든 인간들은 당정책을 관철하는 길에서 서로가 방조자로 되여야 한다. 말로써가 아니라 서로 책임지는 립장에 서고 필요하다면 운명도 같이 하는 참된 방조자로 살아야 한다.

새벽녘의 날씨는 추웠으나 량홍규는 용선로앞에 선듯 온몸이 화끈거렸다. 바로 용선로의 화염으로 늘 심장을 달구며 열정에 넘쳐 살려는 삶의 욕망이 솟구쳐 올랐다.

그 불길로 하여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과 고마움과 존경심이 차넘치는 그들모두의 삶의 참된 방조자로 되고싶었다.

뿡-- 저쪽 구배길로 사라져 보이지 않으나 그렇게 살라고 당부하는 한병준의 목소리인양 남행렬차의 기적소리가 그들의 가슴속에 젖어들며 울려퍼진다.

순천의 딸에게

박세일

순천땅의 너를 찾아
이 아버진 먼길을 달려왔다
여기 새 비날론공장에서
처녀시절을 시작한 내 딸아

굽실굽실 파마머리가 아직은 수집은듯
빨간 수건속에 살짝 감추고
춤을 추듯 날아갈듯
기대 사이를 바삐 오가는 네 모습

정녕 내 막내딸이 웅단 말이나
직장에서 돌아온 이 아버지 입안에
사랑알을 넣어주며 팔에 동동 매달리던
그 응석반이가 웅단말이나

사롱사롱 돌아가는 기대소리는
너의 가슴에서 울려나온 노래인듯
송이송이 하얀 비날론솜꽃엔
너의 구슬땀이 이슬로 맺혀있는듯

참으로 좋은일을 네가 하고있구나
너 안아올린 폭신한 비날론솜

실실이 은실되고 필필이 꽃천되어
사람들을 아름답게 단장시켜주나니

누구는 너를 보고
비날론 꽃발찾아 날아든 나비라고 했는지
또 누군가는 너를 보고
비날론꽃 가꾸는 원예사라고 했는지

인민위해 베푸시는
아버이수령님의 그 사랑
비날론솜으로 꽃피워가는
예보다 좋은곳 더는 몰라

나이들어 시집을 가도
여기서 가겠다는 너
한생을 이 공장에서 살며
꼭 영웅이 되겠다는 너

장하다, 우리 딸 삼형제중에
막내딸 네가 제일이구나
온 나라 인민의 옷감을 마련해가는
너는 정녕 나라의 미더운 딸이구나

우화시

삶의 뿌리

류정형

솔바람이 부는 어느 봄날
한 솔방울에서 여문 솔씨들
제마끔 제 뿌리내릴 곳을 찾아
곧 푸석한 토양의 자양분을 한껏 빨며

산지사방 떨어져갔네
비옥한 산기슭에 떨어진 씨앗은

제 행복을 자랑하듯

청청한 줄기를 뻗었건만

메마른 바위우에 떨어진 씨앗은

간난신고끝에

바위틈에 겨우 뿌리를 박았네

무엇을 원망하라

누구를 탓하라

운명은 자신에게 달렸거니...

풍만한 대지의 품에 안긴 나무는

언제나 바위우의 제 형제를

동정하며 비웃었네

-여보게 동생

어찌하여 자네는 하필

우리 형제중에

각박한 팔자를 타고난 천덕꾸러기처럼

난 자네처럼 애쓰지 않아도

여긴 더없이 좋은 땅이라

저절로 잔 뿌리가 퍼져가고

실한 아지를 친다네

허나 어린 소나무

행운을 타고난 형제를 부러워하지 않았네

한해 두해...

여름이면 장마비에 들리울가봐

겨울이면 눈바람에 꺾이울가봐

바위틈에 더욱 깊이 억센 뿌리 내렸네

그러던 어느해 여름

사나운 비바람이 천지를 들부셨네

태고적, 지각의 그 변화처럼

밤새 무서운 광란이 있은뒤

번쩍! -맑게 열린 아침

눈부신 태양이 누리를 밝혔네

눈부신 그 빛발아래

자연의 거치장스런 허약자인가

푸석한 토양의 자양분을 달게 빨던 나무들

멀쭙한 뿌리를 드러내고 쓰러졌네

퍼렇게 죽은 잎새에선

자족이 가져온 쓰디쓴 눈물인양

비물이 똑, 똑... 떨어졌네

하지만

우람찬 바위에

억세게 뿌리박은 한그루 소나무

절경의 이 강산을 더욱 빛내이며

창창한 하늘 향해 나래를 펼쳤네

푸르게, 푸르게 설레었네

무엇을 원망하라

누구를 탓하라

운명은 자신에게 달렸거니

과연 그 누가

제 땅 제 터전을 탓함이 없이

삶의 뿌리를 깊이 내렸는가!

시 초

격동의 나날에

오영재

대표들이 오는 날

일본에서 오는 대표
유럽에서 오는 대표
미주에서 오는 대표들
런이어 비행기의 승강대를 내리고

충격적인 기쁨이란
설사 그것이 가까이 와도
차마 믿어지지 않는것이거늘
그 어떤 우연을 내 여기서 바라라

뜨겁게 손잡으며
눈물을 흘리며
포옹하며
나는 찾아본다남에 두고온 여섯형제들
그 누구 하나라도 이속에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눈물에 젖어 내리는
한 할머니를 부축해드리며
내 생각하나니
그 언제 꿈아닌 생시에
사람들속에서 혈육의 얼굴을 찾아보며
이처럼 가슴 두근거리본적 있었던가

있은들 그 어이 알아보라
40여년 세월이 흘렀는데...
그래도 어린시절 동생들의
희미한 흔적들을 애써 더듬으며
여겨보는
얼굴들
얼굴들

잡고 흔들며
놓을줄 모르는 그 손들을 거쳐
뜨거운 포옹으로 떨어질줄 모르는
그 가슴들을 거쳐
마침내는 내 혈육들을 부둥켜안을
통일의 그날이 가까이 오고있음을
내 문득 환희로이 느끼며
조용히 눈굽을 훔치노라

장벽이 가로 막혀
제 땅으로 오갈수 없는 우리 형제들
혹시나 먼곳을 돌아올수도 있으련만
아서라

8. 11

순안비행장에서

백두여 너도 우리와 함께

-출정식을 마치고 백두산을 내리며-

백두에서 한나까지
길을 떠난 행군대오여
잠시 뒤를 돌아보자
조종의 산 머리 흰 백두산이
잘 가라

잘 가라
우리를 배려우며 손짓하고있다
어제날 흠어졌던
온 겨레가 하나의 뜻을 안고

모인 이 산정
《조국통일!》
《조선은 하나다!》
피끓는 웨침과 노래가
메아리되어 어려있는 산정

백두여
백두여
민족의 아픔을 안고
45년 한나산을 부르며 머리 흰 백두여
너도 가자
너도 가자
우리는 산을 내리는것 아니구나
너는 우리를 바래우며
서있는것이 아니구나

강토와 민족을
하나로 이으려
기발을 나뭇기며 북을 치며 떠난
애국에 피타는
슬기롭고 자랑스러운 아들딸들을
너는 한품에 안고
정기 푸른 천지의 물로
우리의 마른 목을 추겨주며

백두여, 너도
우리과 함께 남으로 가고있구나

8. 13 백두산에서

어머니의 그 불행 가져주려

내 조국 어머니가
어제날 가난하고 짓밟혀
자식에게 젖을 못줘 떠났던 사람들

피눈물 뿌리며
물 건너 산 넘어
남녘을 원망하며 떠났던 아들딸들

세월은 흐르고
세대도 바뀌었건만
조상의 뼈가 묻힌
그 어머니 못잊어
피를 준 그 어머니
정다운 모국어와 피부색을 준
그 어머니 못잊어

그 어머니
무거운 장벽에 허리를 눌리워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
꿈결에도 들려와
못견디게 들려와

내 조국 어머니의
그 불행 그 고통 가져주려
의롭고 정깊은 아들딸들이여
그대들은
물을 다시 건너와
산을 다시 넘어와
통일의 대행진에 걸음을 맞추었구나

8. 14 환영연회장에서

떠나는 비행장 휴게실에서

떠나는 비행장 휴게실에서
수첩을 펼쳐들고
나에게 고향의 주소와
형제들의 이름을 묻는 동포들

북에서 못보내는 편지
해외에서 보내어

내 혈육들의 생사여부를 알아주겠다
형제들의 편지도 전해주겠다

고맙다, 동포들아
그대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통일전에 나는
내 고향의 소식을 알고

막혔던 그리움을 터뜨리는
갈라진 조국을 안고 몸부림치며
내 한생 통일을 노래해온
나는 공화국의 한 시인
내 혼자만 고향소식 먼저 안다면
천만의 리산자앞에
아픔을 못가신 조국앞에 죄스러우리니

동포야, 그 수첩에
공화국에 차고넘치는
통일의 념원을 적어가시라
범민족대회의 결의를 안고
우리 함께 힘을 합쳐

형제들의 숨결도 혹시 들을수 있으면
통일의 그날을 당겨오자

그러면
먼 나라들을 에돌이 없이
허물어진 장벽의 조각을 딛고
나는 고향에 가고
온 민족의 대환호속에
그리운 형제들과 서로 만나리

8 22
순안비행장에서

하루를 십년처럼 일하고싶구나

리 영

나는 고향 미루등에서
아버지처럼 등짐으로 논을 풀어본일이 없다
나는 어깨에 썩살이 지도록 흙짐을 지며
아버지처럼 저수지언제를 쌓은적도 없다

내 태어나던 그해
협동화의 터전을 다져가던 바로 그해에
천리마의 나래 깃을 퍼던 땅이었으니
참으로 그 시절의 이 땅우엔
얼마나 벅찬 일감이 많았을것인가

지금도 아버지 이야기가 생각난다
산기슭의 나무등걸을 뚫으며
거기에 새 파수발을 일켰다고...
밤이면 거름내던 지게로 토파를 나르며
구락부까지 덩실 지어놓았다고...

수령님의 부름을 받들어가던 그 시절
한마리의 소가 그리웠어도
목은 땅이란 다 갈아엎어놓았더라
한줌의 비료가 귀했어도
메마른 땅이란 다 갈구어놓았더라

정녕 솟는 해 지는 달 별에서 다 맞고 보내며
힘든 일감들을 아버지네들이 다 한듯
이제는 일손이 가볍고 하는 일이 흥겹기만 하다
저수지물속의 잉어떼를 볼 때면,

수확기 몰고 설레는 벌로 나갈 때면

하지만 아직은
흙갈이도 새로 해야 할 구석진 밭이랑이 있기에
그 시절 그때처럼
우리 당은 다시한번 대고조어로
우리를 불러일으킨것 아니던가

내 만일 이 벌의 설레임속에서
행복에만 마음들떠
시대의 부름에 걸음 맞추지 못한다면
저도 모르게 생길 이삭속의 쪽정이처럼
이 땅에 락오자로 남게 되리

내 만일 과원의 향기속에서
지난날의 추억에만 빠져
시대의 숨결에 호흡할줄 모른다면
어느덧 고목이 될 사과나무처럼
이 땅에 빈 터전을 남겨놓게 되리

아 앞선 세대가 이룩한 전취물들은
내 일감을 떠밀어주는 디딤돌같이
우리 시대, 우리 대에 할일을
더 앞당겨 하고만싶구나
그래서 붉은 지평선을 그려볼 때면
하루를 십년세월처럼 당기며 일하고싶구나!

내가 찾아가야 할 주소

리수덕

나에게는 하나의 수첩이 있다. 줌안에 들만큼 작은 푸른색 비닐가위의 수첩이다.

옷을 갈아입을 때에도 의례히 새 옷주머니에 잊지 않고 넣곤하는 이 수첩에는 친척, 친구들의 주소와 인민군대에 나간 내 아들의 우편대호를 비롯하여 취재의 나날에 인간관계를 맺었거나 생활과정에 꼭 만나봐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써넣은 못사람들의 주소와 이름, 또는 전화번호들이 갈피마다에 빼곡이 적혀있다.

그 가운데는 내가 이미 몇차례나 다녀온 고장도 있고 이런저런 기회에 만나본 사람이 파반수이다. 그런가 하면 때없이 편지를 보내고 받으며 창작에 도움을 받거나 설마다 년하장을 교환하며 정을 나누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유독 하나의 주소와 이름만은 아직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당사자와 편지 한장 나누지 못한 채 나의 수첩갈피에 적혀있다.

《경기도 수원시 영화동 00번지 박세환》

나는 가끔 수첩을 펼쳐볼 때마다 이 주소와 이름을 적어넣던 때의 일을 뜨거운 마음으로 더듬어보며 조국통일의 절박성을 통감하곤한다. ...1984년 가을의 어느날.

서해의 항구도시 남포시의 거리거리는 손에손마다 꽃뭉음을 든 못사람들의 물결로 뒤설레고있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동포애에 뭉어넘치는 인도주의적조치로 남조선의 수재민들에게 보내는 지성어린 구호물자를 가득싣고 인천항을 향해 떠나는 대형집배들을 배래주기 위해 남포항 구내에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수만명의 시민군중이었다.

느릴느릴 내리는 찬비도 개의치 않고 모여든 군중은 삽시에 넓은 항구내를 꽃바다로 만들었다.

수만군중의 가슴마다에 통일의 열망이 뭉어넘치는 가운데 남포시민들의 집회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드디어 모임이 끝나고 구호물자를 실은 여러척의 배에 오를 선원들이 대형집배들에 분승하기 위해 시민들의 목마에 실려 오색테프와 꽃보라색을 헤치며 안내선이 떠있는 선창쪽으로 가고있을 때였다.

내가 서있던 바로 곁에서 예상치 않은 일이 생겨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군중속에서 불쑥 달려나온 한 늙은 어머니가 선두에서 목마를 타고가는 선장의 팔을 무작정 잡아 이끌어 선원대렬이 잠시 주춤거리게 했던것이다.

꽃뭉음을 흔들며 군중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던 선장도, 곁에 있던 사람들도 놀라운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칠순을 넘은듯한 그 어머니는 자기집 트랙의 꽃밭에서 고이 가꾼듯한 생화뭉음을 선장에게 안겨주더니 피춤에서 무엇인가를 서둘러 꺼냈다.

한장의 편지였다.

《선장어른! 내 한가지 부탁이 있소. 인천에 가달거든 이 편지를 한장 부쳐주오. 내 아들한테 보내는 거라우.》

나는 금시 눈굽이 찢릿해오는 걱정을 느끼며 로파걸로 바투 다가서서 편지봉투에 적힌 주소와 이름을 눈으로 빨아들이기라도 할듯 걸탐스럽게 직시했다.

《경기도 수원시 영화동 00번지 박세환 앞》

그 글자 한자한자에 생리별이란 기막힌 사연을 지닌 사람들, 남녘땅에 부모처자, 형제와 친척들을 둔 모든 리산자가족들의 사무친 그리움이 무겁게 실려있는것만 같았다.

선장도 너무 뜻밖에 받은 당부여서 처음 한순간은 당황했다가 절절한 소망, 그 진정을 이해하고서야 편지를 품속에 소중히 간수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것을 약속했다.

이윽고 여러척의 대형집배들은 동포애의 뜨거운 마음이 깃든 구호물자를 싣고 배고동소리 높이 울리며 출항했다.

만세소리, 환호소리는 마지막 대형집배의 신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들끓던 항구내는 한동안이나 지나서야 잠잠해졌다. 사람들은 모두 흩어져갔다. 그런데 나는 선창의 한쪽 귀퉁이에 못박힌듯 움직일줄 모르고 서있는 한사람을 발견했다. 해풍에 날리는 한 머리카락, 뺨뺨이 다려입은 회색 치마저고리, 퍼그나 굵을사한 허리 여불없이 아까 선장에게 편지를 부탁하던 그 어머니였다. 그는 대형집배들이 이미 사라진지 오래건만 저멀리 파도쪽을 넋없이 바라보고있었다.

마치 아들의 회답편지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그 선장을 그대로 그자리에 서서 기다리다가 맞이하기라도 할듯...

나는 측은하게 서있는 그 어머니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건넸다.

《어머니 이제 그만 돌아갑시다.》

어머니는 그제서야 제정신이 든듯 두볼을 타고 내린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걸음을 떼었다.

우리는 항 정문을 나서서도 한동안이나 후포천기슭의 공원길을 같이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파정에 나는 그가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의용군을 탄원한 남편의 뒤를 따라 다섯살난 어린 자식을 등에 업고 공화국북반부로 오게 된 경위며 딸아들을 남녘에 남기고 온 사연도 알게 되었다. 외진섬에 사는 큰아버지집에 피난보냈던 딸아들이(당시 여덟살이었다) 전쟁의 와중속에 배길에 막혀 돌아오지 못하게 되자 시간은 촉급하고 갈길은 멀어 고향집 문고리에다 《세환아, 기다려라, 어머니는 곧 온다》라고 쓴 쪽지편지를 걸어놓고 왔다는 그 애절한 이야기는 참으로 눈물겨웠다.

《그때에야 며칠간 아니면 기껏 한두달 얼핏 헤어졌다가 다시 모여살줄 알았했는데 어느덧 40여년을 눈앞에 바라보게 되었구려, 정말 참구 견디기엔 너무나두, 너무나두 길구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지요.》

마디마디에 민족분렬의 고통과 쓰라림이 똑똑 내뿜는 말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의 분렬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절박한 과업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바뀌도록 지속되고있는 민족의 분렬이 도저히 허용될수도 없고 더는 참을수도 없는 력사의 비극임을 생각하며 한가정에 비낀 생리별의 참극을 되새겨보는 나의 가슴은 깊은 상념으로 질어갔다.

무릇 자식을 슬하에서 떼어놓고는 순간도 마음놓지 못하는것이 모성의 본능이고,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는 단하루도 마음 편히 살수 없는것이 자식이다. 하거늘 철부지가 50대가 되고 애꼴던 어머니가 파파늬은 로인이 되도록 단한번 만나기는 고사하고 생사여부를 알리는 편지 한장 주고받지 못한채

서로의 모습을 머리속에 상상해보며 살아오는 그들의 가슴속에 덧쌓인 그리움과 걱정 오죽하랴. 아마도 이 한가정의 사무친 그리움과 긴긴세월 묵새겨온 그 근심만 퍼놓아도 3천리강산을 덮고도 남으리라.

내가 이런 생각으로 격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있는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

《이제 조국통일이 되는날 나하구 같이 우리 고향 마을에 꼭 한번 가보자구요. 참 풍치 좋은곳이지요. 내 고향 주소를 기억해두오. 그리구 내 아들이름 두...》

나는 이미 그 주소와 이름을 익혀두고있었지만 그의 진정어린 당부를 성의있게 받아들이고싶은 생각에서 수첩을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그가 불러주는대로 주소와 이름을 토박토박 적어넣었다.

반드시 그의 고향땅으로 취재의 길을 떠나게 될 조국통일의 그날을 굳게 믿으면서...

나는 이 대목에 이르러 남녘의 고향땅에 사랑하는 아들을 두고온 그 어머니에 대한 《후일담》을 적으려 한다.

물론 그때 선장이 부탁받은 편지를 어머니의 소망대로 남녘의 아들에게 전해주지 못한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파쑈의 광풍이 회오리치고 초보적인 인권마저 짓밟히는 불모의 땅, 《반공》이 국시로 선포되고있는 남녘땅에서 공화국의 한 공민의 편지를 전달해주는 일이 어떻게 용납될수 있었으랴.

그후 내가 취재차로 한 숨은 공로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그 어머니를 만나게 된것은 정말 뜻밖의 일이었다. 숨은 공로자가 다름아닌 그 어머니의 둘째 아들이었던것이다.

그의 가정은 참으로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이었다. 공화국의 파사론 품속에 안겨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나 대학까지 졸업한 그의 둘째 아들은 큰기업소의 능력있는 기술일군으로 일하고있었고 머느리는 고등중학교 교원으로 일한다는것이였다. 손자들도 꼴꼴했다.

이 행복한 가정에 큰 근심거리가 있고 피로움이 있다면 남녘에 두고온 사랑하는 아들의 생사여부조차 모르는 처지에서 40여년간을 헤어져 살아야 하는 뼈저린 고통, 그것이였다.

그날도 그 어머니는 이미 한번 남녘땅에까지 가닿기는 했으나 결국 되돌려받은 그 편지를 아직 건

사해두고있다가 내앞에 내놓으며 절통한 마음을 금치못해하는것이였다.

나도 이미 눈에 익힌바 있는 그 편지를 손에 쥐고 비분강개한 마음을 억제할수 없었다.

어찌하여 천리길도 만리길도 아닌 한나라, 한강토안에서 우리의 수많은 어머니들과 아들들이, 그리운 친척들과 친구들이 갈라져서 만나지도 못하며 편지 한장 전하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가.

동서고금의 그 어느 나라 역사를 들추어도 우리의 우리 조선민족처럼 국토의 랑단과 민족분열의 참기 어려운 이런 비극을 겪어본 그런 일, 그런 민족이 과연 있었는가. 없었다!

그런데 류레없는 이 참극을 도대체 어느놈들이 조선민족에게 강요하고있는가?

편지를 받아전체 내가 한동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 편지를 전사해두게나. 혹시 글쓰는데 도움이 될수도 있지 않겠나? 이제 조국이 통일되거든 꼭 우리 고향에 찾아가서 사연많은 이 편지에 대한 이야기도 옛말삼아 고향사람들에게 전해주게. 내 아들한테두...》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고 하니 혹시 난 고향땅에 영 못가볼수도 있기때문이니네.》

《원 무슨 그런 말씀을... 우리야 벌써 약속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네 고향에 같이 가자구요. 지금 90년대에 기어이 우리 조국을 통일하자고 온 겨레가 떨쳐나서고있지 않습니까. 조국통일의 그날은 결코 멀지 않습니다.》

내가 신심을 주며 하는 말에 어머니는 고향에 갈날을 그려보는듯 밝은 미소를 짓는것이였다.

그때로부터 어언듯 6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사이에 나는 그 어머니를 거리와 버스정류소, 혹은 공원에서 드문히 만나곤했었다. 그때마다 우리는 피차 류다른 친근감을 가지고 인사를 나누었고 헤어질 때면 나는 말없는 말속에 이미 약속한것을 상기하곤했었다.

그런데 나는 얼마전 뜻밖에도 비통한 소식을 받아안게 되였다. 그렇듯 남녘의 고향과 거기에 두고 온 자식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던 그 어머니가 전쟁때 미국놈비행기의 폭격으로 허리에 입었던 상처가 도져서 세상을 떠났다는것이였다.

막을수 없는것이 세월이고 또 사람의 육체적생명에는 한정이 있는것이여서 누구나 한번은 기필코

맞이해야 하는것이 죽음이라 하지만 아직 더 오래 앉아있을수도 있는 그 어머니가 원쑤놈들이 입힌 상처때문에 조국통일의 려명이 바야흐로 밝아오는 때에 세상떠났음을 생각하니 막 가슴이 저리였다.

통일된 조국을 보지 못하고, 철부지시절에 헤어진 아들을 단 한번 만나기는커녕 편지 한장 주고받지 못한채 그 이름을 부르며 가시였을 어머니.

세상떠난 어머니결에나마 자기의 친형을 부르고 싶은 마음 간절하나 전보 한장 날릴길 없어 가슴두드리는 동생의 애통한 그 마음!

이것이 어찌 남녘땅에 고향을 둔 한가정만이 겪는 비극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나는 남녘에서 울수 없는 그 아들을 대신하는 심정으로 깊은 조의를 표시하고 돌아오는 길에 심중한 생각에 젖어들었다.

(분열을 끝장내야 한다. 하루빨리, 아니 한시바삐 분열의 장벽을 허물고 남북의 형제들이 자유로이 래왕하며 혈육의 정을 나눌 그날을 앞당겨야 한다.

조국통일, 그것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며 누가 선사해주는것도 아니다. 원하고 불려서 올 통일이 아니다. 기어이 밝아올 통일의 그날 <너는 조국통일에 무엇으로 어떻게 기여했는가?> 라는 질문에 뿔뿔이 답변할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줄달음쳐 살아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민족들이 비장한 결심을 안고 순간순간 통일을 공기처럼 <호흡> 하며 싸울 때 조국통일성업은 기필코 가까운 앞날에 성취될것이다.)

나는 확신에 넘쳐 수첩을 꺼내들고 통일의 그날에 찾아가기로 약속한 그 주소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았다. 물론 그곳은 내가 난생처음 찾아가야 할 생소한 고장이다. 그러나 그곳은 내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평범한 한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그토록 못잊어하던 땅이고 함께 가기로 약속했었으나 어차피 같이 못가게 된 고장인것으로 하여 더욱 소중한 지명으로 나의 뇌리에 새겨진곳이다.

나는 굳게 믿는다. 90년대에 반드시 밝아오고야 말 조국통일의 그날, 나는 취재의 행장을 갖추고 남행렬차에 올라 조국기행의 길을 떠나리라.

그 길에서 나는 그 어머니의 고향땅도 꼭 찾으리라. 찾아가서 오랜 나날 전하지 못했던 그 편지와 함께 헤어져 긴긴세월 우리모두의 가슴속에 쌓이고 쌓였던 그리움과 못사연들을 그곳 고향사람들과 그의 아들에게 전해주리라.

통일거리가 일떠선다

방만필

또 한층
벽체를 올리고
나는 잠시
멀리 남쪽을 바라본다

또 한칸
창가에 문틀을 걸며
나는 또다시
그리운 혈육들을 생각한다

이 집에 이 집들에
긴긴 세월
꿈에 어리던
어머니며
누이며
형님, 동생들이 다 모여앉게 된다면

얼마나
그날에 얼마나
통일거리건설자의 이 마음
궁지에 넘치랴

이 집에서 이 집들에서
어릴 때 헤어진 아들을
꿈같이 만난다면
손자손녀의 재롱에
지난 세월의 아픔을 가시며
나날이 젊어지실 어머니들을 생각하며
나는 또 한층 벽체를 엮는다

여기 이 창가에서

자나깨나 눈에 보여오던 고향의 강
대동강의 새 경치를 바라보며
흰서리 내린 머리를 쓸어올리며
어릴적 추억에 잠긴이들도 있다면

대동강물결도
춤을 추리
부는 바람도 꽃향기를 실어
한껏 뿌려주리

이 나라 어느 가정
그 누구에겐들
헤어져 긴긴세월
그립고그립던 혈육이 없으랴

아름다운 꿈과
소원을 불러주며
통일거리가 일떠선다
한가정만이 아닌
온 나라 온 겨레의 녀원에 받들리어
통일거리가 일떠선다

남녘의 혈육들
그모두의 모습을 그리며
한층
또 한층
거리가 일떠선다
소원과 함께

아, 통일의 그날을 부르며
통일 거리가 일떠선다